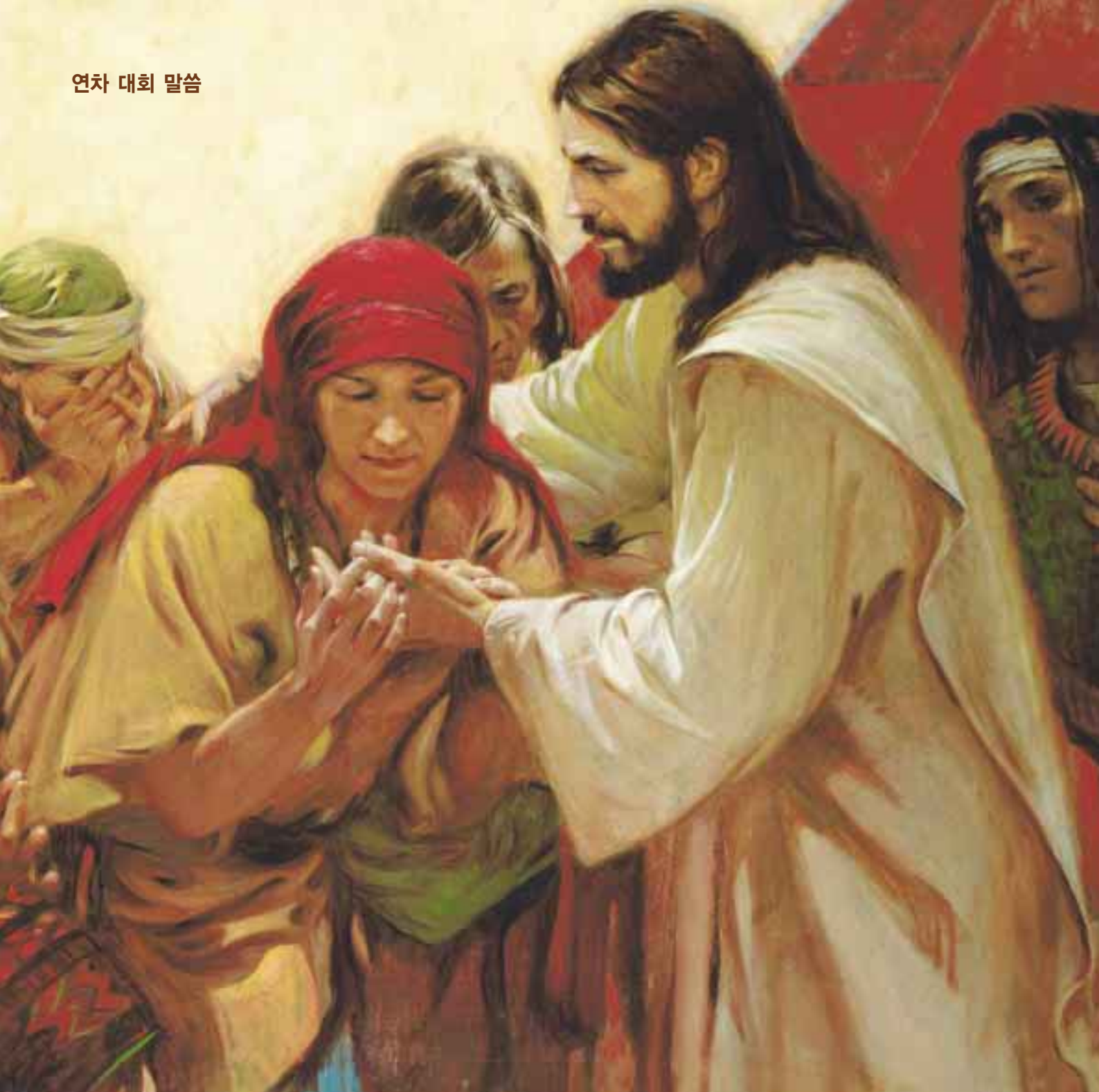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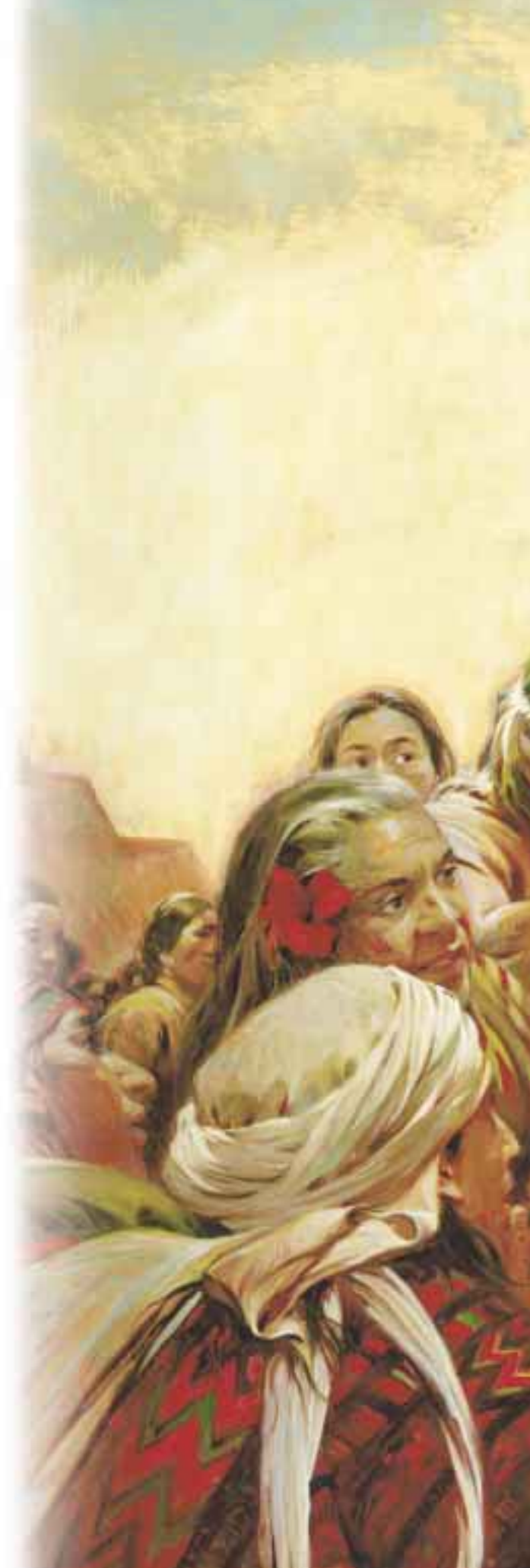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이다.
“...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 보았으며,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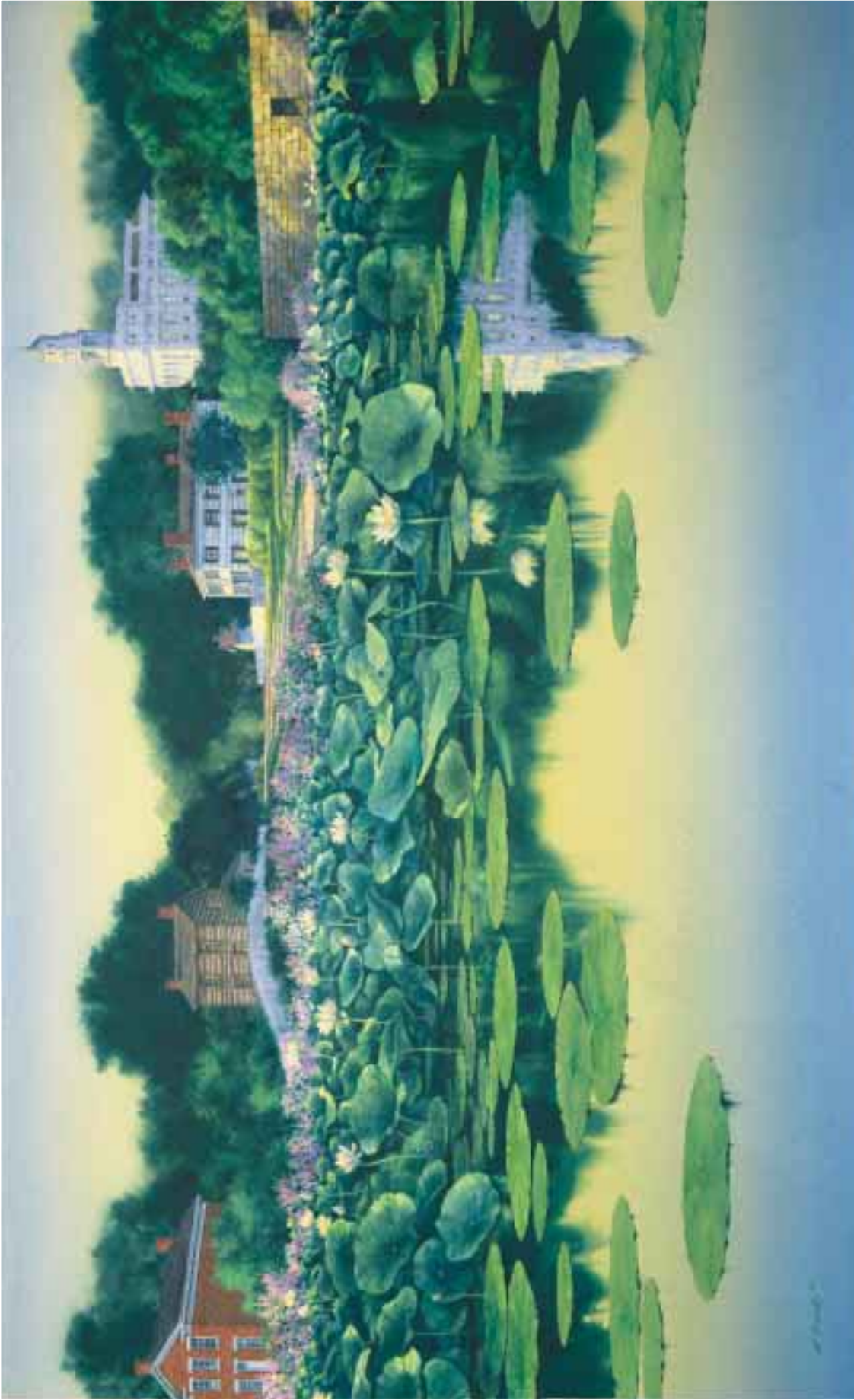




© 2003, 폴턴의 손에 의해 가문대, 복제 금지

월터 레인, 나아오라

모로나이 장군은 자유의 기치를 만든 후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
그 옷의 찢은 조각을 공중에 흔들어 ... 이르되: 보라, 무릇 이 땅 위에 이 기치를 지키기 원하는 자는
다 주의 힘 안에 나아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어,
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였느니라.”(앨마서 46: 19~20)



알 라운즈, 조셉의 나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거듭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 한 채를 짓되 이 곳에 지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충실함을 너희가 내게 입증하며, 그리하여 나로 너희에게 복을 주어 존귀와 불멸과 영생으로 너희에게 면류관을 씌우게 하라.”(교리와 성약 124:55)

리아호나

2 제175차 반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6 물몬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엘 톰 페리 장로
- 10 준비하라. ...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키스 비 맥멀린 감독
- 13 육신의 신성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 16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20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3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24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28 청년들에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31 참된 행복: 의식적인 결정
벤하민 데이 요오스 장로
- 33 물몬경,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 35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기회가 있으시다면 ...”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 37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41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임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신권 모임

- 44 선교사가 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48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찰스 디디에이 장로
- 50 연차 대회의 축복
폴 브이 존슨 장로
- 53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56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0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7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0 시온의 언덕 위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74 모두를 위한 모형
매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 76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쉐릴 시 램트 자매
- 78 회복된 진리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81 용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5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러셀 엠 넬슨 장로
- 88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92 희생은 곧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고원용 장로
- 94 약속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성약
폴 이 컬리커 장로
- 96 주님의 나침반
로웰 엠 스노우 장로
- 98 “내 양을 먹이라”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100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103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상호부조회 총회

- 105 비디오: 주님의 손에 든 도구

- 107 감미로운 순간들
보니 디 파킨 자매
- 110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 112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
앤 시 핑그리 자매
- 114 주님의 손에 든 도구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18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연차 대회를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음
- 120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21 상호부조회 가정, 가족, 개인 강화 모임 및 활동 지침
- 122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
- 125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26 교회 소식



제175차 반연차 대회 요약

2005년 10월 1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해롤드 지 힐렐 장로. 폐회 기도: 다윈 비 크리스티슨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과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티슨: 찬송가, 27장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104장 "예수님 생각하오니". "He, Watching over Israel", 멘델스존. 찬송가, 83장 "위대하신 여호와여". *어린이 노래책*, 78~79쪽 "주 예수를 닮으려고", 브래드포드 편곡, 내이저 싱스 출판. 찬송가, 134장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05년 10월 1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개회 기도: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폐회 기도: 에프 멜린 해몬드 장로. 음악: 유타 주 바운티풀, 우즈 크로스, 북 솔트레이크 지역의 스테이크 연합 청년 청년 합창단. 지휘: 마이클 허프.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와 보니 굿리프: 찬송가, 8장(영문) "Awake and Arise", 허프 편곡, 미발표. *어린이 노래책*, 88쪽(영문) "On a Golden Springtime", 허프 편곡, 미발표. 찬송가, 5장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64장 "이 즐겁고 기쁜 날", 허프 편곡, 미발표.

2005년 10월 1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 폐회 기도: 아테마 다미아니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주 오렘 스테이크 내 부자 신권 합창단. 지휘: 도날드 리플링거. 오르간 반주: 존 룡허스트: "Truth Restored", 베토벤 및 존스 곡, 리플링거 편곡, 미발표. 찬송가, 146장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필드스테드 편곡, 미발표. 찬송가, 200장 "너 이스라엘 장로는". 찬송가, 141장 "의와 진리 지키기에", 리플링거 편곡, 미발표.

2005년 10월 2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개회 기도: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폐회 기도: 네드 비 루에시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리처드 엘리엇, 존 룡허스트: 찬송가, 4장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24장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기도", 윌버그 편곡, 미발표. 찬송가, 30장 "슬픔에 잠긴 나그네", 윌버그 편곡, 미발표. 찬송가, 63장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296장(영문, 1948년도 판) "The Seer, Joseph, the Seer", 비즐리 편곡, IRI 발표(테너: 스텐포드 올슨). "Ode for Joseph", 브래드셔, 잭맨 발표. 찬송가, 18장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윌버그 편곡, 잭맨 발표.

2005년 10월 2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에이치 엘드리지 길레스피 장로. 폐회 기도: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크레이크 제섭,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린다 마게츠: 찬송가, 170장 "쇠막대", 겔브레이스 편곡, 미발표. *어린이 노래책*, 76쪽 "사랑이 깃든 곳에", 카든 편곡, 미발표(플루트: 지니 각케리즈, 하프: 티마리 오스월드). 찬송가, 13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윌버그 편곡, 미발표.

2005년 9월 24일 토요일 저녁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사회: 보니 디 파킨. 개회 기도: 바버라 디 록하트. 폐회 기도: 릴리안 비 드롱. 음악: 유타 주 오렘 스테이크들의 상호부조회 합창단. 지휘: 다이앤 라일리.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와 보니 굿리프: 찬송가, 3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마게츠 및 라일리 편곡, 미발표. "When I Feel His Love",

제니스 캡 페리. 찬송가, 35장 "굳도다 그 기초", 윌버그 편곡, 미발표.

연차 대회 녹화 기록 구입

여러 언어로 된 연차 대회 모임 녹화 기록은 일반적으로 대회 후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통역되어 있는 대회 말씀을 찾아보시려면,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한 사람씩, 월터 레인 작, © 2003, By the Hand of Mormon Foundation, 복제 금지.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 장면들은 크레이크 다이몬드, 웰드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레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스코트 데이비스, 레이 날슨, 로드 보엠, 엠버 클러슨, 쉐논 노튼, 브라질의 아드리아노 베도비, 프랑스의 데이비드 앤더슨, 멕시코의 이스라엘 구체레이스, 미시간 주의 로드 허미에키와 리 코첸더퍼, 페루의 메이슨 워, 사모아의 주디스 존스턴 니우엘루아가 촬영했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제11호

2599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화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장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레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톰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런, 멜빈 래빗, 샬리 제이 오데커, 이담 시 울슨, 슈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김벌리 펠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서린 허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타스,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476호, 제42권, 제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05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들(가나다 순)

고든 비 힝클리, 4, 60, 81, 103, 105
 고원용, 92
 달린 에이치 옥스, 2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44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00
 라셀 엠 넬슨, 85
 로버트 디 헤일즈, 88
 로우얼 엠 스노우, 96
 리차드 지 스코트, 78
 메릴 제이 베이트먼, 74
 벤하민 데이 오요스, 31
 보니 디 파킨, 107
 보이드 케이 패커, 70
 수잔 더블류 태너, 13
 웨일 시 램트, 76
 시 스콧 그로우, 33
 앤 시 핑그리, 112
 엘 톰 페리, 6
 엠 라셀 벨라드, 41
 올리세스 소아레스
 제임스 이 파우스트, 20, 53, 114
 제프리 알 홀런드, 28
 조셀 비 워스런, 16
 찰스 디디에이, 48
 캐서린 에이치 휴즈, 110
 키스 비 맥멀린, 10
 토마스 에스 몬슨, 23, 56, 67
 폴 브이 존스, 50
 폴 이 컬리카, 94
 폴 케이 시브로스키, 35
 헨리 비 아이어링, 37

주제별 색인

50, 60, 76, 78, 94, 96, 100, 112
 가르침, 교수법, 67
 가족, 24, 41
 간중, 28, 33
 결혼, 24, 41
 겸손, 13, 28
 경전 공부, 6, 37, 41, 48, 70, 76, 88, 92, 112
 계시, 20, 48, 50, 70
 교회의 성장, 4, 70
 구원의 계획, 37, 74, 78
 권세, 24
 그리스도의 빛, 20
 기도, 37
 기쁨, 92
 도덕성, 13, 41, 78
 독신 성인, 24, 114
 돌이킴, 35, 48, 85, 100
 모성, 107, 114
 물몬경, 6, 33, 70, 74, 76, 88
 배도, 53, 78, 88
 보호, 60
 본보기, 33, 67
 봉사, 16, 35, 56, 60, 107, 110, 114
 부름, 53, 56
 부지런함, 67, 96
 부채, 53
 사랑, 67, 81, 98, 110
 상호부조회, 105, 107, 110, 114
 선교 사업, 33, 35, 44, 67, 112
 선지자, 6, 16, 48, 50, 53
 선택의지, 16, 31, 78, 100, 112
 성신, 16, 20, 48, 78
 성약, 20, 33, 44, 94, 110, 112
 성전 및 성전 사업, 4, 13, 16, 94
 속죄, 74, 78, 81, 85
 순종, 10, 16, 37, 44, 48,

개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교회가 유아기에서 현재의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경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과였습니다. 영국 군인들의 유해는 세상 곳곳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것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은 그의 시 “퇴장 성가(Recessional)”에서 대영제국의 소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먼 곳에서 우리의 해군은 사라졌네
모래 언덕과 바다의 곳 위로 불꽃이
가라앉누나
화려하고 장엄했던 어제를 보라
니스웨와 두로 성 같지 않은가
(“God of Our Fathers, Known of Old”,
영문 찬송가, 80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이 훌륭한 세계적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이 넓은 컨퍼런스 센터가 입추의 여지도 없이 가득 찼으며 이 지역의 다른 건물들도 역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 곳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사랑합니다.

저는 7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당시 대영제국은 건재했습니다. 그 제국은 지상에서 가장 널리 펼쳐져 있는 정치적 국가 집단이었습니다. 대영제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기는 세계 만방에서 펄럭였습니다.

훌륭한 일들이 그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엄청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 탄압, 전쟁 및 분쟁의

이제 또다른 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회복된 복음의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서는 결코 태양이 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복, 분쟁 혹은 전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설득과 간증과 가르침을 통해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씩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금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과 교회 조직 175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아기에서 현재의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경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전 건축은 이러한 성장의 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122개의 성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 성전을 통해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 추천



서를 받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은 또한 충실한 후기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내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훌륭한 가족 관계를 갖고, 지역 사회에서 더 훌륭한 시민이 될 것입니다. 성전 봉사는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활동에 있어 최후의 산물입니다.

지난 해에 성전에서 3천 2백만 건의 의식



대회 시작 바로 전 만원이 된 컨퍼런스 센터 강당.

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 어느 해보다도 많은 수입입니다. 현재 일부 성전은 수용 인원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충실한 성도들의 필요 사항과 소망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솔트레이크 벨리 남동쪽에 건립될 새로운 성전 건축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솔트레이크 계곡의 서쪽과 남서쪽에서는 친절

한 택지 개발 업자들의 도움으로 이 두 지역에서도 훌륭한 성전 부지를 찾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데이브레이크 단지라 불리는 곳에 건립될 것이며,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발표를 드립니다. 왜 유독 유타에서만 성전을 많이 건립하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활동 회원들의 참여도와 필요성 때문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아이다호 렉스버그와 트윈폴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핀란드 헬싱키, 파나마 파나마시티, 브라질 쿠리티바에서의 새로운 성전 건설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하게 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건축을 고려 중인 성전들도 있습니다. 제가 거명한 성전들은 모두 대지를 구입하고, 다양한 단계의 완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의 헌신

에 감사드립니다.

성전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는 세계 전역으로 성전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대리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가계도로 작업하여, 같은 이름을 제출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이 복잡한 컴퓨터 기술에 있습니다. 모의 시도에 따르면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전세계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우리는 위성 중계 기술을 이용하여 스테이크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교회가 이제 너무나 크게 성장하여,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및 다른 총관리 역원들이 스테이크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스테이크를 재조직하거나 분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중계를 통해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말씀을 전하고 지구촌 곳곳의 스테이크 센터와 다른 시설에서 보고 듣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국제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총관리 역원들이 전해 주는 가르침과 간증 그리고 음악과 기도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후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칠십인, 감독단 및 스테이크 회장단, 보조 조직 지도자, 성전 및 선교부 회장단, 그리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아낌없이 바치는 다른 많은 분들의 엄청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의 가장 훌륭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물몬경을 읽음으로써 오는 축복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물몬경을 연구하며 그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매달 이 훌륭한 교회 잡지인 *리아호나*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잡지의 각 호에 실려 있는 제일회장단 메시지는 저를 강화시켜 줍니다. *리아호나* 8월호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물몬경을 읽거나 다시 읽으라는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와 실려 있었습니다.

왜 힝클리 회장님은 물몬경을 읽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유익하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의 매력은 진리처럼 끝이 없고, 인류

처럼 우주적입니다. 물몬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이 성스러운 권능으로써 물몬경의 참됨에 관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약속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의 기원은 기적적입니다. 그 기원에 관한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의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몬경은 지금 여기에 있고, 느끼고, 손으로 만져 보고,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논박할 수 없습니다. ...

“기록된 다른 어떤 경전도, 사람과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때에는 번성하고 성장하지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는, 의로움으로 그것을 저지하지 않는 한, 무기력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쇠퇴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것처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4~5 쪽)

물몬경을 읽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물몬경의 주요 저자들이 자신들의 기록이 그 세대의 사람들보다는 주로 미래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이는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너희

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물몬서 8:35) 선지자 니파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한즉 이러한 연유로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기록하는 이러한 것들이 간직되고 보존되어, 대대로 나의 자손에게 건네어져 내려가리라 하셨나니, 이는 땅이 있는 동안은 그의 자손이 결코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니파이후서 25:21)

물몬경은 이 세대에 대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 책이 오늘날 지상의 상황을 얼마나 분명하게 묘사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기록들이] 나아오지 아니할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이것들이 반드시 나아올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음이라. 이는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이것들이 나아올 터인 즉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임이라. 또 이는 기적이 폐하여졌다 하는 날에 나아올 것이요, 참으로 마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는 것같이 나아올 것이라.

“또 비밀 결사와 어둠의 일로 인하여, 성도들의 피가 주께 부르짖는 날에 나아올 것이라.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부인되며, 교회들이 더럽혀지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날에,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일어나 실로 그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시기하기에 이르는 날에 나아올 것이라.

“참으로 이것은 타국 땅에 불과 태풍과 연무가 있음을 듣게 되는 날에 나타나리니,

“또 그때에 또한 처처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음을 듣게 되리라.

“참으로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아오리니, 살인과 강탈과 거짓말과 속임과 음행과 온갖 가증함이 있을 것이라. 그때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아니면 저렇게 하라,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나니, 이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실 것임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여 있음이라.”(물몬서 8:26~31)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물몬경이 우리 시대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몬경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이 책은 타락한 백성의 기록으로 오늘날 우리의 축복을 위해 영감 받은 사람들이 편집했습니다. 그 백

성들은 이 책을 결코 갖지 못했으며, 우리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에 있는 선지자 물몬이 수세기 동안의 기록을 요약했습니다.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그가 요약한 기록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하나님의 말씀: 물몬경”, 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0쪽)

우리는 영감 받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할 목적으로 그 기록을 편찬했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로 그것을 타락한 백성의 역사로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경의 주요 저자들은 물론경이 역사책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았습니 다. 사실 야곱은 그의 형 니파이가 “이 백성의 역사에 관해서는, 가벼운 정도 이외에는 손대지 말라”(야곱서 1:2)고 자신에게 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왜 이 저자들은 이런 특정 이야기나 사건을 기록에 포함시키기로 했을까?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물론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 중에는 전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정당화되는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경은 사람들에게 관해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 세워진 비밀 결사의 해악과 위험성에 대해 말해 줍니다. 사탄의 실재성에 관해 말해 주고, 또 그가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의 예를 보여줍니다.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해 줍니다. 명백하고 귀한 복음의 진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 및 신성,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의 속죄 희생에 관해 말해 줍니다. 후일에 있을 이스라엘 집의 집합에 관해 알려 줍니다. 선교 사업의 목적과 원리에 관해 말해 줍니다. 교만, 무관심, 미루는 것, 그릇된 전통의 위험성, 위선, 불순결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물론경을 연구하며 그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물론경은 가족이 경전을 갖고 그 경전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선지자였던 아버지 리하이는 사람들의 간악함에 관해 공포했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 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 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광야로 떠나되,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과

양식과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떠났느니라.”(니파이전서 2:4)

얼마간을 여행한 후에 리하이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은 그들이 더 여행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늦쇠판에 새겨진 조상들의 기록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들에는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이 실려 있었습니 다. 기록을 얻기 위해 되돌아 가라는 임무가 리하이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누가 라반의 집으로 가서 늦쇠판을 달라고 요청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 다. 레이먼이 뽑혀, 라반에게로 갔으며,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이 노하여 레이먼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고, 그로 그 기록을 갖게 하려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레이먼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는 도적이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3:13) 레이먼은 늦쇠판을 얻지 못하고 목숨만을 부지한 채 도망쳤습니 다.

이 첫번째 시도에서 제가 주목하는 한 가지는 그 형제들이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경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연구에 임함으로써 물론경을 읽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 줍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에서 히클리 회장은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과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론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목표를 성취하도록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반 이상을 읽는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책을 다 읽게 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8월과 9월은 이제 지나갔습니 다.

히클리 회장의 권고에 따르면, 지금쯤 우리는 앨머서 4장에서 12장 사이를 읽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뒤처져 있습니까?

늦쇠판을 얻으려던 첫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니파이의 형들은 포기하고 광야에 있는 가

족에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계속 노력하자며 그들을 격려했고, 기록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충실하사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의 땅으로 내려가사이다. 이는 보소서 그가 금과 은과 온갖 종류의 재물을 버려 두셨음이라. 또 그가 이렇게 행하신 것은 모두 주의 명령으로 인함이었나이다. ...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들어가 라반에게로 가서, ... 기록을 우리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대신 우리가 우리의 금과 우리의 은과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니파이전서 3:16, 24)

니파이의 모범은 경전의 축복이 재산 및 다른 세상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 순간적인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영속적인 기쁨과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의 것들을 추구할 때, 그 보상은 영원하며,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추구하는 만족감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히클리 회장은 우리가 물론경을 읽고 세상의 것들 위로 일어서서, 주님의 것들을 즐기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저 없이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물론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더욱 충만히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이런 축복들은 물질적인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니파이와 그의 형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늦쇠판을 교환하지는 제의를 했을 때, 라반은 그들의 재산을 훔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낙담한 레이먼과 레우엘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다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니파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에 흔들림



이 없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다음과 같이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사이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에 있어 충실 하도록 하사이다. 이는 보소서 주는 온 세상 사람 모두보다 더 강하시니 어찌 라반과 그의 오십보다, 혹 참으로 그의 수만보다 더 강하지 아니하시리이까?”(니파이전서 4:1)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주어진 일에 착수하자 원하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니파이가 기록을 얻기 위해 영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갔을 때, 라반은 니파이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신앙과 순종을 통해 니파이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경전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낯익은 수중에 놓게 된 니파이와 그의 형들은 광야에 계신 부친에게 돌아가 그들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에 따른다면, 우리는 몰몬경 연구의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선지자의 확실한 약속을 얻게 됩니다. 니파이와 그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경전이 “바람직한 것임을 … 참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니파이전서 5:21) 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로나이가 몰몬경의 기록을 끝맺으면서 약속했던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이다.”(모로나이서 10:32)

올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몰몬경에는 선지자 조셉의 성역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관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몰몬경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손에 쥘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며, 읽을 수 있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저는 모든 기독교계가 손을 내밀어 그 책을 환영하며 생생한 간증으로 껴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책은 선지자 [조셉]에게 계시로 온, 또 하나의 위대한 기초적인 공헌입니다.”(“하나님이 계시하신 위대한 것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2쪽)

저는 우리 모두가 현재의 선지자인 고든 비힝클리 회장님께서 회복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를 기리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연말까지 몰몬경을 다 읽으시길 간구합니다. 신앙으로 계획을 세워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 즉 몰몬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준비하라. ...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개인적인 의로움이 널리 퍼진 곳에서는 결코 비극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대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신의 견해의 핵심 부분이 오해되고 하찮게 여겨져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거의 25년 전에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마저 하지 못한 대화에서 느낀 좌절감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서는 저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선교부 내에 있는 한 도시의 시장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우리를 성심껏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당시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었

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왜 그의 도시에서 선교 사업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는 느낌을 몇 주 전에 받았으며 대답도 생각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도시의 선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해결책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시장이 당연히 더 알고 싶어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기분이 바뀌어, 처음에는 회의가, 그 다음에는 경멸하는 빛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저의 순수한 방법을 심하게 반박했으며 우리의 만남은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 대화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다음의 말씀 내용은 혼란한 세상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친절한 시장이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 수년 간의 끔찍한 재난들로 인해 진지해졌습니다. 재난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연의 힘은 그 규모에서 엄청나며, 인간의 공격은 그 대량 학살에

있어 무자비하고, 억제되지 않은 욕구는 방탕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붕괴는 엄청난 비율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를 낸 남아시아 지역의 쓰나미와 미국 지역의 허리케인들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가장 최근의 재난들입니다. 전세계의 마음과 손길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서로의 차이점이 동정과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재난으로 시달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상기시켜 주는 사람들에게 빛을 지게 됩니다. 대피소에 있는 한 미망인은 잔인하게 죽은 아들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신앙을 잃어서는 안 돼.”라고 울먹였습니다. 생존자들은 카트리나의 맹위에 압도되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탄원했습니다.¹

그러한 재난의 원인은 끝없는 논쟁의 주제입니다. 시사 해설자, 정치인, 과학자 및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회복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즉 땅의 주민들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조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였고, 그에게 명하였으며, ...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니라.”²

그러한 재난의 이유나 목적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 봅시다. 다행히도, 이곳에서는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몰몬경과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읽어 보십시오.³ 그리고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께서 후일에 주신 계시들을 공부하십시오.⁴ 이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재난은 역경의 한 형태이며, 역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면, 역



고든 비 힝클리 회장(가운데), 제일회장단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왼쪽), 제일회장단 제2보좌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경은 우리를 훈육하고, 육욕적인 본성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우리 안에서 신성한 불꽃을 키워 줄 것입니다. 역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나은 편”⁵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를 것입니다. 역경은 회개해야 할 것을 알게 하고, 저속한 본능을 굴복시키며, 의를 받아들이고 “양심의 평안”⁶을 누리도록 도와 줍니다.

의를 고수할수록, 우리는 구주께서 돌보시는 보호하심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⁷ 그분의 가르침과 속죄는 회개하는 영혼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혹은 구원자이시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 각자는, 비극이 우리를 둘러싸더라도, 자신의 개인적 세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진리를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메시아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또 그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

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 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⁸

악마는 파괴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다만 필멸의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진행을 막거나, 우리의 연약한 팔로 사납게 이는 폭풍우를 막거나, 쇠퇴하는 건강에 의해 육신의 거동이 불편할 때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세계까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의도이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끝이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올바름, 충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⁹

따라서, 참으로 존경하는 시장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그것이 모든 살아 있는 영혼의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보다 훌륭하게 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하는, 그에 상응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징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가?

경전에서, 주님은 그러한 심판이 내려질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즉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예비하고 있 으라.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 이기 지 못하리라.”¹⁰

교회와 그 회원들은 자립하고 독립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¹¹ 준비는 신앙과 함께 시작 되며, 그 신앙은 인생의 변화가 올 때에 우리 로 하여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을 예비 여행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는 신앙은 두려움 을 정복하고 영성을 얻게 합니다.

영성은 우리가 “기도[하고] ... 주 앞에서 올 바르게 갈을”¹² 때 자라납니다. 그것은 “자신 에 대한 승리와 무한하신 분과의 교통에 대한 자각”입니다.¹³

신앙, 영성 및 순종은 준비되고 자립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십일조의 성약에 순종할 때, 우리는 궁핍과 파괴자의 힘으로부터 보호 받습 니다. 금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후하게 바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며 가족 의 충성심은 증가합니다. 선지자의 권고에 순 종하고 우리의 능력 안에서 생활하며, 불필요 한 부채를 피하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 해 최소한 일 년치의 충분한 생필품을 비축해 놓을 때 우리에게는 비슷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선”¹⁴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창고는 비지 않을 것이며 “충분하여 남는 것이”¹⁵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이는 왕국이 너희 것임이라.”¹⁶

힘과 복원력은 의로운 생활로 인해 옵니다. 일요일에만 성도가 되고 주중의 나머지 날에는 태만한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통제되 지 않는 욕구는 파괴적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게]”¹⁷ 합니다. 브 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이 짓게 될 죄는, 그들이 아 는 것만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에 이르는 지름 길입니다. 개인적인 의로움이 널리 퍼진 곳에 서는 결코 비극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런 권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슬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 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¹⁹

후기 성도로서 우리의 의무는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재림을 위해 자신과, 이 세상과 그 주 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강하게 되는 것은 현세 와 내세에서 행복을 보장하고 이 “원대한 복천 년의 사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좀더 당당하게 서 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행해야 할 원 대한 복천년의 사명을 보다 잘 인식하고 이해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 미와 그 폭과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주저 없이 앞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올바른 일을 행할 때입니다. 계명 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낙담하 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서로에게 사려 깊고, 선하며, 예 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좀더 그리스도다워져야 합니다.”²⁰

주님의 선지자가 준 이 권고는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리켜 줍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²¹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 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 니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신앙과 기도가 여러분 과 함께할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전진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Evan Thomas 인용, “The Lost City”, Newsweek, Sept. 12, 2005, 44.
2. 교리와 성약 1:17, 37.
3. 조셉 스미스-마태 참조.
4. 교리와 성약 45, 88, 101편, 133편 참조.
5.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가, 118장.
6. 모사이아서 4:3.
7. 마태복음 8:25~27; 마가복음 4:39 참조.
8. 니파이후서 2:26~27.
9. History of the Church, 5:134~135.
10. 교리와 성약 38:9.
11. 교리와 성약 78:13~14 참조; 주님의 방법으로 배움: 복지 사업 지도자 지침서, 5쪽.
12. 교리와 성약 68:28.
13. 데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 1969년 10월, 8쪽.
14. 고든 비 힝클리,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1쪽.
15. 교리와 성약 104:17.
16. 교리와 성약 38:15.
17. 교리와 성약 6:12.
18.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년, 89쪽.
19. 로마서 13:12~14.
20.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70쪽.
21. 빌립보서 4:7.

육신의 신성

수잔 더블류 태너 자매
본부 청년 회장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의 용모에서 그분의 형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의 형상이 아닌 그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손녀 엘리자베스 클레어 샌드버그를 맞이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제 손녀는 완전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손녀의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고동치는 심장, 그리고 코, 턱, 보조개와 같은 가족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보며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 손녀의 오빠들과 언니도 작고 완전한 어린 동생에게 매료되어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육신을 새로이 입고 그들의 가정으로 온 하늘의 영에게서 거룩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육신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라고 배웠습니다. 가족 선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알고 ...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

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사실 우리는 이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에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욥기 38:7)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육신에 영이 거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이 고통, 질병, 장애 및 유혹에 놓여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원소가 불가분하게 결합될 때만 우리가 진보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고(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충만한 기쁨(교리와 성약 93:33)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아가 열렬하게 이러한 과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충만한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육신에 대한 이런 진리를 아는 특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보이기 위하여 이 지상에 왔습니다. 행복의 대원리에는 육신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악마는 육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The Words of Joseph Smith*, ed. Andrew F. Ehat and Lyndon W. Cook [1980년], 60 쪽)

사탄은 육신에 대해 이와 똑같은 영원한 진

리를 배웠지만, 육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이 귀중한 선물을 확대하거나 오용하도록 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애씁니다. 그는 육신에 대한 거짓말과 속임수로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부정과 단정치 못함, 방종과 중독을 통해 이 훌륭한 육신의 은사를 더럽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경멸하도록 부추기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는 육신을 하나의 단순한 대상으로 여기도록 세상을 유인합니다. 육체에 관한 그토록 많은 사탄의 기만에 직면하여, 저는 오늘 육신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음성을 드높이고 싶습니다. 저는 육신이 감사와 존중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은사를 간증드립니다.

경전에서는 육신이 성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육체를 성전에 비유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요한복음 2:21 참조) 후에 바울은 음탕하고 방탕함으로 가득찬 사악한 도시의 주민들인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진실로 우리의 육신을 성전으로 여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육신을 성전과 같이 영이 거하는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로 여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순결, 단정함 및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극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외설과 학대의 문제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결한 것도 우리 육신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가 성전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육신이라는 성전의 바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여 그 안에 있는 존재의 신성하고 거룩한 본성을 나타내야 합니



다. 우리 내부에 있는 성스러운 영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려 입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관광객들로 북적대는 전세계의 큰 도시들 중 하나를 방문했을 때 우리의 육체가 공공연히 과시되고 전시되는 단순한 대상이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희생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에 큰 슬픔에 느꼈습니다. 단정하고 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얼굴에서 선한 빛을 발하는 청년들이 있는 교실로 들어갔을 때 제가 느낀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자신의 육신을 존중하는 법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는 여덟 명의 아름다운 소녀들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써 그것을 존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럽히지 마십시오. 복장과 외모를 통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음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 옷 입는 방식은 여러분이 진정 어

떠한 사람인가를 그대로 나타냅니다.”(2001년, 14~15쪽)

단정함은 살갓을 노출시키는 복장을 피하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치마의 길이와 목 둘레선의 깊이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단정함이란 말은 “정확히 조절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절도를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언어, 복장 및 품행에서 … 품위와 예의”를 내포합니다.(Daniel H. Ludlow 편, *Encyclopedia of Mormonism*, 제5권, [1992년], 2:932쪽)

절도와 적절함이 우리의 신체적 육구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교리와 성약 59:18)하기 위해 육체적 아름다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들을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20)는 주의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 남편은 자녀들에게 순결의 법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이 성구를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억지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비틀다 [또는 거스르다]’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육신 … 의 사용은 신성하게 성임된 주어진 목적에 … 비틀려[거스러]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기쁨은 올바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John S. Tanner, “The Body is a Blessing”, *Ensign*, 1993년 7월, 10쪽)

육신의 기쁨은 어떤 이들에게 강박 관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또한 외모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최신 유행을 따르기 위해 돈을 지출하거나 운동, 다이어트, 외적인 변모에 있어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앨마서 1:27 참조)

저는 사람들의 지나친 외적인 치장이 걱정스럽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육신을 세상의 형상대로 고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선물로서 받아들이며 우리의 자연적인 속성을 향상키심으로써 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용모에서 그분의 형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의 형상이 아닌 그분의 형상으로 바

꾸어지기를 원하십니다.(앨마서 5:14, 19 참조)

제가 십대였을 때 심한 여드름으로 인해 느꼈던 불안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피부를 잘 가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치료를 받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여러 해 동안 십대들의 사교 모임에서도 자주 초콜릿과 기름기 많은 패스트 푸드를 먹지 않고 지냈지만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렇게 많은 슬픔을 안겨 주는 이 육신을 그렇게 고맙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제 어머니는 제게 더 높은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습이 호감이 가도록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네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해라.”

그 말씀에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리스도와 같은 비이기심의 원리를 제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랑, 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모로나이서 7:45)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거나 비이기적이 될 때, 우리는 외모에서 빛을 발하는 내면의 영의 아름다움을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우리가 육신, 정신 및 영을 존중하기를 배울 때 오는 이러한 종류의 아름다움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면서 고결한 삶을 살고, 자신의 몸을 성스럽고 신성하게 여겨 존중하며, 정신을 연마하고 지식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 영원한 진리로 영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보다, 전능하신 분의 모든 창조물 중에 더 아름답고 무척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Our Responsibility to Our Young Women”, *Ensign*, 1988년 9월호, 11쪽)

진심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 정신



및 영에 대해 선지자가 찬양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를 간구합니다.

회복된 복음은 육신, 정신 및 영 사이에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에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한데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주님의 건강의 율법을 따를 때, 우리는 또한 영에 대해서는 지혜를,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는 지식을 약속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확실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란 집에서 어머니의 민감한 영이 육체적인 탐닉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방식으로 스위트롤 빵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은 크고 달콤하며 맛있어서 배가 불렀습니다. 저의 십대 형제들조차 하나 이상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기도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문은 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짝 찌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소?” 마침내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영을 못 느끼겠어요. 밤금 달콤한 스위트롤 빵을 세 개나 먹었거든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와 비슷하게 육체적인 탐닉으로 우리의 영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혜의 말씀에서 금한 물질은 우리 육신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를 흐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과 육신의 이런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우 감사하고 있는 이러한 성스러

운 육신은 타고난 한계로 고통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인생 내내 질병의 고통을 겪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신이 점차적으로 쇠약해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육신이 고침을 받아 온전해질 날을 열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셨던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었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앨마서 40:23) 되는 부활을 고대합니다. 저는 영과 원소가 불가분하게 결합될 때만 가능한 충만한 기쁨을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93:33 참조)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그분과 같이 될 잠재력을 지닌 그분의 자녀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육신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큰 관심을 갖고 다룹시다. 우리가 합당하다면 언젠가는 저의 것 태어난 손녀와 같이, 영과 불가분하게 결합된 순수하고 깨끗하며 완전한 영화로운 육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대했던 이 은사를 다시 받고 기쁨으로 소리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8:50 참조) 우리가 이 지상 생활 동안 육신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육신을 성결하게 하고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더 높은 곳으로의 여행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2004년 12월 6일, 강력한 지진이 인도네시아의 해면을 강타하여 치명적인 쓰나미를 일으킴으로써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만에 수백만 명의 생활에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파괴되기는 했어도 어떤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쓰나미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켄 부족은 태국과 버마(미얀마)의 해안가 섬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업을 하는 그들의 삶은 바다와 연관이 있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은 바다를 공부해 오면서 그들의 지식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특이한 한 가지는 바닷물이 빠져 나갔을 때 어찌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Laboon”, 즉 사람들을 삼키는 파도가 곧 들이닥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본 그 마을의 노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늙은 어부는 “아이들은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의 딸조차도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늙은 어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¹

앞으로 올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고한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모켄 부족은 운이 좋았

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운이 좋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그 시대의 커다란 재앙,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죄악으로 인하여 유대인 가운데 한 세대가 멸망당한 것같이 대대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당하였나니, 그들 중 아무도 주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고함이 없이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²

아담의 시대 이후로 주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 시대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따라 그분의 메시지가 다르기는 했어도, 일관적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주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죄악에서 떠나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할 때,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비탄과 고난이 자주 뒤따릅니다. 물론경은 거둬서 이런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 책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번성했던 고대 미대륙의 주민들에 관해 읽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점에서 도리어 저주로 자주 탈바꿈했습니다.³

번영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최악의 것을 가져다주는 면이 있습니다. 힐라멘서에서 우리는 큰 손실과 살육을 경험했던 일단의 니파이인들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이는 그들의 심히 큰 부로 인한 그들의 마음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나니, 참으로 이는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주된 자에게 그들의 음식을 주지 아니하며, 벗은 자에게 그들의 옷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겸손한 형제들의 빵을 치며, 거룩한 것을 조롱하며, 예언과 계시의 영을 부인하며”⁴

“그들의 간악함 ... 이 아니었던들” 이런 슬픔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⁵ 그들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유의하여 높은 곳으로 가기만 했었더라도,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오는 자연적 결과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⁶ 성공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게 될 때, 육신의 팔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약하고 믿지 못할 것인지를 곧 알게 됩니다.⁷

예를 들어, 솔로몬은 처음에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번성하였으며 또한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가 계속해서 의롭다면 “그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문을 받은 후에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후에도, 솔로몬은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왕국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 그의 신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⁹

그 신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

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며, 솔로몬은 그의 노역자들의 일부를 감독하도록 그를 승진시켰습니다.¹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여행을 할 때, 한 선지자가 다가와 주님께서 왕국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여로보암이 만일 옳은 일을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¹¹

주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셨고, 그가 계명에 순종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그런 축애를 받은 후에 새로운 왕은 주님께

순종했습니까?

불행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에게 그것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자신의 “신권”을 만들었습니다.¹² 간단히 말해 주님에게서 받은 커다란 축복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했습니다.¹³ 후세에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간악함으로 인해 주님은 여로보암에게서 멀어지셨습니다. 왕의 간악함으로 인해 주님은 왕과 그 가족 모두가 남김 없이 멸망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후손은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¹⁴

솔로몬과 여로보암은 물론경에 자주 예시되는 커다란 비극적 주기의 본보기입니다. 사람들이 의로울 때, 주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십



니다. 번성은 종종 교만으로 이어지고 또 교만은 죄로 이어집니다. 죄는 간악함,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 완악하게 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길의 끝은 비통과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모형은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도시, 국가, 심지어는 세계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주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경시한 결과는 분명하며, 큰 슬픔과 후회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간악함이 결국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하늘의 우레”로 이어지고 “땅의 주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징계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¹⁵

하지만 착하고 선한 많은 사람들 역시 인간 및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초기 성도들은 박해 받고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견디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적인 힘을 발전시켰고, 그 힘은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필요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재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난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경전은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

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악한 도시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경고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강하게 부르짖고 회개했으며 파멸에서 구조되었습니다.¹⁶

예녹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주님은 예녹에게 입을 열어 백성들에게 간악함에서 돌이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경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녹은 두려움을 제쳐 놓고 그가 명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여행하며 큰 음성으로 외치고, 그들의 행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경전은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 회를 냈다고” 전해 줍니다. 그들은 “그 땅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한 “야인”이 그들 사이에 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¹⁷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녹을 미워했으나, 겸손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갔으며, “산 위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했습니다.¹⁸ 그들의 경우에는 번영이 교만과 죄로 이어지는 대신에 동정심과 의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부르셨습니다.]”¹⁹

부활하신 이후에 구주께서는 미대륙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성역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며 그들은 죄를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했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의롭게 생활하여 그들 가운데 다툼이 없었으며 서로 의롭게 대했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기꺼이 나누었으며 심히 번성했습니다.

이 백성에 관해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고 적혀 있습니다.²⁰

이 시대에 우리도 비슷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다가 결국에

는 그 결과를 거두어들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현명하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축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두 가지 선택과 두 가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버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와 가증함의 참담함을 목도하게 되고, 이는 그들을 주의 면전에서 뒤걸음질치게 하여 비참과 끝없는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²¹

그러나 더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²²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지상에 계셨을 때, 구주께서는 가장 커다란 계명을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²³

이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는지를 아는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생활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간구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엽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봉사를 받기보다는 봉사하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진리에 대한 간증 속에서 강해집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들을 보살핍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양육하고, 봉사하고, 지지합니다. 사랑과 친절의 정신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강화시킵니다.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줍니다.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합니다.²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승영에 이르게 하는 여행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여행에는 주님의 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더 높은 곳, 신성한 곳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더 높은 곳으로 갈 때, 우리는 그분의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할 것입니다.

모든 시기에 우리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각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각 결과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구속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우리 시대에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음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고드립니다.”라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든지, 굳건히 서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진진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왕국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읍시다.”²⁵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가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로서 오는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하고, 성신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만 한다면, 평화와 기쁨과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에 올라 더 높은 곳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주

1. “Sea Gypsies See Signs in the Waves”, CBS News, 60 Minutes transcript, 2005년 3월 20일, <http://www.cbsnews.com/stories/2005/03/18/60minutes/main681558.s.html>.
2. 니파이후서 25:9.
3. 힐라멘서 12:2.
4. 힐라멘서 4:12.
5. 힐라멘서 4:11.
6. 힐라멘서 4:13 참조.
7. 요한복음 15:5 참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8. 열왕기상 9:4~5 참조.
9. 열왕기상 11:9~10 참조.
10. 열왕기상 11:28 참조.
11. 열왕기상 11:38.
12. 열왕기상 12:28~30; 13:33 참조.
13. 열왕기상 14:9 참조.
14. 열왕기상 15:29 참조.
15. 교리와 성약 87:6.
16. 요나 3:4~10 참조.
17. 모세서 6:37~38 참조.
18. 모세서 7:17.
19. 모세서 7:18.
20. 제4 니파이 1:16.
21. 모사이아서 3:25.
22. 모사이아서 2:41.
23. 마태복음 22: 37~40.
24. 모사이아서 18:9 참조.
25. 고든 비 힝클리, “그 길에 머무르십시오—신앙을 수호하십시오”,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72쪽.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구주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맺을 때 신성한 빛은 우리의 눈과 얼굴에서
빛납니다.



전 세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의 이해력과 아버지의 영의 도움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저는 이 대화를 열면서 말씀하신 히클리 회장의 예언적인 메시지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히클리 회장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자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풍족히 누리고 계시는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약 17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모임이 최근에 생각났습니다. 훗날 세워진 브

리검 영 대학교 극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 부지의 임대에 관한 모임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과 당시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교회와 대학교를 대표하여 이스라엘에서 전도하지 않기로 이스라엘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기로 한 데 합의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예루살렘 시에 세워져 있는 이 놀라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와 브리검 영 대학교는 전도 금지 약속을 양심적으로 지켰습니다. 임대 계약에 서명을 한 후, 한 친구가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전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던 우리 학생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친구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보였던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친히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그 빛은 너희 눈을 밝혀 주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이는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니라.”¹ 그 빛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은 또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니라”² 주님은 참 빛이며, 영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³ 합니다. 그 빛은 우리의 눈에는 물론이고 우리의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몇 해 전에 유명한 뉴스 논평가인 폴 하비가 교회 학교 교정을 방문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학생들의 얼굴에서 뭐랄까 ... 승고한 확신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눈은 양심과의 수많은 타협으로 인해 조로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수양, 헌신 및 헌납에서 나오는 매우 바람직한 징조를 갖고 있습니다.”⁴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침례로써 교회에 들어오으로써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이 얹혀지고 하나님의 신권을 통해 그들은 성신을 받습니다.⁵ 성신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⁶ 팔리 피 프랫 장로가 그 특성을 말했듯이, 성신의 은사는, “말하자면, ... 마음에는 기쁨을 눈에는 빛을 줍니다.”⁷ 성신은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하신 바로 그 보혜사입니다.⁸ 성신은 합당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인도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을 크게 합니다. 이 은사는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주의가 세상의 많은 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종교 및 종교적 이해에 대한 무관심 또는 배척”으로 정의됩니다.¹⁰ 세속주의는 많은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의 주요 목적은 쾌락과 이기주의입니다.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가야 말했듯이,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¹¹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세속주의에도 불구하고, 영의 것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굶주리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



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¹²

어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지자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 제일 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그 밖의 총관리 역원에게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부 회장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신을 통해 오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실명에서 벗어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¹³

우리의 눈과 얼굴에서 빛을 계속 발하게 하

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빛의 많은 부분은 중요한 몇몇 절대적인 것에 대한 “수양, 헌신 및 헌납”¹⁴에서 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 중 첫번째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우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이라는 점입니다.¹⁵

다른 축복들도 우리 눈에 빛을 더해 줍니다. 그것들은 구주로부터 오는 영의 은사들입니다.¹⁶ 기쁨, 행복, 성취 및 화평은 성신의 권능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은사들입니다.

현세 및 영원에서의 행복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것들은 막대한 것이며 일부

는 우리 신앙에만 있는 독특한 것들입니다. 이 귀중한 믿음들은 우리의 충실함에 근거하며, 중요한 순서로 나열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1.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영화로운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¹⁷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조셉 스미스가 그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¹⁸

2. 성전 축복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함께 인봉합니다. 자녀와 후손은 이 인봉에 의해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교회의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세를 가진 사람의 요청에 따라 가족과 교회 내에서 이 신성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거룩한 경전에는 물론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5. 살아 계신 사도와 선지자들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즉 우리 시대의 끊임없는 계시의 근원인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 모든 회원들은 성신의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후기 성도 교회개 이 시대의 다른 종교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이며 … 다른 모든 차이점은 성신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¹⁹

7. 다음은 여성의 존엄성입니다. 여성은 주님 앞에서 남성과 완전히 평등합니다. 본질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남성과 다릅니다. 이 사실은 때가 찬 시대에 복음의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졌고, 아울러 여성은 모성과 양육의 큰 책임을 부여 받았다는 것도 전해졌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성을 위해 열쇠를 사용한 1842년 이후부터 여성들은 지상에 인류가 시작되면서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²⁰

몇 해 전 간호 실습생인 콘스탄스는 사고로 다리를 다친 한 여성의 도우미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병원에서 다른 사람과 겪은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해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고,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스가 그녀를 처음으로 찾아갔을 때, 부상당한 그 여성은 다짜고짜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그녀는 콘스탄스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다리는 온통 곪아 있었고 일부에서는 살이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콘스탄스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 다음 방문 때 그녀는 거품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픈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든



그 여성은 그것을 다리에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병원에서 받는 보다 중요한 치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콘스탄스는 병원에 입원하면 가능한 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 그 여성은 용기를 내어 병원에 왔습니다. 콘스탄스가 그녀를 찾아가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설득했군요.” 그런 다음 정말로 뜻밖에도 그녀는 콘스탄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지요?” 콘스탄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을 만난 첫날부터, 당신이 내게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당신과 같은 신앙을 지닌 다른 사람에게서 본 빛이 당신의 얼굴에 있었거든요. 난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3개월 후에 곪았던 다리는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나이든 그 여성이 살던 지역의 와드 회원들은 그녀의 집을 개축하고 마당도 손질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녀를 만났고, 얼마 후에 그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²¹ 이 모든 일은 그녀가 간호 실습생의 얼굴에서 빛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브리검 영 회장이 우리가 때때로 외로운 처지에 빠지고 자주 슬픔을 겪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행동하여 … 해야 할 일을 살피고, … 자신의 독립성, 즉 어둠 속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시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²² “빛을 발하는 사람에게서 … 발산되는 …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보다 쉬워집니다.²³

이 교회에서의 봉사는 우리의 눈과 얼굴에 빛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구주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²⁴

교회에서의 봉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름을 영화롭게 하면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앨마는 우리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²⁵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 및 구속주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맺을 때 신성한 빛은 우리의 눈과 얼굴에 옵니다. 이 유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얼굴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승고한 확신”을 나타낼 것입니다.²⁶

저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사업의 신성함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간증은 계시를 통해 옵니다.²⁷ 간증에 대한 이런 계시는 소년 시절에 제 마음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확인시켜주는 계시가 어떤 사건을 통해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제 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인생의 대소사를 처리하도록 해주었던 이런 계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전하는 간증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이 움직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확인하는 경험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해진 말씀이 참되다는 확증을 받는 것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제일회장단 제1보좌

은 정말 당연합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석한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의 구주와 그분의 사도들과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종교대로 생활하는 만국, 대륙 또는 섬의 주민들은 다 똑같은 간증을 하며, 그들의 눈은 영과 하나님으로 인해 빛을 내며, 그들은 같은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고무되며, 그들은 똑같이 느끼며 이해할 것입니다.”²⁸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우리 각자에 대한 그분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8:11.
2. 교리와 성약 93:2.
3. 교리와 성약 84:46.
4. 뉴스 방송, 1967년 12월 8일자, 1쪽.
5.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6. 니파이전서 10:17.
7.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A Voice of Warning*(1978년), 61쪽.
8. 요한복음 14:26 참조.
9. 요한복음 14:26.
10.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판*(2003년), "secularism", 1123쪽.
11. 니파이후서 13:9.
12. 아모스 8:11~12.
13. 베드로전서 2:9.
14. 폴 하비의 뉴스 방송, 1967년 12월 8일 참조.
15. 교리와 성약 14:7 참조.
16. 교리와 성약 46:11 참조.
17. 창세기 1:26~27 참조.
18. 조셉 스미스-역사 1:17~18.
19. *History of the Church*, 4:42.
20.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말씀, “상호부조회 회원들을 위한 말씀”, *Relief Society Magazine*, 1945년 12월호, 717쪽 참조; 또한 상부조회 의사록, 1842년 4월 28일자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40쪽.
21. Constance Polve, “A Battle Won”, *Tambuli*, 1981년 3월호, 29~32 참조; *New Era*, 1980년 4월호, 44~45쪽.
22. *Brigham Young's Office Journal*, 1857년 1월 28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23. 닐 에이 맥스웰, “기운을 내라”, *성도의 빛*, 1983년 1월, 101쪽.
24. 제3니파이 12:16.
25. 엘마서 5:14 참조.
26. 폴 하비 뉴스 방송, 1967년 12월 8일.
27. Brigham Young, *Discourses of Brigham Young*, ed. John A. Widtsoe(1998년), 35쪽 참조.
28. *Discourses of Brigham Young*, 31쪽.



형 제 자매 여러분, 힝클리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및 교회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고든 비트너 힝클리 형제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제임스 에스드라스 파우스트 형제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보이드 케네스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앨런 베드나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와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해임하고, 그분들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에프 버튼 하워드, 에프 델빈 하몬

드, 해롤드 지 힐렘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해임하고 그분들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형제님들의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와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윈 비 크리스텐슨, 아테마 다미아니, 에이치 엘드리지 길레스피, 스티븐 비 오브슨, 네드 비 루에시,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를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하고자 합니다.

이 형제님들의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와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를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하고자 합니다.

이 형제님들의 봉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와 함께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피타 알 바만라브 장로의 후임으로 시오네 엠 피네안가노포 형제를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지역 칠십인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언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장일치로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의 권세가 가정과 교회에서 작용하는 방법에는 많은 유사점들과 몇몇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제

말씀의 주제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입니다.

1.

저의 아버지는 제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미망인이 되신 어머니가 고생하며 키우시던 어린 세 자녀들 중 장남이었습니다. 제가 집사 직분에 성임되었을 때, 어머니는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는 매일 아침 함께 무릎 꿇었을 때 기도할 사람을 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신권이 가정을 감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제가 몰랐던 것이 분명 있었나 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아내를 억압하고 때로는 학대하기도 하는 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난 사자 같았고, 그의 아내는 한 마리 양처럼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올 때면, 그녀는 항상 남편의 몇 발자국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머니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지배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 강한 분이셨기에, 다른 여성이 그런 식으로 학대 받는 것에 화가 나셨습니다. 남성들이 교만 때문에 또는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자신들의 아내를 통제하거나 강압하기 위해 (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그들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볼 때면 저는 항상 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또한 충실하게 생활하는 여성들이 가끔 신권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들은 남편과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독, 또는 선교부 회장과 같은 남

편의 신권 부름에까지 그 동반 관계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혼 등의 이유로 남성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독신으로 사는 여성들은 신권을 남성의 권리남용으로 오해하고, 그 신권 권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가전 제품으로 인해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전력을 사용하지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각 상황들은 신권의 권세를 잘못 이해하거나, 이 권세가 가정과 교회를 주재하게 될 때 신권이 가정과 교회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움직인다는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과 가정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권 권세의 행사에 대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경전에서조차도, 어떤 원리들이 가정에서의 신권 권능 행사에 적용되고 어떤 원리들이 교회에서 적용되는지, 또는 무엇이 양쪽 모두에서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II.

우리 종교의 믿음과 실제 생활에서, 가정과 교회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은 교리와 의식과 신권의 열쇠를 위해 교회에 의존합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제공하고 가족 관계를 영원히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권세와 의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모두에서 여러 프로그램과 활동을 합니다. 서로는 각각 연관되어 있어서 한쪽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른 한쪽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신들의 부모를 볼 때 그들의 가족 관계는 강화됩니다. 가정이 강화되면 교회가 강화됩니다. 둘은 같이 움직입니다. 각자가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며, 한쪽은 다른 한쪽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가족들만의 시간에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은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의 활동들도 성찬식이나 그 밖의 교회의 중요한 모임 스케줄과 상충되게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활동과 가족 활동 모두가 필요합니다. 만일 모든 가정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교회는 활동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이 결혼 가정이거나, 부모가 비회원이거나, 또는 복음의 지도력에 있어서 저활동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메울 교회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미망인이셨던 저의 어머니는 가정

에서 남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들들에게 줄 수 없었던 경험들을 교회 활동이 제공해 준다는 것을 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와드의 훌륭한 남성들을 잘 지켜보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거듭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될 스카우트와 다른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하게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의도하시는 동반자 관계를 아직 갖지 못한 독신

회원들이 많은 교회의 경우, 교회와 교회의 가족들은 독신 성인들의 필요 사항에 또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III.

신권의 권세는 가정과 교회 모두에서 작용합니다. 신권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매들과 신권 여러분”과 같이 짧게 줄여 쓰는 표현들은 잘못된 개념을 가진 표현입니다. 남자는 “신권”이 아닙니다. 신권 모임은 신권을 소유하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권의 축복들, 즉 침례, 성신의 은사, 성전 엔다우먼트, 그리고 영원한 결혼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의 신권의 권세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원리에 따라 작용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우리 가정을 감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신권이 없으셨지만, 홀로 된 부모의 입장에서, 가족의 주재자가 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는 감독님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신권 권세를 전적으로 존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가정을 감리하셨을 뿐, 교회는 그분들이 감리하셨습니다.

IV.

신권의 권세가 가정과 교회에서 작용하는 방법에는 많은 유사점들과 몇몇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열쇠. 신권이 교회와 가정에서 작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는 *교회에서의* 모든 신권의 권세는 적합한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의 지시 하에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가정에서* 감리되는 권세는 그것이 아버지든 홀로 된 어머니든, 그 가정의 제반 사항에서 신권 열쇠를 소유한 누군가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의 권세는 가족 활동의 지도, 가정의 밤과 같은 가족 모임, 가족 기도,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가족 구성원의 상담 및 훈육 등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또한 성인된 아버지가 신권 축복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의 성임과 성별에는 신권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신권 의식의 행사와 기록에 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드신 조직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와드나 정원희, 또는 보조 조직들은 항상 그 부름과 연관된 책임과 권세를 제한하는 지리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관계와 가족간의 책임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디에 또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지속 기간. 교회 부름은 항상 한시적이지만, 가족 관계는 영원합니다.

부름 및 해임. 또 하나의 차이점은 역할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필요한 신권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지도자가 그의 지도 하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름을 주거나 해임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모사이야서 26:34~38; 엘머서 5:56~62 참조) 이와는 반대로, 가족 관계는 너무도 중요하므로 어떤 가정의 가장도 가족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는 인간의 법과 주님의 법에 기초해서 가족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상호부조회 회장을 해임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법에 따른 *이혼의 절차* 없이는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맺은 영원한 인봉은 주님의 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 없이는 끝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반이나 정원희에서 봉사하는 청남은 그 와드의 신권 열쇠에 의해 직분에서 해임될 수는 있지만, 부모는 자녀가 내린 인생에서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간의 관계는 교회에서의 관계보다 더 지속적인 것입니다.

동반자 관계. 가정과 교회에서 신권의 권

세가 작용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가정은 가부장적 체제임에 반해 교회는 성직에 있어서 계층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협력의 개념도 가정과 교회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분리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리아호나*, 2004년 10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결혼을 협동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완전한 협동으로서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영원한 책임에서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협력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바지하는 완전한 협력자가 되십시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년], 315쪽)

김볼 회장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오’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남편들에 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그런 남자가 가진 “신권이 존중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시며, 결혼 생활에서 이런 신권 권세의 남용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316쪽)

세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화와 전통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학대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의 가정에게까지 유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마태복음 5:27~28) 예를 들어, 구주께서는 여성에 대한 사려 깊은 대우를 통해 만연되어 있는 문화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문화여야 합니다.

만일 남성들이 그들의 가정에서의 지도력에 있어서 주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들은 신권

사용과 관련된 주님의 원리에 따라 신권의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세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121:41~42)

신권의 권세가 그런 방법으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행사될 때, 우리는 “완전한 협력”을 달성하게 됩니다. 김볼 회장님은 가족 선언문에서 선포되었듯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그리고 동정심 … 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리아호나, 1996년 1월호)

교회의 부름은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신권의 권세 하에 일할 때 따르고 있는 그 원리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런 원리들은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득과 온화함의 원리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계층적인 조직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신권 권능의 행사를 위한 이와 같은 원리들은 독신 여성, 특히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 여성들보다는 결혼한 기혼 여성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독신 여성들은 결혼을 통한 협력 관계에서의 신권 권세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권 권세에 대해 그분들이 경험한 것은 교회의 계층적인 관계가 전부이므로, 어떤 독신 여성들은 그들이 그와 같은 신권 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드의 남성과 여성 역원들이 함께 정규적으로 둘러앉아 감독의 감리 아래 서로 토론하는 효과적인 와드 평의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V.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들과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학 체계



는 가정에 그 중심을 둡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상 생활의 목적은 가족이라는 견지에서 설명됩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계획은 지상의 가족들을 통해 이행되고, 가장 높은 우리의 소망은 그 가족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구주의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도록 돕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가족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중심의 교회로 알려지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의 책임이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 대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결혼의 목적과 자녀 양육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잃어가는 듯한 이 때에, 후기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저희를 키운 충실한 미망인 어머니는 가족의 영원한 특성에 대해 조금의 혼란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역할을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집에 계시듯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두 분의 성전 결혼의 영원한 속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버지께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가 영

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구주의 약속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가르침을 보여주는 한 경험이 생각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직전에, 저의 감독님은 제게 그분과 와드의 미망인 자매님들에게 성탄 바구니를 전달하는 것을 집사로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함께 집집마다 성탄 인사와 바구니를 전했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을 때, 바구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바구니를 저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제 어머니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독님이 떠나시고, 저는 내리는 눈 속에 서서 왜 이 바구니가 제 어머니 것일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미망인으로 여긴 적이 없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결코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두 살 된 소년에게, 어머니는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는 잠시 멀리 계시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함께 만나고 우리 모두가 완전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그분의 신권 권세와 그분의 속죄와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청녀들에게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의 여성이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여러분의 신분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세월의 짓궂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려다 불현듯 그 날 생일을 맞아 십대가 되는 손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책임감 있고 품위 있는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할 일을 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버린 것입니다.

십대 청소년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저의 증손녀와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디에서나 도덕적이고 신체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유혹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대부분은 옳은 일

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과 격려와 찬사를 전하는 데 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중한 증손녀는 청녀이므로, 저는 교회의 청녀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의 영이 모든 연령대의 남녀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만, 오늘 저는 모리스 슈발리에가 노래했듯이, “어린 소녀들을 보내주신 것을 하늘”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성의 참뜻과 참 신분을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늘 부모의 영의 아들과 딸이며 [신성한] 품성과 [영원한]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¹ 이 으뜸가는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이 성숙한 여성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만큼 여러분의 존엄성, 가치, 특권 및 약속을 대변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여러분의 이름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좌절감을 비롯하여 소망과 꿈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이 될 수 있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성한 유산으로 인해 여러분은 영적인 자매 및 형제 모두와 더불어 그분이 보시기에 완전히 평등한 존재이며, 순종을 통해 그의 영원한 왕국의 합당한 상속자, 즉 “하나님의 상

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²가 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교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근거해 볼 때, 청녀를 비롯한 여성은 창조주의 신성한 계획에서 여성만의 존엄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묘사했듯이, 여러분은 “누구도 감히 더럽힐 수 없는 성스런 책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³

그리스도의 여성이 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여러분의 신분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세상 역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하나님을 변함 없이 신뢰하며 영적인 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함으로써, 그것은 가장 모진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늘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⁴ 선지자 조셉 이 150여 년 전에 한 다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특권대로 생활한다면, 천사들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마다할 수 없습니다.”⁵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말하려 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잠시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몰랐거나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십대 시절을 비극이 아니라 승리로 이끌기를 더 큰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선지자와 사도들의 참뜻은 오로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을 모든 번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보호를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준에 충실하고, 일시적인 풍습과 유행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복장과 외모에 대한 여러분의 도덕적 선택 의지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표준을 선포하고 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수잔 태너 자매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그 중 하나는 단정함입니다.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외모의 단정함은 변함 없는 표준이었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사회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라는 소책자는 청녀들이 배꼽이 드러나는 옷을 비롯해서 너무 꼭 끼거나, 너무 짧거나, 기타 부적절하게 몸을 노출시키는 옷을 입지 말 것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⁶ 부모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소책자를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규제입니다. 청녀 여러분, 친구를 선택하듯 옷을 고르십시오. 즉, 친구와 옷은 여러분을 향상시키고 하나님 면전에서 떳떳한 것이어야 합니다.⁷ 좋은 친구는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의 품격을 손상시키거나,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 모임과 안식일 예배를 위해 청녀들이 갖추어야 할 복장에 대해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상의 복장” 또는 “일요일 복장”이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다시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든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면이나 외모에서 최상의 자아를 보일 것을 우리는 늘 권고 받아 왔습니다. 한낱된 후기

성도 예배당은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옷이나 신발은 굳이 값비싼 필요가 없으며, 실로 값비싼 것이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변으로 가는 차림새로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예의 바르며, 품위 있고 적절한 차림새를 해야 합니다. 행위뿐 아니라 외모에서도, 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배를 드릴 때 온유하고 겸허한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참으로 구주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더 민감한 주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의 몸 맵시와 스타일을 비롯해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려는 욕구를 자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통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윈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때 현재의 자신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십대 소녀들의 한 고문이 말했듯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일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 [자신감을 갖는 비결은 내면의 자아, 즉 [참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참 자아는 “루비보다 더 귀중”⁹합니다. 즉, 모든 청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성인 여성은 선을 실천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제가 성인 여성을 언급한 것은 성인 자매들이야말로 청녀들에게 최고의 모범이요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몸매 걱정이나 한다면, 여러분의 딸이나 장미반원이 여러분과 똑같이 몸매를 걱정하다가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접한다 해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의 훌륭한 교리가 이른 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합당한 신체적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식사와 운동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최적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최적의 몸매란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무자비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 TV 프로그램, 패션 잡



지 및 광고 세례를 여러분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골자는 “외모가 출중하면, 인생은 매력적이고 행복하며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압력은 훗날의 성인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십대 시절에도 밀어닥칩니다. 허구적인 표준(피상적인 표준은 말할 것도 없이)을 따르기 위해 사람의 육신을 혹사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헐리우드의 한 유명 여배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와 청춘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그것을 쫓다 [자신을] 망치는 것을 보면 서글퍼집니다. [어린 나이의 여성들을 포함하여 여러 여성들이 성형을 하고 몸과 얼굴의 여러 부분들을 높였다가 다시 낮추는 것을 봅니다. 제동을 걸 수 없는 위험한 비탈길 같습니다. [중간에 내릴 수도 없습니다.] ... 사회는 정말로 정신 나간 일을 여성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¹⁰

이런 현상은 자아와 신체적 외양에 대한 집착의 정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광기라 할 수 있을 만큼 도를 넘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파괴이며 현대 세계에서 청녀를 비롯한 여성들이 직면하는 불행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성인들이 집어넣고 잘라내고 이식하는 등 성형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성형하며 외모 단장에만 몰두한다면, 그와 같은 외모의 압박과 걱정들이 분명 자녀에게로 유입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문제는 물론경에서 일컫는 “헛된 상상”¹¹으로 되어버립니다. 세속의 사회

에서 허영과 상상의 물결이 거침없이 몰아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중 매체에 묘사된 아름다움과 경쟁하기 위해 멋진 화장품 세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와도, 리하이가 시현에서 보았듯이,¹²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매력과 유행을 따르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신앙을 달리하는 한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 모두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적었는데, 그 중 어느 것도 사이즈나 맵시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건강, 온화한 품성, 학문에 대한 사랑, 차분하고 한결같은 성격과 성실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에 주님의 감미롭고 온유한 영을 더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시대와 나이를 초월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위한 모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그 축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연에 매체가 “리얼리티 쇼”에 대한 광란에 가까운 인기에 관해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쇼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대의 청녀들과 이 복음의 실제성을 마음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 아들이 실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름을 주신 여러분 나이 또래의 어린 청남이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신성한 두 분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두 분의 영원한 음성을 들었으며 두 분의 영화로운 몸을 보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¹³ 그 경험은 구주께서 사도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¹⁴

제 손녀와 이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신을 지닌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의 구주와 구속주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왕국이며, 참된 선지자들이 과거에 이 백성을 이끌었듯이, 참된 선지자인 고든 비클리 회장이 현재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실제성이 여러분을 세상적인 걱정과 십대의 고민 너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흐나*, 2004 10월호, 49쪽 참조.
2. 로마서 8:17.
3. 제임스 이 탈매지, “The Eternity of Sex”, *Young Woman's Journal*, 1914년 10월호, 602쪽.
4. 제이 르우벤 클라크, Conference Report, 1940년 4월, for a lengthy tribute to women of the Church 참조.
5. *History of the Church*, 4:605.
6.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01), 15쪽.
7.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8. Julia DeVillers, *Teen People*, 2005년 9월, 104쪽.
9. 잠언 3:15.
10. Halle Berry, “Halle Slams ‘Insane’ Plastic Surgery”, *This Is London*, 2004년 8월 2일, www.thisislondon.com/showbiz/articles/12312096?source=PA에서 인용.
11. 니파이후서 12:18.
12. 니파이전서 8:27 참조. Douglas Bassett, “Faces of Worldly Pride in the Book of Mormon”, *Ensign*, 2000년 10월호, 51쪽, for an excellent discussion of this issue 참조.
13. 조셉 스미스-역사 1:24-25.
14. 요한 복음 20:27.

참된 행복: 의식적인 결정

벤자민 데이 오오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행복은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쁜 상태는 의로운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은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대로 산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영감적인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말하는 “훌륭한 인생”은 우리의 행동 방식, 선택하여 사용하는 단어, 심지어는 선택하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여정에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는 권유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복음의 목적이며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하는 속죄의 목적입니다.

힐라맨서에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무릇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알 수 있는 나라.

“실로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아노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자들에게라.

“참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음을 아노니, 그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 그리스도의 사람을 협착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여, ... 그리고 그들의 영혼, 곧 그들의 불멸의 영혼을 하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이르게 하여 ...”¹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원한 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해지도록 인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끝까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행복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조차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순종과 용기의 결과로 옵니다. 선지자 리하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은 그를 조롱했으며,

다른 고대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선지자 리하이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나 ... 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²

제가 북부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발데스 가족의 침례식이 있는 지 며칠 후에, 발데스 형제님으로부터 그의 집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어 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담배 공장에서 일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지혜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지금, 비록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자신이 계속해서 이 담배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채 며칠이 되지 않아 발데스 형제님은 다시 전화를 걸어 한번 들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기에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예전의 직장을 그만두던 바로 그 날, 다른 회사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제의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험 가운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은 온화한 자비를 통해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는 그 자비로 인해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행복은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쁜 상태는 의로운 생활에서 비롯됩니다.³

몇 년 전,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아내 에블리아는 신앙심이 강한 한 가족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행복에 찬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어머니와 어린 두 자녀는 그날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초라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전년도에 그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어 준 헌신적인 선교사, 크루즈 장로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



라운 일은 복음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준 큰 행복을 깨닫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그에게 달려가 안겼으며, 크루즈 장로의 뺨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위해 준비되고 예비된 행복을 찾았습니다.⁴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⁵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행으로 고난을 겪은 후, 그리고 30년간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한 후에,⁶ 몰몬경에 나오는 불굴의 선지자 니파이는 그 백성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⁷

선지자요, 왕이었던 베냐민은 몰몬경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라.]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⁸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대로 산다면, 인생은 훌륭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고, 소망하고, 결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행복을 증가시키고, 이 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적인 확신을 증가시켜 주는 단순한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⁹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교회와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몰몬경을 출현케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통해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인도 하십니다.

저의 사랑과 겸손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힐라맨서 3:27~30.
2. 니파이전서 1:20.
3. 경전 안내서, 기쁨.
4. 니파이후서 9:43.
5.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240쪽, 존재의 목적은 행복임.
6. 니파이후서 5:10.
7. 니파이후서 5:27.
8. 모사이아서 2:41 베냐민 왕의 설교.
9. 마태복음 11:28.

몰몬경,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로 우리에게 몰몬경을 주셨습니다.



저는 36년 전 멕시코 동남부에 있는 선교부에서 봉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테이크도 없었고 선교부 내 가장 큰 도시들에도 단지 두 개의 지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사람들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네알티칸 지부에 있던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가톨릭 성당과 후기 성도 집회소를 제외하고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은 어도비 벽돌(주: 햇볕에 말려서 굳힌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저는 어도비 벽돌로 된 지부 회장의 작은 집 안에서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집안은 그냥 흩바닥이었으며, 창문에는 유리도 없었고, 입구에는 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메사 성전에 갈 버스표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헌제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았습니다. 지부 회원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북 멕시코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기 위해 한 달 전에 멕시코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의 멕시코는 36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알티칸은 변형하는 시몬의 스테이크 센터입니다. 멕시코에는 200개의 스테이크와 백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많은 스테이크와

와드 지도자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인 수천 명의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리하이가 보았고 니파이가 해석했던 시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그날에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속한다는 것과 그들이 주의 성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이다.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 알게 되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바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와 그의 교리의 요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나아와 구원 받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리이다.”¹

참으로 멕시코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후손입니다. 몰몬경은 그들의 유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흰 옷을 입고 하늘에서 하강하셨으며 이곳 미대륙에서 그들 조상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²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을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³

구주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똑같은 권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⁴ 예수 그리스도는 열국을 향해 든 기로서 우리가 세상에 치켜 들 빛입니다. 우리는 그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제공합니다.

헝클리 회장님께서선지자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몰몬경을 다시 한번 읽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⁵ 물문경을 번역한 조셉 스미스에 대한 존경을 나타냅니다.

고대 선지자 모로니이는 조셉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⁶고 했습니다.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이름은 온 세상, 심지어는 멕시코의 작은 마을인 네알티칸에까지 알려져 존경 받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 몬테레이에 있는 한 회원은 어떻게 물문경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십대인 예수스 산토스는 먼지가 날리는 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곤 했던 후기 성도 선교사들을 가끔씩 보았으며, 그들의 복장과 태도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교회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친구에게 전해 들길 그들이 접촉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교회 건물로 가서 철재 울타리 너머 선교사들과 청소년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건전해 보였으며 그도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턱을 울타리에 기대어 그들이 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초대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스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젊었으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멕시코 몬테레이로 이사했습니다. 9년 후 그가 마을 건너편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가 있을 때 선교사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 선교사들을 보내고 싶어했습니다. 예수스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선교사들의 말을 잠시만 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동의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물문경에 대해, 리하이의 가족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미대륙으로 여행했으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대륙에 있는 리하이의 후손들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스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특히 그리스도가 미대륙에 나타나신 모습을 그린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자신

의 주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그의 가족을 가정의 밤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물문경을 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평생 다니고 싶어했던 교회야.”

물문경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후 12년만에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그에게 그 말을 걸기만 했었다면, 교회 청소년들이 울타리에 기대어 바라보는 외로운 십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만 했었다면, 몬테레이에서 선교사들이 그의 집에 찾아왔었다면, 그의 삶은 그 12년 동안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웃에 사는 회원들은 그를 가정의 밤에 초대했으며 위대한 개종의 힘을 갖고 있는 책, 물문경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예수스 산토스 형제는 멕시코 몬테레이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산토스 형제의 다섯 자녀들은 모두 성전에서 인봉 받았습니다. 그의 자녀와 16명의 손자손녀들

은 모두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도구로 우리에게 물몬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미대륙에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네 자손이 이러한 일들을 알기 시작할 때에—그것이 저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백성들에게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들이 알리리다.”⁷

물몬경은 라틴 아메리카와 모든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후기 시대에 그 책이 출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흠어진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저는 마음의 눈으로 아직도 집회소 울타리 너머로 바라보는 열여덟 살의 초라한 소년, 헤수스 산토스를 봅니다. 그를 볼 수 있습니까? 그를,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까? 물몬경을 읽으라는 권고에 응할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을 초대하시겠습니까?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임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은 온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집합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교회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요 왕국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15:14.
2. 제3니파이 11:10~11.
3. 제3니파이 18:24.
4. 교리와 성약 115:5.
5. 물몬경 소개.
6. 조셉 스미스—역사 1:33.
7. 제3니파이 21:7.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기회가 있으시다면 ...”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 잃은 사람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래 전, 우리 자녀들이 여섯 살, 네 살, 그리고 두 살이었을 때 아내와 저는 그들에게 깜짝 퀴즈를 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함께 물몬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가서 사냥을 하는 대신 밤이 될 때까지 기도를 드린 사람은 누구였지?” 하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아내는 아이들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이, 이 자로 시작하는데 ...”

그러자 구석에서 놀던 두 살짜리가 “노스!” 라고 외쳤습니다. 방구석에서 놀고 있던, 우리가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정답을 맞춘 겁니다! 이노스는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갔으나 영혼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가 숲에서 길을 잃었다는 말은 기록에 없지만, 이노스의 이야기는 그가 자신을 찾는 상태로 숲에서 나왔고, 그의 형제들의 복지에 관해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약전서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 잃은 사람을 찾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하셨습니다.(누가복음 15:4~5)

아담의 타락 이후, 온 인류는 길을 잃고 타락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처럼, 저도 두 명의 충실한 선교사와 더불어 자신을 찾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91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 얼 앤더와 로버트 에이치 소렌슨 장로는 제 조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세계 근면과 정직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가르쳤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세대라는 짧은 시간 이 지나자 교회에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복음의 지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아 주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저를 초등 회에 초대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대한 저의 첫 경험은 초등학교 친구들을 위주로 이루어졌 습니다.

소년 시절, 열두 번째 생일이 되기 몇 달 전 어느 토요일 오후에 우리집 문을 두드리는 소 리가 들렸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 즉 흰 셔츠 에 넥타이를 맨 집사들이 제가 처음 참석하는 신권 모임에 저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의 지도자는 우리가 템플 스퀘어에 있는 태 버내클을 향해 언덕길을 내려 가는 동안 제 옆 에서 걸었습니다. 그것이 4월 연차 대회 신권 모임이었습니다.

로이드 베넷은 저의 스카우트 소년단장이었 습니다. 그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종종 저를 차에 태워 보이 스카우트 사무실로 가서 필요 한 배지나 물건들을 사곤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로이드 베 넷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이 훌륭한 친구들과 지도자들은 최근 엠 러 셀 벨라드 장로님의 “한 명을 더 찾으라”(“한

사람만 더”,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1쪽) 는 권고를 이해했으며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 지 알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이노스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열 여덟 살의 나이에, 캘리포니아 주 포트 오드에 있는 군대 막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막사의 불이 꺼진 후, 저는 딱딱한 바닥에 이노스처럼 무릎을 꿇고, 제 자신을 찾 았습니다.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했 습니다. 제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 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도록 도와 준 많은 분 들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구주이신 그리스 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 세상에 오사,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범법을 짚어지 시리니, 이들이 영생을 얻을 자들이요, 그 외 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엘마서 11:40)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시대에 복음 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음과 같 이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못 나 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사야 49:22)

형제 자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돌 볼 때,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 다. 여러분도 자신이 어떻게 품에 안기고 어깨 에 메어져 안전한 곳으로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결정은 그리스도를 위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려 했다는 것을 개인 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니파이처럼 “우 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글을 쓰고 설득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니파이후서 25:23) 저는 맥스웰 장로님이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려 노력했던 사 람들에게, 그리고 길 잃은 한 사람에게도 한 번 이상은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이든 청년 또는 청년 지 도자이든, 소년단장이든 가정 복음 교사 또는 가정 방문 교사이든, 또는 친구이든,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찾아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에 얼마 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봉사할 수 있는 특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특 권이 있습니다. 합당성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 파할 준비를 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나가서 봉 사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왕국 건설 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연로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캐나다에서 훌륭하고 헌신적인 장로, 자매 선교사 및 연로한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은 주님의 힘 안에서 전세계에 있는 헌신적인 선교사들처

럼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애썼으며,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에, 참으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모사이야서 27:36)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변화는 심지어 그들에게 영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행동하고, 실천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권유하거나 처음으로 회복된 복음을 들어 보라는 권유를 하겠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서 그 느낌대로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내일 모임에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초대하시겠습니까? 신앙과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즉 소망을 갖고), 우리는 반드시 영이 우리에게 “말할 바를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교성 100:6)시리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호주에서 봉사하라는 이 부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아내와 선교사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제 아홉 자녀의 사랑과 지지에 대해 저의 영원한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충만한 복음이 세상에 회복되었으며,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며 구속주라는 것을 압니다. 길 잃은 우리를 들쳐 업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목자의 사랑스런 팔이며 그의 어깨입니다. 이노스처럼 저도 겸손하게,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세상의 것 이상으로 이를 기뻐하였노라.”고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 리 중 대부분이 폭풍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 쓰나미, 전쟁 및 가뭄의 피해를 입은 여자, 남자,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의 고통을 보고 느끼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선 사람들은 서둘러서 그러한 재난에 직면할 경우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서 비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각자가 치를 시험에 관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으며 잘 보관

해 둘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최근까지 준비되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의 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하게 키움으로써,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인생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셨던 목적의 일부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 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¹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폭풍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영광중에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



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필멸의 육신을 얻고 시험 받아야 했습니다. 필멸의 육신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필멸의 육신으로 인해 오는 욕망과 연약함을 통해 유혹을 겪게 됩니다. 간교하고 강력한 악의 세력은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에 신앙을 행사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생의 폭풍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주와 구속주로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쁜 소식에 다 기뻐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은,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을 통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고, 너희는 자유로워 너희 스스로 행할 수 있을—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한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합되게 말라. 또 너희가 하나님께 화합하게 된 후에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키사 너희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접되게 하시고, 너희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하여, 그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²

영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속죄를 통해 유혹을 물리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육신에 속한 욕망에 호소하고 선을 나쁘다 하며 죄란 없다고 하는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폭풍은 이미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폭풍이 구주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점점 더 거세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꾸준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좀더 재빠르고, 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인내하겠다는 결심을 지금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영적인 준비의 열쇠가 됩니다. 뒤로 미루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의 영원한 적입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실천하고 꾸준히 순종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죄를 멀리하여 그 무서운 결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명을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 이미 주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 여러분은 고든 비 힐클리 회장님으로부터 금년 말까지 물문경을 읽을 경우 다음과 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저 없이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르면, 여러분이 과거에 물문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주님의 영이 더욱 충만해지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생기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³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신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다. 그러나 그 영감에 찬 권고에 순종하는 일을 늦출 경우 매일 읽어야 할 쪽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읽는 일을 중단하면, 실패할 확률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결심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관해 약속된 축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것보다 앞서 몰몬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12월이 끝날 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을 즉시 시작하는 것과 꾸준히 순종하는 것에 관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몰몬경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신이 제게 알게 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책에는 그러한 간구에 대해 응답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⁴

저는 몰몬경을 읽고 명상하면서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행할 것입니다. 몰몬경 읽기를 마칠

12월에 저는 순종을 통해 신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신앙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전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할 때 무엇을 얻게 되는 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에게 더 큰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는 그에 대해 더 잘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월 1일 이후에 무엇을 할 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순종함으로써 커다란 신앙의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지. 이제 폭풍 속에서 시험 당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그것들을 저장해 놓을 것이다.” 훌륭한 신앙은 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아 계신 선지자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시 몰몬경으로 돌아가 더 깊이 그리고 자주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의 권고와 약속

이 제게 더 큰 신앙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하려는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 항상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보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이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올 때 즉시 그것을 행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 그분께서 그러한 간구에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순종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신앙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가르침을 위해 거듭 몰몬경으로 돌아가 신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폭풍이 올 지라도 우리는 가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러한 순종의 기도에 대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속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을 때,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을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확고한 순종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찍이 그리고 꾸준히 신앙을 행사하는 우리는 십일조를 바치라는 계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연례 십일조 결산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지출을 조정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시 그리고 미루지 않고 십일조를 바치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고 십일조를 바치는데 있어서 꾸준할 경우, 십일조 결산 때는 물론, 일년 내내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되고 꾸준히 순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이 강화되고,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물을 바치는 것 이상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⁵ 우리가 지금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꾸준히 행하겠다고 결심할 경우 그러한 보호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신앙을 행사하고 꾸준히 순종하겠다고 일찍 결심하는 데서 얻는 같은 힘도 유혹을 물리치고 용서를 구하는 신앙을 얻는데도 적용됩니다. 유혹을 물리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초기입니다.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들은 우리 정신에 여러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약한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그것들을 일찍 몰아내도록 신앙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 결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사



탄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속하기 전에 회개하겠다는 선택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은 나중보다는 지금이 항상 좋습니다.

부친이 별세하기 직전에, 저는 그분께 아직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할 시간이 아닌지 여쭙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목소리에서 그분이 죽음과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마음을 알아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애야, 나는 평생도록 회개해 왔단다.”

신앙을 행사하고 꾸준히 순종하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과 확신을 낳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⁶는 주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기정 사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

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매일의 선택에서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신앙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빨리 행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게 될 큰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신앙을 키우기 위해 작은 순종의 시험을 잘 통과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과, 그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물론경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신을 통해 알 수 있음을 압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또 어떤 시련이 닥치든, 저는 그분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간증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조용한 시간이든 폭풍 가운데 서든, 항상 주님께 빨리 순종하도록 선택할 것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강화될 것이며, 우리는 이 생에서 평안을 얻고, 우리와 가족이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3:24~25.
2. 니파이후서 10:23~25.
3.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4. 니파이후서 32:3.
5. 교리와 성약 64:23 참조.
6. 교리와 성약 38:30.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는 것임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도처의 교회 회원들이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두고 각 가족들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형제들과 저는 최근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큰 피해를 입고 급히 대피해 온 피해자들이 머물면서 자신들의 삶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주의 몇몇 난민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상황은 여러 면에서 비참하고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으나,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어디 있죠?” “이들을 찾을 수 없어요.” “누이를 잃었어요.” 이들은 굶주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을 잃고 음식, 응급 처치 및 모든 종류

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그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기나 변화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족, 즉 부모와 자녀 및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위험과 위급함과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떠나 영의 세계로 갈 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찾을 첫 번째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들 및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가족을 확립하는 것”이 지상 생활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 지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대가족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동반자를 찾고 가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는 관계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는 제일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희가 1995년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

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엔사인, 1995년 11월호, 102쪽)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올리는 외침이며, 사회의 기본 단위를 침식함으로써 가치관을 저하시키고 우선 순위를 잘못 선택하게 하여 사회를 파괴시키려 위협하는 세상에 대한 단호한 경고입니다.

그 선언문은 선지자들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문서입니다. 그것은 지난 십 년 동안 가족을 위협하고 약화시켜 온 많은 것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결혼 본래의 전통과 부모-자녀 관계에 그 어느 때 보다 더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가족이 그대로 존속 되길 바랄 경우 가족이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와 강조 사항에 초점을 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선언문의 명백하고 간결한 언어는 가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조차도 일치되지 않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사회의 관념과는 대조적으로 단호하게 말하고 있으며, 부모와 가족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고 돕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
-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
-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은 권리가 있다.”
- “...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다.”

선언문의 마지막에는 가족이 “사회적 기본 단위”라는 단순한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의 회원들과 도처에 있는 헌신적인 부모, 조부모 및 모든 친척들을 포함



한 대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위대한 선언문을 고수하고 그것을 모로나이 장군의 “자유 의 가치”와 같은 것발로 삼아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고자 결심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의 구성원이므로, 그 선언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일반적으로 가족을 가장 높은 순위로 생각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만연하고 있는 대중 문화는 가족을 무시하거나 잘못 정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의 변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큰 규모의 많은 국내 및 국제 기관들은 가족들을 위해 일하도록 창설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설립 목적인 바로 그 가족들을 밀어내고 심지어 파괴하고 있다.

- “관용”이라는 명목 하에 책임, 자녀, 결과,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사는 어떤 개인이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가족”에 대한 정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 만연되고 있는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 가족, 특히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자신들이 더욱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줄 성스러운 특권이라기보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될 짐이며 재정적인 연자땀 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전세계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래의 가족에 속하는 중요성과 기쁨 모두를 예전처럼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륙의 가족들과 부모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돌아온 저의 친구들은 부모들의 소망과 염려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비슷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인도의 한 힌두교인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라곤 저의 자녀들에게 미디어와 또래 집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불교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와 신앙을 지닌 모든 부모들도 이 교회의 부모들이 우리와 똑같이 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 경제, 문화 및 정부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세상은 선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성도들이 알고 있듯이 가족은 해의 왕국의 기본 단위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의 믿음은 회복된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현세와 내세에서의 가족의 신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음을 알고 있으며, 가족 관계는 죽음을 넘어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

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이 추구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족 체계, 가치관, 교리 및 영원한 관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심적 관점을 바탕으로 후기 성도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로 한 아버지 아래서 영의 가족들인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족 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우리가 개인과 가족을 확립하도록 돕는 중대한 “발판”이 되는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67년 10월, 107쪽 참조)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하늘의 왕국에서 가족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와 기쁨의 원천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반차가 될 것입니다. 종종 봐 왔듯이 우리는 언젠가 교회 부름에서 해임되겠지만 우리가 합당하다면 우리의 가족 관계에서는 결코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떠나 참다운 행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의 영향력을 신성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해 온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종종 가정 생활을 다른 생활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정이란 제약을 의미하며 최상의 자유란 가정을 떠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 믿으려 듭니다. 봉사하지 않고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가정을 성스러운 곳으로 전환시켜 가족 생활을 증진하고 보존하려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을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382쪽].

이제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강화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거세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 가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매일 가족 기도를 하고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이 두 가지는 부모와 가장으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과 힘을 줄 주님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교회의 교과 과정과 잡지에는 가정의 밤을 위한 좋은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느낌을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족 간중 모임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곳에서 가지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2. 가정에서 복음과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십시오. 경전을 함께 읽는 것에 대한 사랑을 키우십시오. 너무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 대한 이 책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리, 보조 조직 및 신권 정원회는 부모의 복음 교육에 대해 보충적인 역할을 하며 주요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복음 주제나 가족 가치관을 골라 그것을 좋은 기회에 가르치고 싶어할지도 모릅니다. 현명해지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너무 많은 가정 밖의 활동에 몰두하고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약속된 인도를 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느낄 수 없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 자녀들에게 또래 집단과 함께 또는,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정체성을 주는 의미 있는 가족 유대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생일, 휴일, 저녁 식사 시간, 일요일을 위한 가족 전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 정책과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특정한 집안일이나 가족 임무를 갖게 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비례해서 칭찬이나 다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가족 관리 체제를 가지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채를 피하며 돈을 벌고, 저축하며,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현재적 자립과 영적 자립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십시오.

가족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널리 행해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노력만

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가족은 직계, 방계를 포함한 대가족의 모든 친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공공 기관의 도움 및 원조를 몹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숙모와 삼촌, 조부모와 사촌들은 자녀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가족 구성원의 사랑과 격려의 표현은 종종 매우 중요한 때에 올바른 영향력과 도움을 주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계속해서 강한 가족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발판”처럼) 가장 선두에 선 기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의 복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가족의 필요 사항에 우선 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도처의 교회 회원들이 가족을 우선 순위에 두고 각 가족들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공공 기관들이 자신들을 점검해 보고 가족을 해치는 일을 적게 하며 그들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미디어 운영자에게 전통적인 가족

신권 모임
2005년 10월 1일

선교사가 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선교 사업은 우리의 영적인 신원과 유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의식들을 합당한 권세에 의해 받도록 권유함으로써 이 지상의 나라들과 가족들을 축복할 성스러운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일부는 지금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선교사로서 지금 봉사하듯이 앞으로도 봉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매일 선교사입니다. 나이와 경험과 삶에서의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선

교사로서의 우리의 봉사는 분명 젊은 시절이나 노후에 하게 되는 전임 선교사의 짧은 기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는 우리가 받아들인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서 오는 고유한 임무입니다. 선교 사업은 본질적으로 신권의 책임이며, 신권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서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 받은 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선교사이며, 또한 항상 그럴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주로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에 의해 정의됩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신권의 의무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권 모임에서의 제 특별한 목적은 선교사의 부름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청남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원리들은 간단하면서도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 원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향상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성신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세계 각지의 교회 청소년들과 모임을 하면서, 저는 종종 참석하신 청소년들에게 질문하도록 권유합니다. 제가 청남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전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가치관을 장려하고 가족을 향상시키며 지지하는 것들을 더 많이 제공하고 부모님과 물질주의를 더 적게 보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든 입법 및 정책을 제정할 때 자녀들과 부모들의 필요 사항을 우선 순위에 두고 가족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제공업자들과 웹사이트 제작자들에게 그것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에 관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폭력, 외설물, 부도덕 및 저속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는 양심적인 목표들을 채택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교육 단체들이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가치관과 가족 및 부모의 역할에 관련된 기술을 가르쳐 자녀들이 다가올 세대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을 지원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이웃들과 다른 신앙을 지닌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가족들을 돕기 위해 교회의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때 우리의 지역 사회와 이웃은 더 안전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큰 단위 조직들이 가장 작고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가족에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가족을 도울 때 우리 자신을 돕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기치처럼 들어올릴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가르칠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창조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와 내세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허리케인이나 다른 위기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뿐 아니라 주님의 행복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며, 우리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질문에는 마땅히 진지한 답변이 주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남 형제 여러분, 선교사의 부름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이전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대답에서 *나가는 것보다 되는 것을 강조했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교회 용어에서, 우리는 자주 교회에 *간다*, 성전에 *간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히 가는데 중점을 둔 이 통상적인 표현이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거나 참석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성약과 주님의 집의 의식들을 우리의 마음에 지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되어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일생 동안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 청남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서 선교사가 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며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청남 개개인에게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소망은 여러분이 단지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훨씬 전에, 여러분이 선교사 부름을 받기 훨씬 전에, 스테이크 회장에게서 성별 받기 훨씬 전에,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기 훨씬 전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의 원리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기보다 무엇인가가 되라는 과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사가 주어진 이유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량의 충만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에는 그저 지식을 얻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참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 *개종되도록*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제도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도록* 가르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되도록* 권유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통과 의례를 치르듯 몸짓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요구되는 계명과 의식과 성약들은 하늘의 어떤 예금 계좌에 적립해야 할 예금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획입니다”(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형제 여러분,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는 과제는 선교 사업의 준비에 정확하고도 완전히 적용됩니다. 물론 선교사가 되는 과정은 흰색 와



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학교에 가는 것이나, 또는 취침 및 기상에서 선교사 지침을 따르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사고 방식을 지지하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교성 4:3 참조)을 증대시킬 수 있고,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교사들이 읽는 것을 읽고,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신을 물려가게 하는 세상적인 영향력을 떨리할 수 있고,

영적인 속삭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말씀, 교훈에 교훈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여러분은 차차 여러분이 되고자 원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 훈련원의 정문을 들어서서 날 갑자기 마술처럼 잘 준비되고 순종적인 선교사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 전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쌓아온 모습이 곧 선교사 훈련원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선교사

훈련원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선교사가 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발전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면,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하루 시간표는 여러 면에서 새롭고 도전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될 준비를 잘 갖춘 청남은 선교 사업의 엄격한 기본 사항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해 부담 또는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의 주요 요소는 표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는 아들이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들을 돕고 모든 청남이 선교 사업 이전에 선교사가 되는 것을 돕는 책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부모들과 모든 교회 회원들을 위한 표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되는 것의 원리(principle of becoming)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아들이나 여러분이 봉사하는 청남들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맞는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준비란 단지 열아홉이나 스물, 또는 스물한 살의 청년으로서의 선교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동안의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항상 선교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이전에, 그리고 선교 사업 임지에서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진실로 발전한다면, 전임 선교사로서 명예롭게 귀환하는 그날이 올 때 여러분은 수고한 임지를 떠나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돌아오겠지만 결코 선교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언제 어디서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란 신권 소유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성약의 상속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Bible Dictionary, "Seed of Abraham", 771쪽 참조)이라 부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과 의식들에 순종함으로써만 옵니다. 형제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과정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를 구하는 훌륭한 선지자였고 그의 소중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굳건함과 순종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충실한 자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세기 22:16~18)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후손을 약속 받았고, 또한 그 후손을 통해 지상의 나라들이 축복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지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축복을 받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로 아브라함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가 네게 한량 없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크게 할 것인즉, 너는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에게 복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이 성역과 신권을 지니고 모든 나라에게 전하리라.

또 내가 네 이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하리라.(아브라함서 2:9~10)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충실한 상속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과 신권의 권세를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역과 신권을 지니고 온 나라에 전하리라"는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의식들을 합당한 신권의 권세에 의해 받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후일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축복들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혈통으로든 입양으로든, 오늘 제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남성과 소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정당한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리고 언제나 지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을 축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리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식을 받도록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시간제 신권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잠시 동안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이 아니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도 아닙니다. 올바르게 말해, 선교 사업은 우리의 영적인 신원과 유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예입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성약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현세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지금 이곳 지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 주며,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이나 운동을 즐기거나, 또는 기계를 다루는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며, 훗날 무역이나 전문직이나 예술 분야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활동이나 직업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선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 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백함 받은 자가 되리라."(교리와 성약 84:33~34)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청남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스스로가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훨씬 전에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정과 가족에게로 돌아온 후에도, 여러분 귀환 선교사들은 항상 선교사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나 지금껏 가져 본 적 없는 큰 간증과 영적인 힘으로 지상의 나라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영광스런 사업에서, 신권 소유자로서의 우리가 오늘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대표자임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인간의 신성한 진리 탐구

찰스 디디에이 장로
칠십인 회장단

신성한 진리를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주님의 방식에 따르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적 토대를 세우고 현재와 내세에서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녁 이 많은 회중 가운데는 세 명의 특별한 손님, 예전에 저와 함께 학교에 다녔던 친한 옛 친구들 셋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 50주년을 기념하고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의 조국 벨기에로부터 먼 여행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신권 소유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바칩니다. 이 메시지는 신성한 진리를 위한 인간의 추구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진리를 찾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이 확산된 이 세상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너는 의로 설 것이라.”

(제3니파이 22:14)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인도하는 개인적인 영적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음성과 그의 종들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교성 1:14)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들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용하는 것은 인생의 영원한 도전 과제가 됩니다.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성한 진리나 영적인 지식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경전에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라고 불리며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알게 하거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알게 하”(교성 93:19)도록 주어집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계시를 갖고서만 그분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계시”, 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5쪽) “계시 없이는 모든 것이 추측과, 어둠과 혼란일 것입니다.”(Bible Dictionary, 762쪽)

둘째, 그분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계시 또는 신성한 진리는 주님의 뜻에 의해 그분의 종들에게 다른 방법들로 다른 시대에 주어지며 그것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아모서 3:7)

셋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들이 인정 받고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 시대를 위한 참된 것이라는 개인적인 영적 확인을 얻으라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주님은 인생의 도전과 악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신성한 진리를 알려 주시는 방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토대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자 할 경우 이 방식을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경전을 상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간구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될 이러한 절차에 대한 개인적인 영적 확신은 평생 기도로서 간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신성한 진리에 대해 주님과 교통하거나 듣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단어, 즉, 계시, 계명, 축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과 그 종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평생의 과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아니하는 한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모사이야서 3:19) 영적인 준비는 개인적인 영적 감명을 받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 주님의 뜻, 즉 그분의 계

명에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21)

이제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최근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이해를 구해 봅시다. 제일회장단은 최근 모든 교회의 회원에게 금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을 읽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도전 과제는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더욱 충만히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몰몬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의 실재에 대해 더 강한 간증을 키워야 할까요?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대해, 즉 그분의 신성한 본질에 관해서뿐 아니라 그분의 속죄와 부활, 그분의 교리, 특히 그분과 관련된 계명에 관해서까지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그리스도가 된 자, 대중적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힌 침묵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조들은 잘못된 종교적 행동을 가져옵니다.

개인적인 영적 토대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와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의 계시가 수록되어 있는 경전에 관해 성신에 의해 주어지는 개인적인 영적 확인 위에 세워질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특히,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실재는 그분의 복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요, 선지자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써 다시 한번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왕국이라는”(몰몬경, 소개)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신의 권능에 의한 이러한 영적 확신은,



응답이 그러한 권능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으로 기꺼이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님의 조건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것은 주님과 그분의 종들의 음성을 경청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로 시작됩니다. 회복에 관한 영적 지식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과정의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개종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영적 경험

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복음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의 주요 동기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면서, 저는 더 많은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웠고 저는 그것을 좋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과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였다는 확

신 위에 개인적인 영적 토대를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확신은 주의를 기울이고 현대 계시의 실제적인 증거인 물몬경에 대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간증할 때에야 비로소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몬경이 참되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확신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의 신앙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내적인 평안이 응답으로 주어졌으며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토대가 세워졌으며 제 마음속으로 침례 성약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결심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인도해 주고, 끝까지 견디겠다는 의로운 결심을 하도록 도와 준 성신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때로부터 저는 현세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신성한 계시를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실재하는 것이며, 개인적이고 참됩니다. 이성만 계시를 대신하지 않으며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심들로 인해 지식의 신성한 근원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리아 호나*, 2003년 11월호, 22쪽)

주님의 종들에 의해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시험하고 느껴 보십시오.(앨마서 31:5 참조)

신앙으로 시험하고, 간구하고 얻은 다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교성 20:14)될 것입니다.

끝으로, 신성한 진리를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주님의 방식에 따르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영적 토대를 세우고 현세와 내세에서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연차 대회의 축복

폴 브이 존슨 장로
철십인 정원회

연차 대회를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주의 깊게 듣고 주어진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연차 대회의 이 신권 모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저는 항상 제 아들과 함께 이런 신권 모임에 참석하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아들과 스테이크 센터에 함께 앉아 총관리 직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던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젊었을 때 제 삶을 바꾸어 주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제 삶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임들이 제 아들과 전세계 수백만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하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고,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신권의 열쇠가 지상에 있고, 합당한 사람들은 구원의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자신들의 삶에서는 물론 가족과 지역 사회 안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수백만 명의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놀라운 시대는 또한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유혹과 위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험난한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유혹과 위험 중 몇 가지에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상에 만연한 악에 굴복해 삶이 훼손된 사람들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이 위대한 사업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고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악과 유혹에 직면했을 때 주님이 우리 혼자 힘으로 길을 찾도록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 개개인 모두 충분한 것 이상의 인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영감을 줄 성신의 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경전, 부모,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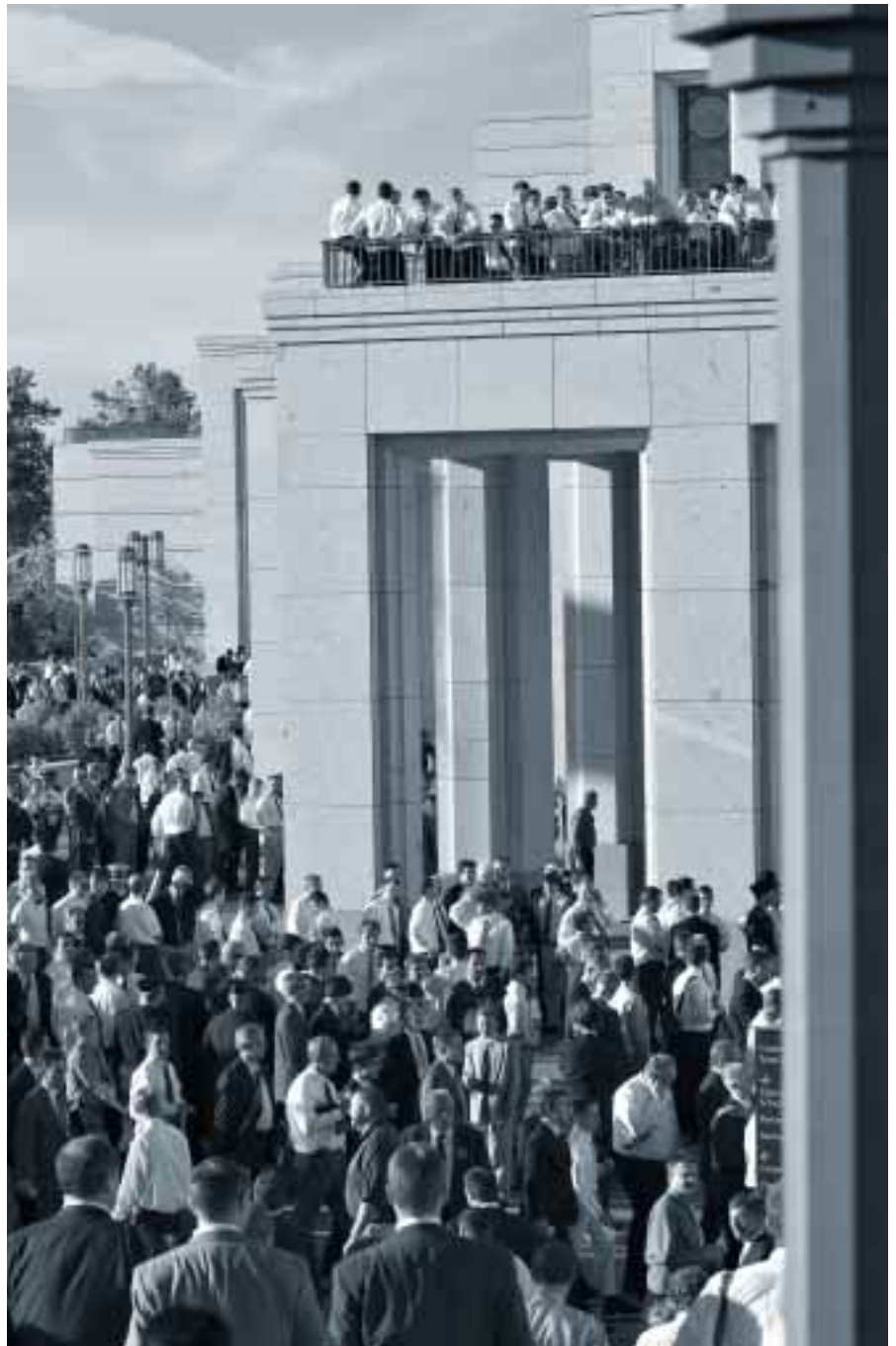
계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인도와 지침이 너무도 많기에, 여러분이 받은 인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삶에서 중대한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러한 인도의 근원 중 하나, 즉 오늘 우리가 지지한 살아 계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가르침을 얻는 주요 방법들 중의 하나인 연차 대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차 대회는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된 이래 교회의 일부였습니다. 첫번째 대회는 교회가 조직되고 겨우 두 달만에 열렸습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일 년에 두 번 모입니다. 이런 대회의 진행 기록은 책자와 전자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제 어머니는 연차 대회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켜고 볼륨을 크게 틀어 놓아 온 집에서 대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 하셨으며,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물어 보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의 형제들 중 한명과 함께 밖으로 나가 토요일 연차 대회 모임 동안 공놀이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질문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라디오를 갖고 나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공놀이를 하다가 때로는 쉬면서 어머니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우연히도 전체 모임 중 똑같은 부분을 기억했을 때 어머니가 눈치채시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차 대회를 듣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연차 대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한 제 어머니의 사랑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 숙소에 혼자 있으면서 어느 대회의 말씀들을 듣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교회 회장이셨던 해롤드 비리 회장이 정말로 하



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성신이 제 영혼에 증거했습니다. 제가 선교 임지로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스스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흥분되어 살아 계신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지자 한 분 한 분에 대해 똑같은 간증을 얻었습니다.

선교 임지에 있을 때, 교회에는 위성 시스템도 없었고, 제가 봉사하는 나라에는 연차 대회 방송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회 말씀이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 주셨고, 저

는 그것을 몇 번이고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음성과 말씀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1883년에 영국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으셨던 저의 증조부, 나다니엘 호지의 일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솔트레이크시티로 와서 선교사로 성별을 받고 그곳에 있는 동안 대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하루 중 일 커다란 태버나클에서 모임에 참석했다. 그



곳에서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 주어졌다. 조셉 에프 스미스, 조지 큐 캐넌, 그리고 존 테일러 회장의 말씀이 특히 강력했다. 나는 가장 영리한 주민들 몇 사람이 이보다 더 강력하고 영적인 대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¹

저는 교회 회원들이 각 연차 대회에 대해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회마다 지난 번 대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영적인 것 같습니다.

연차 대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권고를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한 계시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 나의 율법과 계명의 요점에 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도록 서로 가르치며 덕을 세울지니라.”² 그러나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내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하도록 스스로를 떨지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³ 우리가 이미 배운 것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이런 열의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 줍니다.

일 년 전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핑클리 회장은 외설물의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권 형제들에게 주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예언적인 경고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던 형제들은 이미 축복을 받았으며,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이를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 커다란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가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서 외설물을 차단한다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커다란 축복을 거둡니다. 우리는 종종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최초의 결정을 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계속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한 중요한 원리가 포함된 한

편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 그가 … 너희에게 주게 될 그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니, 무릇 …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⁴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들어 보십시오.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너희 유익 … 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⁵

이러한 것들은 이처럼 불안한 시대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선견자와 계시자들을 기꺼이 따르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연차 대회를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주의 깊게 듣고 주어진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권고를 더 잘 이해하고 그 권고에 따르기 위해 한 번 이상 말씀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이렇게 행할 때 지옥 문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암흑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서 흩어지고, 하늘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진동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있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영생의 말씀”⁶을 지닌 참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오늘날 지상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Journal of Nathaniel Morris Hodges, vol. 1, 1883년 4월 8일, Archiv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 교리와 성약 43:8.
3. 교리와 성약 43:9.
4. 교리와 성약 21:4~5.
5. 교리와 성약 21:6.
6. 요한복음 6:68.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부름 받고, 지지 받으며, 성별된 사람들은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전세계로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¹ 신권 지도자들의 성스러운 직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최소한 두 가지 이유로 특별한 해입니다. 첫째, 금년 12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할 것이고, 둘째,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지난 6월에 95회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의 초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으며,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오늘날 이 교회의 선지자, 선견자 및 계시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몇 해 전 마이크 윌리스가 TV 프로그램 *스터 미니츠(60 Minutes)*에서 힝클리 회장과 인터뷰를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노인들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더군요.” 힝클리 회장은 이 발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숙한 사람, 즉 온갖 교리의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는 분별 있는 사람을 머리로 삼고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닌가요?”² 현재의 지도자들이 고령이라 교회를 인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힝클리 회장은 나이와 더불어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부름 받은 102명의 사도 중, 13명만이 힝클리 회장님보다 더 오래 봉사했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브리검 영 회장님, 헌터 회장님, 리 회장님, 김볼 회장님, 그리고 그 외 많은 분들보다 사도로서 더 오래 봉사했습니다. 이처럼 영감 받은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역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때때로 생각합니다. 85세인 저는 살아 있는 총관리 역원들 중 세 번째로 나이가 많습니니다. 이같은 영예를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어 현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및 기타 총관리 역원 형제들처럼 단합이

잘된 적은 교회 역사상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상의 하나님 왕국의 현재의 지도자들만큼 오랜 세월 구주의 인도에 의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그룹은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령의 그룹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몇몇과는 거의 반세기 동안 친분을 맺어 왔다는 사실은 제가 제 형제들이 훌륭하고, 영예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위대한 부름에 따라 열심히 일하여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었으며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옛날처럼 신체적으로 강건하지 않지만, 그들은 순수한 마음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은 예리하고 그들의 영적인 지혜는 심오하여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이 됩니다.

저는 33년 전에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을 받고 겸허해지면서 몹시 벅했습니다. 며칠 후 휴 비 브라운 회장은 우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항상 형제들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브라운 회장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이 제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권고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실천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대체로 영적인 인도를 받으려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를 받은 교회 회장,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사람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회장,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과 일치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 완전하게 일치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집사였을 때 아버지는 태버나클에서



한 연차 대회 모임 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제일회장단.

열린 신권 대회에 저와 형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과 다른 선지자 및 사도들이 참석한 것을 처음으로 보고 몹시 감동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열심히 그들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그들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몇 해를 두고 그들의 주제는 수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제 중 일부가 이번 대회에서도 반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주제들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야 합니다.

창세 이후 역사 기록을 보면 선지자들과 일치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륜의 시대 초기에 유감스럽게도 십이사도 가운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불충신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초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인 라이먼 이 존슨이었는데, 그는 불의한 행위로 파문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영적인 타락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신앙을 찾을 수 있다면, 오른 손이 잘려나가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을 텐데. 그 시절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고, 저의 꿈은 즐겁기만 했습

니다. 아침에 깨면 저의 기분은 상쾌했으며, 주야로 행복했으며, 제 마음엔 화평과 기쁨과 감사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암흑, 극심한 고통, 슬픔, 불행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³ 그는 1856년 45세의 나이에 썰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룩 에스 존슨 역시 1835년에 초대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837년에 그의 영적인 간증은 금융 투기로 인해 식었습니다. 후일에 그는 이것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어두워졌고 멋대로 정한 행로를 좇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을 상실했고 임무를 태만히 한 결과 1837년 9월 3일에 열린 대회에서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1837년 12월까지 그는 배도자들과 어울려 교회를 공공연하게 비난했으며, 1838년에 배도로 인해 파문되었습니다. 그는 커틀랜드에서 8년간 개업의 생활을 했습니다. 1846년에 그와 가족은 성도들의 우정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중도에 외도하여 주님의 사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마음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고 함께 광야로 가서 끝까지 고난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그는 1846년 3월에 재침례를 받고 1847년에 최초의 개척자 대대와 함께 서부로 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활동 회원이 된 후 1861년, 54세를 일기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했습니다.⁴

제가 교회 회원들에게 드리는 권고는 교회 회장,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다른 총관리役員들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지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나타내심을 받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의 종교대로 생활하며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했다”⁵라고 말한 것을 여러 차례 회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신앙의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권고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인기를 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

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닥치는 재난과 실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합니다.

우리의 지역 지도자들 역시 부름을 받고 백함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감독이나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 그리고 교회 회장과 그의 동료 지도자들로부터 권고를 받습니다. 이 형제들 중 아무도 부름을 달라고 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분의 종들입니다. 부름 받고, 지지 받으며, 성별된 사람들은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모든 감독님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인도를 의심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권고를 지지하고 따를 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⁶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는 부름을 받고 백함을 받은 사람들 각자가 부름에 동반하는 신성한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불안전함, 과오 또는 결점이 드러났다 해도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들의 직분을 지지해야 합니다.

수년 전, 우리는 광열비와 교회 일반 기금과 지역 단위 조직 예산 보조비로 지불되지 않는 기타 비용과 활동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모금 행사를 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자회, 박람회, 만찬, 기타 모금 활동 등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와드에는 훌륭하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이웃 와드의 한 회원이 덩크 머신(주: 물에 빠뜨리는 기구)이 모금 활동에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여자들이 특정한 표적을 향해 공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이 과녁 복판에 맞으면 물통 위에 앉은 사람은 찬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와드는 이 기구를 이용하기로 하고, 물에 빠지도록 마련된 자리에 감독님이 자진해서 앉았다면 더 많은 사람



들이 돈을 내고 던질 공을 살 것이라고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감독님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금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물에 빠지도록 마련된 자리에 기꺼이 앉기로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곧 공을 사서 과녁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녁에 공 여러 개가 맞으면서 감독의 온 몸은 물에 푹 젖었습니다. 이렇게 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추위로 인해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아버지는 감독의 직분이 경시되고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모금의 취지가 좋긴 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감독 직분과 주야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훌륭하게 봉사한 사람에 대해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가 수치심을 느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거룩한 경전들은 교회의 지역 직원들과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성도들을 위해 권고와 인도의 보호망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저의 평생 동안 총관리 직원들은 이 연단과 다른 연단에서 늘 불시에 닥치는 불행한 날을 대비하여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며, 빛을 지지 말고, 조금씩 저축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저는 대공황과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재난의 결과에 대비하여 저의 가족과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처럼 지혜로운 권고를 준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회장은 교회의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그리고 감리 감독단처럼 헝클리 회장님의 보좌들이 헝클리 회장님을 온전히 지지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감리 평의회에 회장님과 서로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화합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은 방패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에 맞서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과 우리 주위의 위험을 보는 시야가 좁아질 것입니다. 깨끗해지도록 하는 힘은 개인적인 의로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패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⁷ 우리는 안수로 부름을 받고 신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 충실함, 그리고 헌신을 보여 드리기에 전에는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사업은 참됩니다. 조셉 스미스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보았고 그분들의 지시를 듣고 따랐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사업의 책임은 이제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55:1.
2. *Discour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Volume 1:1995~1999(2005), 509쪽.
3. *Deseret News*, 1877년 8월 15일, 84쪽 브리검 영에서 인용.
4. 수잔 이스턴 블랙, *Who's Who in the Doctrine & Covenants*(1997), 156~157쪽 참조.
5.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54), 469.
6. 예베소서 4:14.
7. 마태복음 22:14.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신권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책임, 들어올리는 특권,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기회입니다



이 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곳곳에 모인 신권 형제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책임을 맡으니 겸허해집니다. 말씀을 하는 동안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최근에 성임된 집사에서 가장 연로한 대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청중으로 참석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의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이 회복된 일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된 일

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 성스럽고 소중한 사건입니다.

제가 집사로 성임된 때의 일을 상기하여 집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단은 성찬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복장, 품위 있는 행동, “안팎으로”, 다시 말해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찬을 전달하는 절차를 배우면서 저는 우리 와드의 한 회원인 루이스 맥도널드 형제님이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할 기회를 갖도록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체의 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맥도널드 형제님이 앉아 있는 좌석 줄로 성찬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던 때를 잘 기억합니다. 이 훌륭한 형제님께 다가갈 때 저는 두렵고 망설여졌으나, 그 다음에는 그의 미소와 성찬을 취하려는 그의 소망을 나타내는 진지한 감사의 표현을 보았습니다. 왼손에 성찬기를 들고 저는 작은 빵 조각을 집어 그의 입에 대었습니다. 나중에 물도 같은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맥도널드 형제님께 성찬을 전달하는 특권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좀더 훌륭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불과 두 달 전 7월 31일 일요일에 저는 버지니아의 에이 피 힐 요새에서 거행된 전국 스카우트 대회 후기 성도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한 주 앞서 대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5,000명의 후기 성도 청년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제가 그곳에 갔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원형 분지에 경건히 앉아 있는 동안, 400명의 아론 신권 함창단이 감동적인 함창을 했습니다.

물론 소년, 물론 소년
나는 물론 소년이라네
내가 물론 소년이라서
왕도 부러워하네.¹

모인 그룹의 곳곳에 위치한 여러 개의 넓은 성찬대에서 65명의 제사가 집행하는 가운데 성찬이 축복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약 180명의 집사가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꼭 찬 와드 예배실에서 성찬을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에 이 큰 그룹이 성찬을 다 취했습니다. 아론 신권 청년들이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했던 그날 아침 제가 얼마나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각 집사는 자신이 성임된 부름의 성스러움을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와드에서 금식 헌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효과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금식일에 와드 회원들은 각 가족이 금식 헌금을 낼 수 있도록 집사와 교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집사들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조금 불만스러웠습니다.

감독단은 집사들과 교사들을 버스에 태워 솔트레이크시티의 복지 광장까지 데리고 가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신발과 다른 옷가지를 받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빈 바구니에 식품이 채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남 여러분, 이것들은 여

러분이 금식일에 수집한 돈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식품, 의류, 거처입니다.” 아론 신권 청남들은 환하게 웃었으며, 부름을 보다 소중히 하고, 보다 기꺼이 봉사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제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동반자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임무를 받아야 합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의무에 관한 훈련을 받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특권입니까. 한 청남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임무를 받을 때, 그는 자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²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고취시키며, 권고하고 인도하는,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또한 가장 풍성하게 보상을 받는 기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 이는 신성한 봉사이며, 신성한 부름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 우리의 의무는 모든 가정과 마음에 신성한 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³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으로 많은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고 생생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헝가리의 데브레첸 출신의 조한 덴도르퍼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는 오래 전에 독일에서 개종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자신의 조국인 헝가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접촉할 수 없기를 오랫동안 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가정 복음 교사의 방문을 받았습니 다. 발터 크라우세 형제와 그의 동반자가 그들의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멀리 독일의 북동부에서 헝가리 까지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독일에서 집을 떠나기 전에 크라우세 형제가 동반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그의 동반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크라우세 형제는 “내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언제 돌아옵니까?”라고 그가 질문했습니다.

크라우세 형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일주일 정도 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나 덴도르퍼 형제와 다른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덴도르퍼 형제는 전쟁 이전부터 자신에게 가정 복음 교사가 지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종들을 보게 되

자, 그는 몹시 감격했습니다. 그들과 악수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침실로 가서 은밀한 곳에 오랜 세월 동안 모아 둔 십일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십일조를 자신의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낸 다음에 그는 “이제 떳떳하게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론 신권의 제사들을 위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축복하고,



자신의 가정 복음 교육 의무를 계속하고, 성스러운 침례 의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55년 전, 저는 아론 신권 제사 직분을 지녔던 로버트 윌리엄즈라는 한 청년을 알았습니다. 감독이었던 저는 그의 정원회 회장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 그는 말을 더듬고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언어 장애 때문에 그는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그는 임무를 받아들이는 적이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적도 없었으며, 항상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책임을 완수하라는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 태버나클의 침례탕에서 로버트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티 한 점 없이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자신이 집행할 의식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심하게 더듬거리는 말로 무섭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가 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서기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인 로버트 윌리엄즈 형제가 낸시 앤 맥아더에게 침례를 주겠습니다.”

로버트는 제 옆을 떠나 침례탕으로 들어간 후, 어린 낸시의 손을 잡고, 인간의 삶을 깨끗

이 하고 영적인 거듭남을 가져다주는 물 속으로 그 아이가 들어가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낸시 앤 맥아더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그런 후 그는 그녀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막힌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대의 기적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로버트는 같은 방법으로 두세 명의 다른 어린이들을 위해 침례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로버트를 축하해 주기 위해 저는 개의실에서 서둘렀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나오는 그의 말을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감사의 대답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로버트가 아론 신권의 권세로 행할 때, 권능과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 말했다고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약 이 년 전에 로버트 윌리엄즈 형제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하고, 신권을 존중하기 위해 평생에 걸쳐 최선을 다했던 충실한 이 신권 소유자에게 경의를 표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있는 청년들 중 몇몇은 천성적으로 수줍어하거나, 부름을 받기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나 저만의 사업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처럼 저도 낙담과 어린 시절에 창피함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소년 시절에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포츠볼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주장이 선정되었고, 두 사람은 차례로 각 팀에 들어올 선수들을 선발했습니다. 물론 제일 잘하는 선수가 먼저 뽑혔고,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다섯 번째로 뽑히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마지막으로 뽑혀 별로 바라지도 않는 외야로 내쫓기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공이 제가 있는 곳으로 결코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공을 떨어뜨리면, 주자들이 득점을 올리고, 팀 동료들은 비웃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제였던 것처럼,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변했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뽑혔습니다. 오른쪽 깊은 외야의 제 위치로 처량하게 간 저는 주자들이 만루가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명의 타자가 아웃되었습니다. 갑자기 다음 타자가 큼직한 타구를 날렸습니다. 저는 타자가 “이건 분명히 홈런이야”라고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섰을까요? 저는 달리는 동안 기도를 하고, 공이 떨어질 것 같은 곳으로 쏠살같이 내달아 손을 모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제가 공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저는 자신감을 갖고, 연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마지막에 간신히 뽑히는 처지에서 팀에 당당히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감의 분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했을 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단어로 된 공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Never give up).

연극 *췌난도*에는 이런 영감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할 수 없다. 행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가?”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어디에서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의심을 대신할 때, 비이기적인 봉사가 이기적인 노력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신권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책임, 들어올리는 특권,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기회입니다.

신권을 지닌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임무 지명을 받아들일 때 부름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겸손하면서도 유능한 지도자였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첫번째 의무이고,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힘으로 사람들이 흔쾌히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영화롭게 할까요? 단순히 부름에 관련된 봉사를 수행하면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의무를 배우고 난 뒤 그것들을 행함으로써 장로로서의 성임된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집사, 교사, 제사, 감독, 그리고 신권 직분을 지닌 모든 사람이 다 장로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삶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영혼을 구합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⁵라고 권고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간청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절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감독으로 봉사할 때, 저는 87명의 미망인을 포함하여 회원이 천 명이 넘는 큰 와드를 감리했습니다. 한번은 보좌 한 사람과 함께 한 미망인과 신체 장애가 있는 성숙한 그



분의 딸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아파트를 떠날 때, 홀 건너편의 아파트에서 나온 어떤 부인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외국인의 억양으로 저에게 감독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가끔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어느 누구도 저나 와병중인 제 남편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당신 교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잠시 들어오실 시간이 있는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녀와 남편이 라디오를 통해 테버내클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 부부와 이야기를 한 다음 남편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방문한 이후 저는 가능한 자주 그곳에 들렀습니다. 그 부부는 결국 선교사들과 만났고, 아내인 앤젤라 애나스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분의 장례식을 집행하고 말씀을 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어를 알고 있던 애나스터 자매는 널리 사용되던 소책자인 “Joseph Smith Tells His Own Story(조셉 스미스 자신이 전한 이야기)”를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이 좌우명을 좋아합니다. “너의 의무를 행하라, 그것이 최선이니라.

나머지는 주께 맡기라.”⁶

아론 신권에서의 활동적인 봉사는 젊은 형제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과 동료 정원회 회원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2월에 6월의 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추억을 주셨도다.”⁷라는 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가 손짓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닌 신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분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Evan Stephens, “A Mormon Boy”, in Jack M. Lyon and others, eds.,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1996), 296.
2. 교리와 성약 20:53 참조.
3. *Priesthood Home Teaching Handbook*(1967년), ii-iii.
4. In Conference Report, 1942년 4월, 14쪽.
5. 야고보서 1:22.
6. Henry Wadsworth Longfellow, “The Legend Beautiful”, in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Longfellow*, 1893년, 258쪽.
7. Paraphrasing James Barrie, in *Peter’s Quotations: Ideas for Our Time*, comp. Laurence J. Peter 1977년, 335쪽.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 곳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모든 인종과 족속의 남성과 청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로, 이제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권세의 일부이며 그 권능으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신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질 때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요구됩니

다.(누가복음 12:48; 교리와 성약 82:3 참조)

저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완전한 길을 알고 있지만, 항상 알고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종류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목표이며, 저는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를 치하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 모범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멕시코만 연안에 있는 미국의 여러 주가 최근 격심한 바람과 물로 인해 무서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릅니다. 실제로 수백만 명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엄청난 도움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정의 문 또한 열렸습니다. 비평가들은 기독교의 결함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교회들이

행한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종교 단체에서 놀라운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해 장비와 천막과 밝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권을 지닌 사람들이 복구 사업에 들인 시간은 수천 수만 시간입니다. 한 번에 3, 4천 명 정도가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 곳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기도에 대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지역 칠십인, 즉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존 에이 앤더슨 형제와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스탠리 엘리스 형제는 이 작업의 많은 부분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준 성인들과 청년들에게 작업에 대한 공로를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물몬”이라는 글이 새겨진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와 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회원들뿐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앨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니파이인들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벗은 자나 주린 자나 목마른 자나 병든 자나 양육 받지 못한 자를 아무도 보내어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재물에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간에, 늙은 자와 젊은 자, 매인 자와 자유로운 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후히 나누어 주었더라.”(앨마서 1:30)

교회의 많은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청년들은 수만 개의 위생 및 세안 도구 세트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회에는 장비, 식품, 물, 또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적십자사와 다른 단체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적 기금에서 수백만 달러를 제공



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주님의 형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히 반복하건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일부 성도들을 포함하여 많은 선한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래된 세상은 재앙과 대참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경전을 읽고 믿는 우리는 이미 지나간 대참사나 앞으로 올 대참사들에 관한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물이 지구를 뒤덮었던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그때 “구원을 얻은 자가 ... 겨우 여덟 명”(베드로전서 3:20)이었습니다.

인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게 될 무서운 일들에 대해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

“그 날에는 아이 뺨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마태복음 24:6~8, 19, 21~22)

우리는 물문경에서 구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 때 서반구에 있었던 상상할 수 없는 파괴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니 제 삼십사 년 정월 곧 그 달 사 일에 큰 폭풍이 일어났으니, 그 같은 것이 그 온 땅에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더라.

“또한 크고 무서운 태풍이 있었고, 극심한 우레가 있어 온 땅이 마치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진동하였더라.

“또 심히 강렬한 번개가 있었으니, 그 온 땅에 그 같은 것이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더라.

“또 제이라해물라 성에는 불이 붙었더라.

“또 모로나이 성은 깊은 바다로 가리앉아, 그 주민들이 물에 빠져 죽었더라.

“또한 땅이 모로나이하 성 위로 솟아오르며, 성이 있던 자리에는 큰 산이 생기더라.

“태풍과 회리바람과 우레와 번개와 온 땅이 심히 크게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하였음이라.

“또 대로가 깨뜨러지고, 평평한 들길이 파괴되었으며, 여러 평탄한 곳들이 거칠게 되었더라.

“또 많은 크고 유명한 성읍들이 가리앉았으며, 많은 성읍이 불타고, 많은 성읍이 요동하더니, 이윽고 그 건물들이 땅에 무너지고, 그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장소는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더라.”(제3니파이 8:5~10, 12~14)

얼마나 끔찍한 참사였습니까.

14세기의 질병이나 흑사병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다른 유행성 질병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주후 79년에는 베수비오 산이 폭발하여 거대한 도시 폼페이아가 파괴되었습니다.

시카고가 무서운 화재로 황폐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조수의 파도가 하와이 지역을 침수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1906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은 그 도시를 파괴하고 약 3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900년에 텍사스 갈베스톤을 강타한 허리케인은 8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동남아에 있었던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지역에는 아직도 구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장로들의 증언이 있는 후에 임하게 될 재앙에 관해 교리와 성약 88편에 나와 있는 계시의 말씀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너희 증언 이후에 지진의 증언이 있어 땅 가운데서 신음 소리를 내게 할 것인즉, 사람들이 땅에 넘어질 것이요, 서 있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또한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와 폭풍우 소리와 그 경계를 넘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의 증언이 임하느니라.

“그리고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정녕 사람들의 마음은 낙담하리니, 이는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8:89~91)

“경계를 넘어 밀어닥치는 파도 소리의 증언”에 대해 말하는 이 계시의 언어적 측면을 볼 때 쓰나미와 최근의 허리케인에 대한 묘사는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과거나 현재의 대립에서 나타난 인간의 잔인함 또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으며, 백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은 모두 예언된 일이었으며,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비가 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주를 다 짓고 나자 비가 내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교리와 성약에는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리와 성약 87:8)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마지막 날 다가올 때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의 심판 시작될 때 우리 지켜 줍소서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우선 순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야렛 백성과 니파이 백성의 예에서, 불순종에 따르는 형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각 백성은 사악함으로 인해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완전한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우리는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는 것을 압니다.(마태복음 5:45 참조)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죽더라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의 속죄를 통해 구원 받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로마서 14:8)

우리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올리언스의 취약점에 관해 많은 경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질학자들로부터 솔트레이크 밸리가 지진 가능 지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템플 스퀘어에 있는 태버나클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훌륭한 건물은 지진의 진동에도 버틸 수 있도록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곡물 저장소와 창고를 지었으며 재난이 닥칠 경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곳에 비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창고는 가정에 있는 비축실입니다. 계시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교리와 성약 109:8)

우리 회원들은 재앙이 올 경우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권고와 격려를 75년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얼마간의 물, 기본 식품, 의약품 및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의복들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약간의 돈도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식료품 가게로 달려가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오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진 소와 파리한 소,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에 관해 바로가 꿈 꾸에 대한 선견을 잃지 마시다.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의 의미는 풍성한 해와 궁핍한 해를 말합니다.(창세기 41:1~36 참조)

저는 우리가 주님의 빛과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걸을 때, 주님께 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며, 도와 주시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신권 모임 시청을 위해 버스나 도보로 여행하든 또는 가족들이 함께 가든, 사모아 후기 성도들은 연차 대회에 함께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사모아 인구의 30% 이상이 교회 회원이다.



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회원들이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오른쪽: 브라질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들이 일부 모임의 주제가 된 물문경을 전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제일회장단

2005년 10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헨 톰 페터슨



러셀 엠 넬슨



멜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벤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웬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테이버드 에디 베드나

칠십인 회장단



마크 시 펄기



디터드 크리스토퍼슨



찰스 디디에



메릴 제이 베이턴



로버트 시 욱스



닐 앤드러슨



로버트 에이 러스본드

최십인 제일 정원회



카를로스 에이치 아메도



몬트 제이 브린크



스티븐 에브 차일드



웬 휘트니 터너



제리 레이 조플란



스티븐 제이 콘디



진 길 박



켄트 엠 벅



클라무디오 엠 옌 파크



벤자민 데이 오우스



로버트 케이 멜리코프



존 피 데이비스



데이비드 제인 에번스



크리스토퍼 올든 오이세



윌리엄 에프 파크



시 스킵스 그로우



로버트 시 워렌



도널드 엠 홀스토클



리처드 지 파크



제이 이 켈슨



marvin 케이 쟈슨



케이스 쟈슨



폴 데이 쟈슨



도널드 올브 카



요시히코 기구찌



폴 이 갈라커



존 윌 파크슨



리처드 제이 에이너즈



김 에이 미셸슨



데니스 비 오슈인더



로버트 엠 파이스



폴 피 페이퍼



로버트 디 포퍼



칼 피 파켓



린 지 파킨스



세실 오 사뮤얼슨 이세



스티븐 이 스노우



윌리엄스 소이렌스



폴리사스코 제이 비나스



폴스 비 워크먼



도널드 크레이프 주워크



리처드 시 에일리 제이모라



리처드 시 에일리 제이모라



키스 비 맥밀란 제이모라

최십인 제이 정원회



마빈 비 아메도



도널드 엠 파킨스타터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스티븐 디 크리스티슨



레이먼드 윌던



대빌 에이저 간



디엔스 제렛



로버트 이 윌버슨



키스 케이 웨버그



스텝스 엠 파이스



고든 윌



체찰스 에 린든



로버트 더블류 미스코 이세



데이브 이 밀러



로버트 에프 오튼



윌리엄 더블류 파킨



도널드 엠 에이저 톨



웨인 에스 파터슨



에이저 브라운 리처즈



윌리엄 더블류 송



도널드 더블류 생웨이



윌리엄 엠 스노우



도널드 엠 스타펠리



로버트 엠 스타퍼



데이비드 엠 스톤



에이저 더블류 스튜키



폴 케이 시브로스키



윌리엄 안 윌커



로버트 제이 윌튼



리처드 에이저 윌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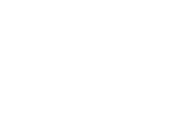
관리 감독단



키스 비 맥밀란 제이모라



리처드 시 에일리 제이모라



에이치 데이비드 비든 김리 감독



왼쪽 위: 연차 대회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멕시코시티의 신권 소유자들. 위: 예배당에서 스페인어로 방송을 시청중인 멕시코 회원들.



왼쪽: 연차 대회를 고대하며 교회 건물에 일찍 도착한 페루 초시카의 두 청년.

왼쪽 아래: 집에서 방송을 시청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미시간 주 트로이의 조한슨 가족.



아래: 관례대로 뺨에 입을 맞추며 서로를 반기는 프랑스의 두 회원들.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모범으로 가르친 교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그가 보이신 모범으로 그토록 아름답게 가르친 신성한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더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조셉 스미스 탄생 2백 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 주 사톤에서 조셉 스미스 이세는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날, 그의 부모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작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그가 앞으로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이 한 영이 몸에 거하기 위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으며, 스스로의 모범으로 필수적인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는 그에 대한 몇가지 교훈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셉이 약 여섯 살 내지 일곱 살이었을 때, 그와 그의 형제 자매들은 발진티푸스에 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금방 나았지만 조셉은 다리에 남은 종기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약으로 그를 치료했지만 종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들은 조셉의 집을 방문하여 조셉의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될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수술하기를 원했으며 고통을 감소시킬 약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도중에 조셉이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침대에 묶을 수 있는 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어린 조셉이 말했습니다. “저를 묶지 않아도 돼요.”

의사들은 조셉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 조셉에게 브랜드나 포도주를 약간 마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렸던 조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침대에 앉으셔서 저를 품에 안아주신다면 저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어린 조셉을 품에 안았고, 의사들은 바로 수술을 시작하여 병든 뼈조각을 잘라냈습니다. 그 후 어린 조셉은 한동안

다리를 절었지만 병은 치유되었습니다.¹ 조셉 스미스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모범들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셉이 태어난지 15년이 되기 전에, 그의 가족은 뉴욕 주 맨체스터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훗날 그 당시 도처에서 행해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큰 관심을 가졌던 대규모 종교 부흥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조셉 또한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간절히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종종 ... 이 모든 교파들 중에 누가 옳은가? 혹시 모두가 그릇된 것은 아닐까?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만이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즈음에,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다.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²

조셉은 그 말씀이 진실된지 알기 위해 주님께 간구해 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무지 속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그는 한 숲속, 지금은 성스러운 숲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대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두 분이 그의 앞에 모습을 보이셨으며,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셉의 질문에 대해 어떤 교회도 참되지 않으므로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모범으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1820년 어느 봄날 아침에 그가 드린 단순한 신앙의 기도로 이 놀라운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 사업은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를 드린 며칠 후, 조셉 스미스는 안면 있는 한 설교자에게 그의 시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



야기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극심한 핍박의 원인이 되었으며 핍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였다. ... 왜냐하면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³ 그는 여생 동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인 핍박을 받았고 이를 견디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범으로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첫번째 큰 시현을 본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3년 동안 어떤 시현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여기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으며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의 모범으로써 천국의 미덕인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천사 모로나이가 어린 조셉을 방문하여 금판을 준 직후, 조셉은 어려운 임무인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2,600년 동안, 500쪽에 걸쳐 쓰여진 내용을 90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번역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전념, 그리고 노력을 기울였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 번역을 도와 주면서 지냈던 날들에 대해 회상한 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 하늘의 영감으로 말하여지는 음성

을 들으며 앉아 있는 동안 한량없는 감사를 느꼈다”⁴ 조셉 스미스는 모범을 통해 **근면**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자신도 북부 뉴욕과 캐나다에서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자원하도록 격려했을 뿐 아니라 모범으로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죽음이 가까웠을 무렵에 저는 그가 우리에게 가장 감미로우면서도 슬픈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현을 통해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 로키 산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핍박자들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분명 그들과 함께 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포드 주지사에게 간청했지만 그 혐의들은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가정, 아내와 가족, 성도들을 떠나 사법당국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카테지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⁵

그는 자신의 형 하이럼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테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1844년 6월 27일, 조셉과 하이럼,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가 그곳에 함께 있었을 때 성난 폭도들이 감옥을 습격하여 계단을 뛰어올라 그들이 있던 방의 문을 통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럼은 목숨을 잃었고 존 테일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행동은 남을 위한 일을 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방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듯 방안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달려갔는데 이때 문 쪽에서 발사

한 두 발의 총탄이 그를 관통했고 한 발은 바깥에서 날아와 그의 오른쪽 가슴에 박혔습니다.⁶ 그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인해 윌라드 리차즈와 존 테일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⁷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런 모범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160여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1844년 6월 27일의 사건들은 비극적이었지만 조셉 스미스의 순교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가 없으면 교회가 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리에 대한 그의 힘찬 간증과 그가 번역한 가르침, 또한 그가 선포한 구주의 메시지가 오늘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포하는 전세계 1,2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래 전 저는 캐나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어느 춥고 눈 오는 날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두 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가까호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 장로는 경험이 있었고 다른 장로는 신참이었습니다.

두 장로는 엘머 폴라드 씨의 집을 방문했고 폴라드 씨는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 된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했고 폴라드 씨에게 함께 기도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도를 하게 해 준다면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선교사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불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사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캐나다 사람들에게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폴라드 씨는 선교사들에게 다시는 그의 집에 오지 말아 달라



고 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폴라드 씨는 조용하는 말투로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다고 내게 말할 수 없을 것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문을 꽂 닫았습니다.

몇 걸음 간 후, 후임 동반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폴라드 씨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선임 동반자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거절 당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러나 젊은 선교사는 굽히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폴라드 씨의 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폴라드 씨는 노크 소리에 문을 열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들, 내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소!”

그러자 후임 동반자는 최대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폴라드 씨, 우리가 당신 집을 떠날 때 당신은 우리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가 영감을 받아 몰몬경이라는 성스러운 기록을 번역했으며,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았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전한 후 선교사들은 현관 계단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바로 이 폴라드 씨가 한 간증 모임에

서 그 잊을 수 없는 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날 저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워서 뒤척였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저는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개조가 담긴 작은 카드에 적힌 번호로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왔고 이번에는 제 아내와 제 가족과 제가 진리를 찾는 진지한 구도자로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두 명의 용기 있고 겸손한 선교사들이 전해 준 진리에 대한 간증에 대해 언제나 감사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35편에서 우리는 존 테일러가 조셉 스미스에 대해 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다.”⁸

저는 브리검 영 회장의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성임하셨고,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여 유지시킬 열쇠와 권능을 주셨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언

제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⁹

우리가 사랑하는 조셉에 대한 이 적절한 찬사의 말씀에 덧붙여 저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며, 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택함 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그의 탄생 2백 주년을 기념하면서 그의 삶으로부터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보이신 모범으로 그토록 아름답게 가르친 신성한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더 온전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시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에 의해 인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차 대회로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부름을 받은 지 42년이 됩니다. 제가 성전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가진 첫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기리며 우리가 불렀던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저는 그 찬송가의 한 귀절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름 부어 예언자삼고
말일의 경륜을 시작케 하니
못 왕과 온 백성 경배하리.¹⁰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루시 맥 스미스, *History of Joseph Smith by His Mother*, ed. Scot Facer Proctor and Maurine Jensen Proctor(1996년), 69~76쪽 참조.
2. 조셉 스미스-역사 1:10~11.
3. 조셉 스미스-역사 1:21~22, 25.
4. 조셉 스미스-역사 1:71, 각주.
5. 교리와 성약 135:4.
6. *History of the Church* 6:618쪽.
7. 요한 복음 15:13.
8. 교리와 성약 135:3.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343쪽.
10.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시온의 언덕 위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기꺼운 마음으로 가입하고 그 원리와 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영혼은 “시온의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면서 문명의 생존이 달려 있는 표준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도덕, 결혼, 가정 및 가족의 오래된 표준들이 법정과 평의회에서, 의회와 교실에서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러한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 즉 이 후일에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 무정하며 ...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디모데후서 3:2~4)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디모데후서 3:13)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을 계속해서 지키면 그가 안전할 것이니,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디모데후서 3:15)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전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영적인 인도에 대해 배웁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샘솟는 계시가 경전으로 발행되던 교회 초기 당시에 제가 살았다면 박해와 시련들을 기꺼이 견뎌냈을 것입니다.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많은 계시는 경전으로 발행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니파이후서 26:13)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의 영원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경전은 선지자인 교회 회장과 그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정원회, 감리 감독단, 스테이크 및 와드와 지부의 직분에 대해 명확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및 아론 신권의 직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은 영감과 계시가 지도자와 교사, 부모와 개인

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듭니다.

지금의 대립과 시련은 그때와 다릅니다. 오히려 초기보다 더 격렬하고 위험하며 교회보다는 개인인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원한 지침을 위해 경전으로 출판된 초기의 계시는 의식과 성약을 규정하며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38:30)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왜 것처럼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시행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은 계속되는 계시가 교회와 회원 개개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여년 전, 후기 성도 판 경전을 제공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이 교리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흠정역 성경을 몰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와 전후 참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흠정역 성경 본문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냥 두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미 수 세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흠정역 성경의 90퍼센트가 윌리엄 틴달과 존 위클리프에 의해 번역된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 초기 번역자, 순교자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틴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쟁기질하는 소년이 성직자보다 성경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하겠다.”²

엘마는 커다란 시련을 겪은 후에 더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참으로 그것은 같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그러하여 엘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앨마서 31:5)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바입니다. 즉, 모든 교회 회원이 경전을 알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와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틴달과 위클리프가 그들 시대에 했던 것을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기로 했습니다.

틴달과 위클리프는 모두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틴달은 브뤼셀에 있는 냉동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으며 그는 몹시 추웠습니다. 그는 감독들에게 그의 외투와 모자를 보내 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양초를 보내 달라고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지치게 합니다.”³ 그들은 그의 요구에 너무 격분하여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많은 군중 앞에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위클리프는 화형은 면했지만, 콘스틴스 공회는 그의 시신을 파내어 태운 뒤 그 재를 흩어버렸습니다.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칠십인 정원회의 에드워드 스티븐슨의 모친에게서 16세기 영국의 성직자, 존 폭스가 쓴 *순교자들(Book of Martyrs)*에 관한 책들을 빌렸습니다. 그 책들을 읽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림과 둠밈의 도움으로 그들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빛에 따랐던, 정직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으며, 구원 받을 것입니다.”⁵

7만 개가 넘는 경전 구절을 전후 참조하고 각주와 보조 자료들을 마련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어쩌면 불가능한 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업은 12년에 걸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희랍어, 라틴어 및 히브리어 전문가들이었거나 고대 경전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하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영감의 영이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 작업은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쟁기질하는 모든 소년 소녀에게 경전이 개방되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각주를 정리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고안되었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통해, 회원은 단 몇 분 안에 *속죄*, *회개*, *성신* 등과 같은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4대 경전에서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우리는 주제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지루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천국(Heaven)과 지옥(Hell)을 통과했고, 사랑(Love)과 욕정(Lust)을 지나 회개(Repentance)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역자 주: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여 지금은 R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

몰몬경의 최초 원고가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경전 번역에 슬며시 들어온 인쇄상의 실수를 바로잡게 해주었습니다.

주제 안내서(Topical Guide)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하에 작은 글자로 인쇄된 18쪽 분량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관해 수집된 경전의 내용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편집이었습니다. 이 참조 성구를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

지, 그 교회에서는 무슨 권능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려주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이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두 편의 새로운 계시, 즉 엔다우먼트를 집행하던 중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시현인 137편과 죽은 자를 위한 구속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시현인 138편이 교리와 성약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마무리되어 인쇄되기 직전에, 신권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으며 그것이 공식 선언(교리와 성약 공식 선언-2)으로 발표되어 경전이 아직 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과제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문제였습니다. 현재는 경전 안내서와 더불어 *몰몬경 합본*이 24개 국어로 출판되었으며 곧 이어 다른 언어들로도 출판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현재 106개 언어로 인쇄되었고 46개 언어로의 번역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작업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몰몬경*에 부제가 주어졌—*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고 이름 붙여 졌습니다.

기초 교리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의 화강암처럼 단단하게 자리잡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계시가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9조)

경전 출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하나의 커다란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전 교과 과정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신권회와 보조 조직—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의 모든 학습 과정이 경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권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수년 간 일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저술, 교과 과정, 교육

및 다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교회 회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전에 근거하고 신권의 권세를 강조하며 가족의 신성한 본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되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⁶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⁷을 발표했습니다.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이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영으로 배우고 가르치며(교리와 성약 50:17~22 참조), 모두가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배도와 회복, 회복된 교회의 독특한 입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와 교리들을 파악하기 위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격려 받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가정의 밤을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은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다른 시간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선교 사업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 아래 주어진 계시에 다시 그 기초를 두게 되었습니다. 매년 25,000명의 선교사가 2년 동안 복음과 영으로 가르치고 간증을 나누는 방법을 배운 후에 해임되어 148개국에 있는 각자의 가정으로 귀환합니다.

신권 행정의 원리들이 명백해졌습니다. 신권, 즉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입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열쇠를 지닌 지도자들, 즉 감독단 및 회장단이 인도하고, 오해나 거짓 교리를 탐지하고 바로잡습니다.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의 성인 교과 과정은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둡니다.

교회 잡지는 새롭게 디자인 되었으며 현재 50개 언어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립의 놀라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122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행해지고 있으며, 어제 두 성전이 더 발표되었습니다.



계보는 가족 역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충실한 회원들은 성전에 제출할 성명을 준비하고 가져오기 위해 최신 기술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계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 외에도 상세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프로그램이나 모임 혹은 교제보다 더 깊은 권능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확고합니다. 결코 후퇴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 있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후기 성도들 마음과 영혼 속에 살아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겸손한 회원들은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값진 진주”(마태 복음 13:46)를 찾았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삶을 사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는 영감을 경전에서 얻습니다.

선지자 조셉의 아내 에머 스미스가 최초의 찬송가를 수집해 만들었을 때, 그녀는 사실상 기도와 다름 없는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 날 다가올 때 두렵 없게 하시고

주의 심판 시작될 때 우리 지켜 줍소서
여호와께 찬양하게 영화로운 노래로
영화로운 노래로”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기꺼운 마음으로 가입하고 그 원리와 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영혼은 “시온의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면 위에서 참되고 살아 있는 유일한 교회”(교리와 성약 1:30)라는 진리를 영감을 통해 확신할 수 있으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또한 요한계시록 5:9, 14:6; 니파이전서 19:17; 모사이야서 3:13, 20; 15:28; 16:1; 엘마서 9:20; 37:4; 교리와 성약 10:51; 77:8, 11; 133:37 참조.
2. In David Daniell, introduction to *Tyndale's New Testament*, 번역: William Tyndale(1989년), viii.
3. In Daniell, introduction to *Tyndale's New Testament*, ix.
4. John Foxe, *Foxe's Book of Martyrs*, ed. G. A. Williamson(1965), 18~20쪽 참조.
5. In Edward Stevenson, *Reminiscences of Joseph, the Prophet, and the Coming Forth of the Book of Mormon*(1893년), 6쪽.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7.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모두를 위한 모형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칠십인 회장단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모형[입니다.]
[그것은] ... 좋은 소식, 즉 시간을 초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속죄[입니다.]



최 근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는 이 교회가 뉴욕에서 시작되었고 유타에 그 본부가 있으며 고대 미대륙 백성에 관한 물문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호감을 살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 생각하며, 그 토론자는 회복된 복음의 보편적 특성이나 복음 의식, 성약 및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과 물문경의 범세계적인 의미는 거주지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각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잠재성에 관한 메시지로 측정됩니다.

모든 시대를 통한 예언의 외침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모로나이서 10:32, 또한 마태복음 5:48; 요한복음 10:10, 14:6 참조)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해서 옵니다. (요한복음 1:14, 18; 교리와 성약 29:42 참조) 이 외침은 보편적이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또는 다른 국적과 관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언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생” (사도행전 17:29)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는 생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서 3:22~28; 앨마서 13:3 참조) 그 계획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모세서 5:6~12 참조)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노아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2~4; 갈라디아서 3:6~9 참조) 모세의 시대에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배도 속에서 수 세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감독자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19:5~6; 교리와 성약 84:19~24 참조) 결국 충만한 복음은 절정의 시대에 구주에 의해 이스라엘에 회복되었습니다.

사악한 농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배도와 회복의 연속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1~10 참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의로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보내어졌던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종들이 거듭해서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매를 맞고 빈 손으로 왔으며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성역에 관해 예언을 하시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마태복음 21:37)고 말씀하시며 “그가 참으로 사랑하는 한 아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가복음 12:7)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다고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아셨으므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농부들이 ... 말하되 이는 상속자나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마가복음 12:7, 8)

구주와 그분의 사도들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의 교리들이 변경되고 배도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의 영적 어둠은 다시 빛이 지상에 비추기까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대 배도에 관해 알고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주님이 재림을 위해 돌아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구주의 승천 이후에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19~21 참조) 사도 바울 또한 회원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디모데후서 4:3~4) 때에 관한 것과 “배도하는 일” (데살로니가후서 2:2~3)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만물의 회복”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10 참조)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만물의 회복”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룩한 숲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은 시현을 통해 하나님의 개인적 본질, 즉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이며,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게신 승영에 이른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새로이 부름받은 선지자에게 한 책이 주어집니다.(출애굽기 31:18 참조) 리하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적혀 있는 책을 받았고(니파이전서 1:11~14 참조) 에스겔은 그의 시대에 유다가문을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았습니다.(에스겔 2:9~10) 또한 계시자 요한은 밧모 섬에서 일곱 인이 있는 한 책을 보았습니다.(요한계시록 5장; 교리와 성약 77:6 참조) 그렇다면 주님이 “만물의 회복”의 일부로서 충만한 복음이 담겨있는 한 책을 주시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물론경에는 모든 남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구주의 속죄에 대한 언급은 그 목적과 권세에 있어 가장 명확한 기록입니다.

성령은 제 영혼에 조셉이 거룩한 숲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으며, 물론경이 참되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물론경에 담겨 있는 구주의 속죄에 관해 추가로 주어진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구주께 주어진 여러 칭호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 있는 사도 요한은 변형의 산에서 주의 장

엄함과 영광을 보았으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한복음 1:14; 또한 18절 참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칭호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부모로부터 죽음의 씨를 상속받는 필멸의 인간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필멸의 어머니와 불멸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받은 죽음의 씨는 그가 죽을 수 있음을 뜻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서 무한한 생명을 상속받은 그에게 죽음이란 자유 의사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요한복음 5:26)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0:17~18)

아버지에게서 받은 무한한 본성은 예수에게 속죄를 행하고, 모든 죄를 위해 고난을 겪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물론경에서 선지자 엘마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고통, 고난, 시험도 당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엘마는 또한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 죽음과 연약함도 지셨다고 설명합니다.(엘마서 7:11~13 참조) 따라서 그분은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 자기 백성을 ...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라고 엘마는 말했습니다.(엘마서 7:12)

선지자 아빈아다이는 “그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씨를 불지니라.”(모사이야서 15:10)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아빈아다이는 구주의 씨는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죄로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의 구주의 경험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마, 아빈아다이, 이사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저의 견해는 바뀌었습니다. 죄의 비정한 무게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히브리서 4:15)을 느끼시고, “우리의 짐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 우리의 죄악 때문

[예] (이사야 53:4~5) 상함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는 예수께서 우리 한명 한명을 어떻게 도우실 지 알리고 체험하신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값진 진주는 모세가 땅의 주민들 모두를 보았으며, 그 수가 “바닷가 모래와 같이 무수”(모세서 1:28) 했다고 가르칩니다. 모세가 모든 영혼을 보았다면,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은 더욱 이치에 닿는 듯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으며 저의 고통과 고난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분께서는 단지 우리를 아시기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한 라틴 아메리카의 젊은 여인에게 회복에 대한 증거를 주었을 때, 그녀가 자신이 우주의 한 티끌 이상의 존재임을 불현듯 깨닫게 된 이유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자신이 그분의 딸이며, 그분께서 자신을 알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선교사들이 내 일본인 친구를 가르쳤을 때, 그리고 성령이 지상에서의 그의 목적과 잠재력을 확인해 주었을 때, 구원의 계획이 그에게 친숙하게 느껴졌던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우리 모두를 위한 모형임을 간증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좋은 소식, 즉 시간을 초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속죄의 권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복음이 베드로가 말한 “만물의 회복”임을 간증드립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오늘날 주님의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쉐릴 시 램트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경전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께서는 최근 우리에게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몰몬경을 다 읽도록 권유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인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한번 읽으면서, 몰몬경을 전에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속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니파이후서 4장 15절에 있는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몰몬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지식에 주리고 목 말라 하는 것에 대해 생각적은 있지만 경전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경전에서 얻는 것들이 자신의 준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의 자신의 위치, 제가 겪는 경험들, 그리고 태도, 이 모두가 제가 경전을 통해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경전을 사랑하며 경전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진리를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격려와 지도, 위로와 힘,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는 해답을 얻으면서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삶은 더욱 밝게 보이고, 제 앞에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합니다. 확실히 경전은 제게 있어서 기쁨과 같은 존재입니다. 해님반의 어린 소년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경전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둘째,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저는 마음속 깊이 얼마나 경전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읽은 내용의 영은 제게 남아 화평과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얻은 지식은 저를 인도하는 지침이 됩니다. 저는 순종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얻습니다.

때때로 저는 경전에 푹 빠지는 사치를 누리곤 합니다. 가끔은 잠깐씩 읽을 때도 있지만 어느 곳을 읽거나 언제 읽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제 마음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경전을 읽음으로써 온종일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낮에는 대개 제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응답과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밤에 읽을 때는 주님의 감미롭고 위안을 주는 메시지가 쉬고 있는 저의 잠재 의식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잠들기 직전에 읽은 낱말들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밤중에 잠이 깬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의 정신은 낮 동안 여러 장소에 갈 수 있지만 제 마음은 확실히 경전에서 발견한 주님의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고 이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잠언 23:7)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상고할 때 제게는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분께 봉사하기를 갈망하며 경전에서 배운 원리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저의 마음은 “[제]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 [경전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물론 저는 니파이처럼 경전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경전을 읽고 배운 원리대로 살 때, 그 경전 구절들은 제 삶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구절들은 제 행동을 다스리며, 제 자녀들이 보고 따르도록 생활에 기록됩니다. 저는 경전에서 배운 원리에 바탕을 둔 의로운 삶의 전통과 유산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서 불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조상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

경전을 읽음으로써 저는 자신과 가족을 축복할 “빛과 진리”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행할지를 알 때, 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면서 “전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모범은 자녀가 빛나가도록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경전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노래를 좋아합니다.

경전을 읽기 좋아하니 난 항상 읽지요.
내 마음 속에 경전 참됨을

증거하는 간증 자라네
경전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영의 인도로써 경전이 참됨을 알리라.¹

저는 경전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간증을 얻고자 할 때 뿐만 아니라 경전을 읽으면서 영을 지니고자 기도할 때, 더욱 더 영에 민감해지면서 훨씬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인생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그 과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경전은 제 삶에 기록됩니다.

경전을 읽을 때 우리는 구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거룩한 책들의 구절 속에 생생하게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구주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들입니까! 경전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부

모 여러분, 가족을 불러모아 함께 경전을 읽고, 가족의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그 일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경전을 공부하지는 부름을 받을 때 재빨리, 기꺼이 응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권고도 하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얻게 될 약속도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더욱 충만한 주님의 영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을 약속하셨습니다.”²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도전이 되는 훌륭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딸(그녀에게는 세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전 그 말씀대로 몰몬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들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 약속들은 제 인생의 바로 이 시점에서 제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이러한 축복들입니까? 그 축복들은 손만 내밀면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으로선 선지자를 따르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가족으로서 우리의 축복을 요구합니다. 힝클리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회장님의 음성을 들었고 회장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전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오늘날 우리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의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주

1. “경전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어린이 노래책*, 66쪽.
2.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회복된 진리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아버지의 구원 및 행복의 계획[은] ... [여러분이] 삶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증가하는 자연 재해 및 인재의 결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영적 인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을 봅니다. 영적 인도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신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의 결과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창조주를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빠지는 세상의 상황, 격심한 개인적 어려움 및 재해로 인해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적 양식을 구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육신을 입고 지상에 태어날 때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해했습니다. 인생의

주요 목적이 설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즉 전세에서 순종한]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¹

그러한 말씀은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말해 줍니다. 그 목적이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입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 능력 및 모든 합당한 특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구되는 모든 의식을 받고 필요로 하는 모든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구성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 약속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필멸의 삶의 도전과 기회를 잘 사용하여 결국 승리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련과 행복의 기간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험 받고 성장하는 필멸의 기간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여러분은 필멸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부딪치게 될 상황에 대해 배우고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용감하고 순종하는 영의 자녀들과 선지자와 권한을 부여 받은 다른 종들 중에서 그분의 신권을 지니고

그분의 진리를 배워 인도 받아 그 진리를 지상의 그분 자녀들에게 전파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고를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권리, 즉 도덕적 선택의지를 각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격려를 받지만 순종을 강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결정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율법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약속된 가장 풍성한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자신의 능력 밖의 이유로 지상에서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면, 내세에서 보상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유효한 시험이 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전세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이 지워질 것이지만 생활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는 이생에서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루시퍼 또는 사탄으로 알고 있는, 뛰어나지만 사악한 영의 선동에 의해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모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 조건에 대해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큰 설득력이 있어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 삼분의 일이 사탄을 따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성장할 놀라운 기회와 육신을 입는 중대한 이점을 잃었습니다. 각 자녀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세상적이 되며, 그분의 선지자들의 간증과 가르침을 거부할 것을 아셨습니다. 배도라 불리는 상태에서 영적 암흑이 진리의 빛을 대신하였습니다. 진리가 도입되고 죄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실될 때까지의 기간을 경륜의 시대라 부릅니다. 연이은 경륜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자들을 위해, 또는 지상에서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그러한 인도가 올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빛과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진리와 오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자 영향력이며, 그것을 따를 때 성신의 보다 명확한 인도와 영감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사람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범법이 성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만 적절한 회개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성약이 있는 적절한 의식을 받고 충실하게 남은 순종하는 자들이 해의 영광을 상속 받고, 아버지와 그분 아들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 진리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가르침 및 인생의 목적에 대해 크게 혼동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분은 어떻게 진리와 그분의 뜻을 전달하여 충실하고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

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계획을 시종일관 지키셨습니다. 아담은 아버지의 계획을 자녀 및 후손들과 힘써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신성한 은사를 사용하여 그분의 가르침과 복음을 거절하기로 택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가르침과 의식을 왜곡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리의 빛이 영적 암흑으로 대체되었고, 신권과 참된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상실되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경륜의 시대를 위해 진리를 새롭게 했지만 한동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을 거부했습니다.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회복하고, 사랑



과 연민으로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및 선지자들과 함께 그분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기 위해 격심한 고통을 받으며 그분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활하셔서 육체적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의 희생은 회개하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위한 자격을 갖게 하는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분의 사도들과 교회 회원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지구는 극도의 영적 암흑으로 덮인 장기간의 두려운 시대로 가라앉았습니다.

경전에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이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몸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신 신성하고 특별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귀하고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준비된 비범한 영으로, 어린 조셉 스미스 이세였습니다. 그는 지상에 보내진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계속 전해주시는 계시로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추가적인 경전과 함께 바로 신권 권세의 회복, 구주가 세우신 교회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진리를 분명하게 하시고, 영적 암흑의 짙은 구름을 흩어 없애며, 그분의 참된 정체성을 세우고, 충만한 진리를 회복시키며, 안전하고 영적인 인도를 얻는 유일한 길을 제공하기 위해 광대한 창조물로부터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이 중대한 회복은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단순한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² 진리와 신권과 성스러운 의식, 아버지의 구원 및 행복의 계획을 가진 참된 교회의 회복이 뒤따랐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것은 삶에 따르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신앙과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신성한 영적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원은 세상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갈

힘을 전해줄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이 전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문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약과 신약성서의 선지자들이 미리 이야기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지구를 위해 복음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세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모으고,³ 왕국의 모든 열쇠를 맡기며,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전해진 지식을 회복하기 위해 오실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난 것을 믿기 어려울 것 같아 아셨던 구주께서는 회복의 참됨을 확립하기 위해 실제적인 증거로 물몬경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실재를 입증하는 방법이 물몬경 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를 추가로 주셨습니다. 그 조셉 스미스의 많은 성역이 구주, 즉 그분의 속죄와 교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귀중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전세계 곳곳에서 전파되어 온 반면, 사탄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도록 또는 잘못된 장소에서 찾도록 부추기는 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다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자신들의 아버지와 필멸의 삶의 목적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을 생각하거나 그들이 이 필멸의 세상에 있는 목적을 거의 숙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수적인 것으로부터 그들을 혼란 시키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의 실재나 진리에 대한 어렵듯한 이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들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활할 때, 그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지상 생활의 목적을 깨닫도록 도와시고,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여러분을 강화시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들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들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해는 교리에 대한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가장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7월에 핑클리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께서 모든 회원들에게 금년 말까지 몰몬경을 읽도록 권고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분들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몰몬경을 읽는 분들은 그 축복으로 주님의 영을 더욱 풍성히 받게 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⁵ 저는 그 약속을 제 자신의 생활에서 시험하고 증명해 보았으며 그것의 참됨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권고에 순종했다면 제가 뜻하는 바를 알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몰몬경에 담긴 진리를 상고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십시오. 구주께서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제가 설명해 드린 회복을 가져오셨고, 그것은 진리의 찬란한 빛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다시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참된 본질이 다시 계시되었으며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분명하게 설명되었음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실로 그것을 추구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간증드립니다.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 그에 따라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3:24~26.
2. 조셉 스미스-역사 1:17.
3. 에베소서 1:10.
4. 교리와 성약 128:18~21 참조.
5. 대관장단 서한, 2005년 7월 25일자 참조.

용서

고든 비 핑클리 회장

사랑과 관용을 동반한 용서는 놀랍게도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 생명을 연장하시어 이 어려운 시대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립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심을 그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분의 충실한 백성에게 봉사하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최근 세계 곳곳을 4만 킬로미터 이상 여행하며 알래스카, 러시아, 한국, 타이완, 홍콩, 인도, 케냐,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으며, 마지막 방문지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새로운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그런 다음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다시 16,000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또다른 성전의 헌납을 위해 사모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주님 사업의 신성에 대해 간증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읽었던 한 시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입니다.

“길가의 집에 살도록 해 주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이,
나처럼 좋고 나쁜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다고
길가의 집에 살면서

사람에게 친구가 되도록 해 주오.

(Sam Walter Foss, “The House by the Side of the Road”, in James Dalton Morrison, ed.,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 [1948년], 422쪽)

제가 바로 그렇게 느낍니다.

나이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 줍니다. 이는 사람에게 친절과 선함과 오래 참음에 대한 필요성을 더 알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이 전쟁과 다툼, 논쟁이나 갈등 없이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구속주의 위대한 속죄의 의미에 대해, 그분의 희생의 깊이에 대해, 우리를 살리려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분명 가장 필요한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열함과 학대, 편협과 증오가 너무도 많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필요성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그것은 고대나 현대의 모든 경전에서 강조되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신성한 모든 경전을 통틀어 보아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끔씩 이 이야기를 읽고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흥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

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누가복음 15:14~21)

이에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게 했으며, 다른 아들이 불평할 때 아버지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32절)고 말했습니다.

잘못이 있는 다음에 회개가 오고, 용서가 따르고, 그런 다음 문자 그대로 잃은 바 되었던 사람을 찾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비와 용서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마셜 안(Marshall Plan)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원조를 통해 유럽의 재건을 도왔습니다.

이 전쟁 이후 저는 일본에서 커다란 철광소를 보았는데 그것은 과거 일본의 적이었던 미국에서 온 돈으로 지은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적을 위한 관대한 나라의 용서로 인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나은 곳이 됩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악하게

이용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38~44)

이것은 매우 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우리 각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는 그분을 곤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 듯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한복음 8:6~11)

구주께서는 용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이사야 1:16~18)

구주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외치실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니라.”(교리와 성약 64:9~10)

주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 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우리 시대에는 기꺼이 용서하고 잊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은 울고, 아내는 눈물짓습니다. 아버지와 남편들이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작은 단점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이나 행동에 있어 세세한 모든 잘못을 크게 과장해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데저렛 모닝 뉴스(Deseret Morning News)*에 제이 이븐슨이 쓴 컬럼을 오려 놓았습니다. 그의 허락을 얻어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십대 청소년이 질주하는 차에서 당신 차의 전면 유리로 약 9킬로그램의 냉동 칠면조를 던지기로 작정했다면 그에 대해 어떤 느낌



이 들겠는가? 찢긴 얼굴을 봉합하기 위해 금속 판과 다른 기구를 사용한 여섯 시간의 수술을 견뎌낸 후,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해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나마 죽지 않아서, 또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당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또한 당신을 공격한 사람과 그 일당이 애당초 칠면조를 갖고 있던 이유가 훔친 신용 카드로 그저 재미 삼아 흥청망청 물건을 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

“이러한 것이 바로 범죄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약속한 정치가들이 선출되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입법자들이 냉동 조류를 범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가하는 최초의 법안 제출자가 되려는 다템에서 서로 경쟁하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일이다.

“뉴욕 타임즈는 이것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처벌도 충분히 가혹하다고 느끼지 않는 종류의 범죄라고 말하는 지방 검사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죽음조차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바로 그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그토록 보기 드문 일이 된 것이다. 한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의 전 관리자였던 44세의 피해자 빅토리아 루블로는 그 어떤 종류의 보복도 요구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해자인 19세의 라이언 쿠싱의 인생을 구제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그 청년과 그의 생활, 그의 성장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검찰관들을 성가시게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감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쿠싱이 감형을 받을 경우 지역 형무소에서 여섯 달을 복역하고 5년 집행 유예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장 적절한 죄목인 일급으로 선고를 받았다면, 그는 25년을 복역하고 중년의 나이에 아무런 기술이나 전망도 없이 사회로 돌아와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그 날 법정에서 벌어진 나머지가말로 정말 놀라운 부분이다.

“뉴욕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쿠싱은 재판실에서 조심스럽게 머뭇거리며 루블로가 앉아있는 자리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말을 속삭였다.

“그 다음 루블로가 일어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껴안고 울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흐느낄 때 그의 등을 두드렸으며, 타임즈 기사를 비롯하여 증인들은 그녀가 ‘난 괜찮아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기사에 따르면 완고한 검사, 심지어는 기자들 까지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Forgiveness Has Power to Change Future”, *Deseret Morning News*, 2005년 8월 21일, AA3쪽)

얼마나 훌륭한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그것도 험악한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 훌륭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젊은이를 용서한 이 여성에 대해 그 누가 찬사 이외의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묘하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투옥되어야만 하는 포악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계획적 살인 및 강간과 같이,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한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감옥에서 보내는 허송세월에서 구제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과 관용을 동반한 용서는 놀랍게도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위대한 속죄는 용서의 최고 행위였습니다. 그 속죄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곤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뿐입니다. 구주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릴 때 그 고난이 너무 크고 고뇌가 너무 격렬하여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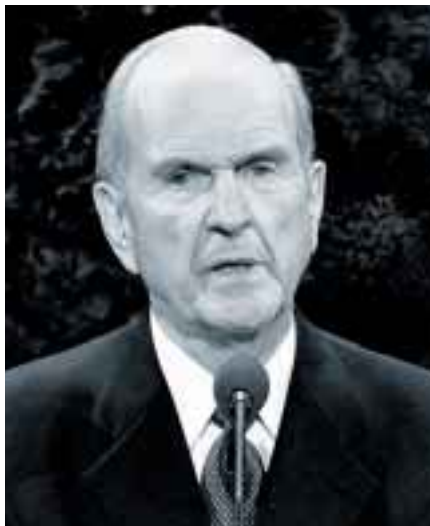
우리가 용서를 얻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온 인류에게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과 함께 구원의 축복이 허락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승영과 영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분, 또한 그분의 위대하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좀 더 친절해져서 보다 큰 관용을 보이고, 보다 많이 용서하고, 보다 기꺼이 십리를 더 동행하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들어올리고, 오래된 악감정을 잊고 그러한 감정을 더 이상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구속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 드립니다. 아멘. ■

예수 그리스도 - 위대하신 치유자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앙, 회개, 침례, 간증, 끝까지 견디는 개종이 주님의 치유 능력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관리 직원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선하심, 후한 친절,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을 겪습니다. 좋은 시간이거나 힘든 시간이거나 주님은 우리 각자가 끝까지 견딜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함께 전진할 때, 총관리 직원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사려 깊은 생각과 관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하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하

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에 찬 친절과 그분께 오라고 하시는 열려있는 권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¹ 저는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치유 능력에 놀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치유자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생애를 특징짓는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위대하신 여호와, 약속된 임마누엘,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 아버지께 대한 증보자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정의롭고 자비로운 재판관이신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²

치유의 기적

위대하신 치유자, 예수께서는 그분의 친구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³났다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⁴ 마가복음,⁵ 누가복음⁶ 및 요한복음⁷은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셨음을 여러 차례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구속주께서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⁸들은 그분

에게 나아와 고침을 받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병자를 치유하는 그분의 신성한 권세는 앞서 온 여러 경륜의 시대에 신권 소유자들에게 부여되었으며⁹ 다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경륜의 시대에는 그분의 복음이 충만하게 회복됩니다.¹⁰

치유에 관한 기도의 영향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 그분의 치유의 능력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카밀라와 함께 경험했던 일을 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큰 대회에 참석 하고자 뉴질랜드 해밀턴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저는 총관리 역원이 아니었습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이 모임과 다른 태평양 제도에서 있었던 비슷한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또한 의사로서 김볼 회장님과 자매님을 여러 해 동안 보살펴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위한 토요일 저녁 문화의 밤 프로그램이 지역의 교회 젊은이들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예석하게도, 김볼 회장님 부부께서 모두 고열로 몹시 편찮으셨습니다. 신권 축복을 받으신 뒤, 그분들은 근처에 있는 뉴질랜드 성전 회장님 댁에서 쉬셨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보좌인 엔 엘덴 태너 회장님에게 문화의 밤 행사를 감리하고 김볼 회장님 부부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태너 회장님과 자매님,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행사장으로 갔으며, 반면 김볼 회장님의 비서인 디 아더 헤이록 형제와 저는 고열로 고생하는 두 분을 돌보았습니다.

김볼 회장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저는 그의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김볼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형제님, 이 문화의 밤 행사가 몇 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죠?”

“일곱 시입니다. 회장님.”

“지금 몇 시입니까?”



“일곱 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볼 회장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볼 자매에게 우리가 그곳에 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김볼 회장의 체온을 재어봤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자매님의 체온도 재어보았습니다. 그분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급히 옷을 입고는 차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 대학교의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차가 경기장으로 들어서자, 일제히 매우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우리가 자리에 앉은 뒤, 저는 벨슨 자매에게 잡자기 터져 나온 환호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태너 회장님께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김볼 회장과 자매님이 불편하셔서 참석할 수 없다는 양해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뉴질랜드 젊은이가 기도를 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큰 신앙을 갖고 벨슨 자매가 묘사한 바와 같이 다소 긴 그러나 강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뉴질랜드에 있는 3,000명의 젊은이들입니다. 지난 6개월 간 당신의 선지자를 위해 노래와 무용을 준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분을 고쳐주시고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야멘”이라고 말한 직후, 김볼 회장님과 자매님이 탄 차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알아보고, 모두가 동시에 기쁨의 합성을 질렀습니다.¹¹

저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그분의 살아 계신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그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따금, 우리의 가장 열렬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건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그러한 순간에 느끼는 두려움과 눈물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묵과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이 우리 시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멸의 문제와 고통만을 아는 반면, 그분은 우리의 불멸의 발전과 잠재력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인내와 용기를 갖고 그분의 뜻에 따를 때, 하늘의 치유는 그분의 방법과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를 향한 단계

고통은 육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인으로도 옵니다. 얼마 이세는 그의 죄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 받으려, … 하나님의 면전에 이끌려 나가 서지 않도록, …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¹²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온전히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의의 아들”¹³이 그분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의 성역 초기에 자신이 “마

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¹⁴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그 방식이 일치했습니다. 그분께서 각기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하신 네 번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방식을 살펴 보십시오.

- 주님은 성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¹⁵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고대 미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라”¹⁶

- 그분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 할 것임이리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낫게 하지 않을지, …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¹⁷

- 후에, “만물을 회복”¹⁸하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개척자들에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혹과 많은 환난 후에 보라, 나 주는 그들을 살펴보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목을 뻗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돌이키게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낫게 하리라.”¹⁹

그 방식의 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 회개, 침례, 간증, 끝까지 견디는 개종이 주님의 치유 능력으로 이끌어줍니다. 침례는 성약의 행동으로, 결심과 약속의 표시입니다. 간증은 성신이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때 커 갑니다. 참된 간증은 신앙을 키우고, 회개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진척시킵니다. 간증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열의를 만들어냅니다.²⁰ 개종은 “더불어 돌아서다”²¹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종은 세상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아서서 주님의 방법과 더불어 머무는 것입니다. 개종에는 회개와 순종이 포함됩니다. 개종은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²² 그러므로, 참된 개종자는 “거듭나”는 것이며,²³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²⁴

우리는 참된 개종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²⁵ 그분께서 우리에게 되기 원하는²⁶ 인물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신성한 용서를 가져오는 죄사함은 영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참으로 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침례를 받는데 전제가 되는 개종 요건을 충실히 지키는지 측정합니다.²⁷ 또 다른 테스트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지 측정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²⁸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강화하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치유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분의 치유의 규모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²⁹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위대한 치유자만이 세상의 죄를 제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진 빛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큼니다.

저는 한 그룹의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경험했던 바를 잘 기억합니다. 질문이 있느냐고 묻자, 한 장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토록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저는 그 장로에게 찬송가를 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있는 가사를 읽도록 했습니다.

“주 하나님 귀하신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보내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속죄하셨네.”³⁰

그런 다음 저는 이 장로에게 “경건하고 겸



손히”에 있는 가사를 읽게 했습니다. 이 가사는 주님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특별히 애절합니다.

“경건하고 겸손히 네 머리를 숙이고
대속 받은 자들아 너의 주 생각하라
고통 중에 흘린 땀 비와 같이 흘린 피
십자가에 달린 나
너를 대속하였네 ...

“갈보리 십자가에
죄인 속죄하려고
죽음 당한 그 뜻을
너는 기억하여라”³¹

예수께서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깊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비통에 잠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로 그 순간³²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평안³³과 위안³⁴을 주실 것입니다. 그 훌륭한 은사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치유의 가장 완전한 행위

부활의 은사는 주님의 치유를 완결 짓는 가장 완전한 은사입니다. 그분 덕분에 각 육신은 온전하고 완전한 형태로 회복될 것입니다.³⁵ 그분 덕분에 어떠한 상황도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 덕분에 현재와 내 세에서 더 밝은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슬픔 저편에서 우리 개개인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위대한 치유자라는 것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11:28~30, 참으로 그의 멍에는 가볍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2. 러셀 엠 넬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우리의 주님이며 그 이상의 분이심, 리야호나, 2000년 4월호, 4~19쪽 참조.
3. 누가복음 7:22.
4. 마태복음 4:23; 8:1~3, 5~13, 16~17; 9:1~8, 32~35; 12:15; 14:14, 34~36; 15:29~31 참조.
5. 마가복음 1:32~34, 40~45; 2:~112; 6:53~56; 7:31~37 참조.
6. 누가복음 4:40~41; 5:12~15, 17~26; 7:1~10; 11:14; 22:50~51 참조.
7. 요한복음 4:47~53 참조.
8. 제3니파이 17:7.
9. 마태복음 10:5~8; 마가복음 16:17; 누가복음 10:17; 제4 니파이 1:5.
10. 교리와 성약 84:65~70 참조.
11. 스펜서 제이 콘디, *Russell M. Nelson: Father, Surgeon, Apostle*(2003년), 172~174쪽.
12. 앨마서 36:15.
13. 제3니파이 25:2; 또한 말라기 4:2 참조.
14. 누가복음 4:18; 또한 이사야 61:1 참조.
15. 마태복음 13:15; 또한 이사야 6:10; 요한복음 12:40; 사도행전 28:27 참조.
16. 제3니파이 9:13.
17. 제3니파이 18:32.
18. 사도행전 3:21.
19. 교리와 성약 112:13; 또한 교리와 성약 124:104 참조.
20. 것처럼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누가복음 10:27)
21. *개종(Conversion)*은 라틴어의 두 어원, 즉, "더불어(with)"를 의미하는 *con*과 "돌아서다(to turn)"를 의미하는 *vertere*에서 왔다.
22. 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12~14 참조
23. 요한복음 3:3~7; 베드로전서 1:23; 모사이야서 27:24~26; 앨마서 5:49; 7:14; 모세서 6:59; 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6:62 참조.
24. 로마서 6:3~4 참조.
25. 모사이야서 5:2~5 참조.
26. 제3니파이 27:21, 27 참조.
27.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모사이야서 18:10.
28. 누가복음 22:32.
29.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29.
30. 찬송가 5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시편 8:3~9; 9:1~2; 모사이야서 4:5~13 참조.
31. 찬송가(영문), 185장; 또한 교성 19:16~19; 45:3~5 참조.
32.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찬송가 76장, 3절 참조.
33. 요한복음 14:27 참조.
34. 이사야 40:1; 요한복음 14:16~17, 26 참조.
35. 앨마서 11:43; 40:23 참조.

회복과 재림을 위한 준비: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의 손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회복의 사업을 주관해 왔으며 재림하실 때까지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예입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세상에 증거합니다. 우리 구주의 지시에 따라

그가 이 일을 행했으니 구주께서는 한 옛 선지자에게 "내 이름은 여호와이니, 나는 시작부터 끝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

저는 복음의 회복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회복의 기초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감 받은 희생을 통해서 놓여졌으며 세상은 현재 우리 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아담을 시작으로 하여 처음 지상에 확립되었고 각 경륜의 시대마다 예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졌습니다. 이들 각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들은 성취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참으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신권을 확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



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도록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며 이리하여 속죄의 희생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책임에 충실하다가 박해를 받았으며 몇몇은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신권의 권세는 더 이상 지상에 있지 않았고 세상은 영적인 암흑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지녔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며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만한 복음은 상실되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주는 것과 성전의 구원 의식과 같은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권세와 권능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경전을 접할 수가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복음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경전을 읽을 수 있게 글을 배우도록 도와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 두 언어는 유럽 전역의 평범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후, 구

주께서 돌아가시고 약 400년 후에 성경은 제롬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여전히 널리 통용되지 못했습니다. 대개는 수도사들이 사본을 손으로 써서 만들어야 했고 사본 하나를 완성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배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르네상스 다시 말해 “재탄생”을 뜻하는 문예 부흥이 유럽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1300년대 말기에 존 위클리프라는 한 신부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어는 새롭게 떠오르는, 세련되지 못한 언어였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만일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면 성경의 교리들이 와전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다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경전을 접할 수 있게 되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위클리프는 이단자로 비난 받았고 따라서 이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어 매장된 후 그의 뼈들은 파헤쳐져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중단될 수 없었습

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라는 영감을 받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출판할 방법을 준비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1455년 경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기를 발명했고 성경은 그가 인쇄했던 최초의 책들 중 하나였습니다. 비로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많은 경전을 인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감은 탐험가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극동 지방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항해에 나섰습니다. 콜럼버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을 주셨으며 나중에는 용기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²

이러한 발명과 발견으로 추가로 공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1500년대 초기에, 젊은 윌리엄 틴데일은 옥스포드 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전이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야 한다.”³라고 믿은 성경 학자 에라스무스의 저서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틴데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자신들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독일의 한 사제이자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에서 잘못된 점 95가지를 찾아내어 자신의 상급자에게 담대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헨드리히 쾰리글리가 67개 개혁 조항들을 인쇄했습니다. 스위스의 존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윌리엄 틴데일은 사제 교육을 받았고 8개 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라틴어에서 번역된 위클리프역 영어 성경보다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직접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고 읽기에도 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틴데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교화되어 신약전서와 구약전서의 일부를 번역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이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그가 학식 있는 사람과 논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몇 년을 더 살게 하신다면 나는 들판에서 밭을 가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이오.”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틴데일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브뤼셀 근처에서 말뚝에 목매달려 화형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숨을 바친 믿음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틴데일이 평생 동안 가르쳤던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이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당장 매일매일 더욱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며 결국은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⁵는 것입니다.

요란한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교회와의 불화로 헨리 8세 국왕은 영국에서 자신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선포하고 영어판 성경책을 모든 교구의 교회에 비치해 둘 것을 명했습니다.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은 이들 교회로 몰려들었고 목이 설 때까지 경전을 서로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글읽기를 가르치는 기본 서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순교가 계속되었으나 무지의 암흑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설교자는 화형 당하기 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촛불을 밝히니 확신하건대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⁶

우리는 그 빛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던 영국과 유럽 전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국의 제임스 1세는 새로운 판의 공식 성경에 동의했습니다.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전서와 상당 부분의 구약전서(창세기부터 신명기가 담긴 모세 5경과 여호수아부터

역대)가 킹 제임스판에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추산됩니다.⁷ 머지 않아 이 킹 제임스판은 신대륙에 전해졌고 14세의 조셉 스미스라는 시골 소년이 이를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킹 제임스판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영어 성경이라는 것이 놀랄 만한 일입니까?

영국에서는 제임스의 아들 찰스 국왕 치하에서도 종교적 박해는 계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청교도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1620년 미국에 상륙했는데 이곳은 100여 년 전 콜럼버스가 탐험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다른 정착민들이 곧 뒤를 이었으며 이 중에는 로드 아일랜드 주를 세우고 후에 주지사가 되었던 로저 윌리엄스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지상에는 올바르게 설립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으며, 교회의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지닌 사람도 아무도 없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 새로운 사도들이 보내질 때까지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도들을 나는 갈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⁸

100여 년 후에 그 같은 종교적 느낌이 미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그들은 영감 받은 권리 장전으로 모든 시민을 위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14년 후, 1805년 12월 23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탄생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조셉은 종교라는 주제에 대해 “진지한 묵상에 잠겼습니다.”⁹ 그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옳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해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¹⁰라는 글을 읽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조셉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¹¹ 이 보잘것 없는 시골

소년은 고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그분의 신권을 이 후일에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이 회복은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있어야 했던 것으로, 이는 인간이 지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신권 축복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으로 그가 할 일은 지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개혁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었지만 상실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820년 첫번째 시현으로 시작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이 나오면서 계속되었습니다. 1823년 9월 21일, 조셉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고 모로나이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써 ...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¹²이 담겨 있는 한 고대의 기록에 대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판에 기록된 몰몬경은 성경이 거룩한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을 기록하고 있듯이 서반구에서의 그리스도의 성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셉은 4년 후에 그 금판들을 받아 1827년 12월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¹³

번역을 하던 중에 조셉 스미스와 그의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는 침례에 대해 읽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으로 인해 1829년 5월 15일 침례 요한의 손에 의해 아론 신권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¹⁴

이어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었고 이 신권은 열쇠를 소유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조셉과 올리버에게 주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영적인 암흑이 있는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성스러운 의식들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권능과 권세가 다시 지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830년 3월 26일에 몰몬경 초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4월 6일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이 후일에 뉴욕 주 페이엠티에 있는 피터 화이트머 1세의 집에서 다시 조직되었습니다. 이들 사건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팔리 피 프랫 장로



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해 솟아오르네.*¹⁵

기나긴 밤은 마침내 끝났고, 계시들이 시냇물처럼 흘러나와 추가로 경전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리와 성약을 1835년 8월 17일에 받아들였습니다. 값진 진주의 아브라함서에 대한 번역도 그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가 곧 주어졌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이 1836년 3월 27일 헌납되었습니다.¹⁶ 이 성전에서 구주께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 나타나셨고 그 후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가 나타나 선지자에게 추가로 신권의 열쇠를 주었습니다.¹⁷

이 복음의 빛은 지상으로부터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844년 조셉 스미스는 신권의 모든 열쇠들을 브리검 영과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그리고 그들의 동료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선지자는 “나는 이날까지 살아 그동안 내 어깨 위에 놓여졌던 이 짐이 다른 이들의 어깨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 왕국의 열쇠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지상에 확립되었도다. ... 나는 어찌 되

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습니다.¹⁸ 슬프게도 3개월 후 6월 27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은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서 순교했습니다.

선지자가 순교 당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 장로는 선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¹⁹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업이 구주의 사업임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에서 그 길은 반드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희생을 요구하며 우리는 역경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진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위클리프와 틴테일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길을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을 소개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서간 사람들처럼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용기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후일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그 거룩한 밤이 오기 전에 역사상의 사건들과 모든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주님의 첫번째 오심과 그분의 속죄를 위해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와 예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의 회복을 위해 기초를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건들과 예언들이 구주의 재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는 특별한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손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회복의 사업을 주관해 왔으며 재림하실 때까지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기를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2: 8.
2. 마크 이 피터슨, *The Great Prologue*(1975년), 29쪽에서 인용.
3. Benson Bobrick, *Wide as the Waters: The Story of the English Bible and the Revolution It Inspired*(2001년), 89쪽에서 인용.
4. S. Michael Wilcox, *Fire in the Bones: William Tyndale—Martyr, Father of the English Bible*(2004년), 47쪽에서 인용.
5. Wilcox, *Fire in the Bones*, xv에서 인용.
6. Bobrick, *Wide as the Waters*, 168쪽에서 인용; James E. Kiefer, *Biographical Sketches of Memorable Christians of the Past*, "Hugh Latimer, Bishop and Martyr", <http://justus.anglican.org/resources/bio/269.html> 또한 참조.
7. Wilcox, *Fire in the Bones*, 125~126쪽, 197쪽 참조; *Fox's Book of Martyrs*, William Byron Forbush, ed.(1926년), 181쪽.
8. William Cullen Bryant, ed., *Picturesque America: 또는 the Land We Live In*, 2 vols. (1872~1874), 1:500~502쪽 참조; 리그랜드 리차즈, *기이한 업적*, rev. ed.(1966년), 24쪽 또한 참조.
9. 조셉 스미스-역사 1:8.
10. 야고보서 1:5.
11. 조셉 스미스-역사 1:11~20절 참조.
12. 물문경, 소개.
13. 조셉 스미스-역사 1:27~62절 참조.
14.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조셉 스미스-역사 1:66~72; *매가 찬 시대의 교회사*, 2nd ed.(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년), 55쪽.
15.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16. 교리와 성약 109편 참조.
17.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18. *Deseret News*에서 윌포드 우드럽이 인용, 1869년 12월 21일, 2쪽.
19. 교리와 성약 135:3.

희생은 곧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고원용 장로
철십인

우리 모두가 기꺼이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에 필요한 신앙을 이루어 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Lectures on Faith* [1985년], 69쪽)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경전의 역사를 요약한다면 그것은 희생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에 관한 훌륭한 예를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엠몬아

이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엘마와 앰을 레크가 고통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불에 던져져 타 죽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엘마서 14:7~13 참조)

또한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아버지의 면전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그 누가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많은 개척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버릴 정도의 커다란 희생을 하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앙과 간증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성도들에 관한 많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상 생활에서의 작은 희생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경전을 매일 읽거나, 십일조를 내는 것들이 그런 작은 희생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과 결의가 없다면 이와 같은 희생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작은 희생을 바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더 많은 축복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베냐민 왕은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그에게 빛지고 있으며, 지금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 하리니,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모사 이야기 2:24)라고 말씀했으며, 그의 백성에게 그러했듯이, 베냐민 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함으로써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희생으로부터 가장 먼저 오는 축복은 우리가 그 희생을 치를 때 느끼게 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희생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생각이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축복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및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했던 성도들에게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여주었던 희생에 관해, 그리고 그들이 받은 기쁨과 축복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받았던 한국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은 일년 여전부터 이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한국 성도들, 즉 초등학교, 청년 청년, 독신 성인, 상호부조회 자매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회원들이 이 기념 행사를 위한 연습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화관무, 강강술래, 부채춤, 농악, 북춤 등 많은 전통 무용뿐 아니라 태권도, 연극, 댄스 스포츠, 뮤지컬, 애니메이션과 합창 등을 준비했습니다.

청남들이 내는 큰 목소리로 인해 이웃 사람들이 불평했고, 결국 연습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연습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합동 연습에 참여해야 했을 때, 이런 노력과 희생에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축복과, 이에 대한 자신들의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이 기념 행사를 위해 해외에서 아내 및 자녀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래 전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시간 및 금전적으로 또 다른 희생을 치렀고,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고, 참여했던 모든 기념 행사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한국 성도들과 그밖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힝클리 회장님 자신도 13일 동안의 세계일주를 위한 여정을 세우시는 큰 희생을 하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해 왔던 성도들을 만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친히 전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 다. 대신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생에서 오는 행복과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희생과 축복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희생은 우리의 시간 일정에 따라 올 수도 있으나, 축복은 우리 일정이 아니라 주님의 일정에 따라 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교리와

성약 64:33)

축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희생 자체가 축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조그마한 일에서 희생을 합시다.

줄린 눈을 비비며 물문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권고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기쁨을 느껴 봅시다. 돈을 써야 할 곳이 많으면서도 십일조를 낼 때,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칠 기회를 가졌다는 기쁨을 느껴 봅시다.

그러면 보다 커다란 축복이 우리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 같은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희생을 바칠 때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결국 우리는 그것이 전혀 희생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Becoming the Pure in Heart”, *Ensign*, 1985년 3월호, 5쪽).우리 모두가 가까이 희생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견디는 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약속된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 성약

폴 이 컬리커 장로
칠십인

복음의 성약을 지킴으로써 삶의 모든 일시적인 시련들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향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사랑과 경외심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주님의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의 성스러운 부름을 받으셨음을 간증합니다. 저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분을 지지합니다.

성전에서 결혼 성약을 통해 제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한 우아한 여성과 영원한 동반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봉사의 모범을 통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우리의 결혼으로 성실하며 힘이 넘치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갖는 축복을 받았으며, 우리 부부는 이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입니다.

제가 특히 축복 받았다고 느끼는 점은 저희 형제들이 성전 성약에 충실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시려는 의로운 부모에게서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신 점입니다. 저의 천사 같은 어머니께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고리와 복음 의식을 강하게 해주신 데 대해 오직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스러운 관계들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성스러운 성전에서 그들 하나 하나와 인봉된 결속의 성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느끼는 행복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성약을 지킴으로써 삶의 모든 일시적인 시련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성약에 충실할 때 모든 일들이 결국 잘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

“그러므로 나는 너희, 곧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바라노라.

“또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라.”(모사이야서 5:7~9)

성약을 맺는 일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약은 우리가 온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해 주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에 충실할 때, 그분은 결국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성약으로 맺거나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전서에서 악한 세상에서 겪은 노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성약에 대한 방식과 지구를 깨끗하게 하려는 주님의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 노아의 충실하고 확고한 결심으로 인해,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창세기 6:18; 7:5)

물은 줄어 들었고, 그들은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 에게 세우리니”(창세기 8:20; 9:8~9)

우리도 적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언의 약속과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71개의 새로

은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취입니다. 주님의 선지자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이 성취는 어떤 면에서는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는 일과도 같습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우리에게 주님과 성약을 맺을 수 있는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성약대로 살려는 우리의 노력은 종종 어느 정도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이 희생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결정합니다. 희생의 방식에는 때로 시련의 시기를 맞아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를 평가하고 되새겨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결정은 항상 명확하거나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힘든 싸움에서 벗어나, 우리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이해의 수준으로 들어올려집니다. 이 과정은 때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 중대한 비극이나 도전을 경험하게 될 때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솔트레이크시티 동쪽 산에서 열린 소년단 야영에 참가했다가 낙뢰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비탄과 슬픔에 빠진 그의 부모는 마음 깊이 고뇌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적이었고, 신앙이 강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그들은 이 일의 결과를 분노 없이 받아들일겠다는 부드러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한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이 맺은 성약을 기억했습니다. 갑작스런 상실로부터 여전히 고통을 느끼긴 했지만, 자신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성약에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서 반드시 아들과 기쁨에 넘치는 재회를 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성약을 맺는 것은 노아의 시대와는 다른 견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성약을 맺을 책임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아서 성약을 맺고 합당하게 복음 의식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줄 책임도 받았습시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업은 주님이 임명하신 하늘의 군대와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죽은 자들에 관한 시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입히시고 그들로 나아가 ...

“내가 보니,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은 필멸의 생을 떠날 때 ... 회개와 ...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수고를 계속하더라.”(교리와 성약 138:30, 57)

경전은 또한 우리에게 사자들에게는 “육체로 있을 때 [구속주를 증거한 충실한 선지자들](교리와 성약 138:36)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자들 중에는 베드로, 바울, 엘마, 요한, 요셉, 니파이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미스 회장의 이 시현을 읽고, 이 일을 하도록 지명된 선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

다면, 우리 각자가 돌아가신 가족들의 이름을 찾고 모든 성전에서 가능한 모든 시간을 쓰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지키는 데 이 시현이 매우 큰 동기 부여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여가 시간을 따로 남겨 두어 더 많은 시간을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데 바치라는 제일회장단의 권고에 따르기 위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성전의 문으로 오라는 이 권유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신임 받는 부름에 봉사하는 기회에 겸손함을 느끼며 제가 주님과 맺은 성약에 따라 행동하고 영의 지시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저는 성전의 성약과 의식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제 결심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스러운 면전으로 이끄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나침반

로웰 엠 스노우 장로
칠십인

모든 시대에 걸쳐 선지자와 사도들은 주님께에서 온 나침반입니다.
그들을 통한 그분의 지침은 명백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며 또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드리고자 하는 큰 소망을 느낍니다. 총관리 역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산에 오르는 것을 즐깁니다. 깊은 오지로 들어가게 되면 저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나침반과 지도, 그리고 표지를 종종 사용합니다. 이런 도구들은 매우 유용하며, 특히 경로를 따라 여러 방향으로 갈라진 미지의 길이나 오솔길을 만날 때면 귀중하기까지 합니다.

삶은 교차하는 많은 길과 오솔길로 가득합니다. 따라가야 할 길이 너무 많고, “여길 보

라”거나 “저길 보라”고 외치는 음성이 너무 많습니다.¹ 우리 삶에는 넘쳐 나는 다양하고 많은 대중 매체들이 있고, 그 대부분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넓은 길로 우리를 내몰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중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며, 여러 길 중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숙고하면서 조셉 스미스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음성과 길)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²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길에 표시를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여정에서 모든 지점을 명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곧고 좁으며, 빛과 생명과 끝없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³ 여러분들과 경전에서 한 예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리하이와 그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강 옆의 한 계곡에서 잠시 야영을 한 후, 주님께서는 어느 밤 리하이에게 광야로 여행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걱정거리가 있던 리하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장막문 밖으로 나왔을 때, 매우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그곳에 놓여질 수 있는 한 물건이 장막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로 리아호나라고 하는 나침반으로서, 그 지침은 그들의 여행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침반은 여행 경

로 가운데 번성하고, 더 비옥한 땅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진로를 그들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읽기 쉽고 분명한 글이 그 나침반 위에 나타났고 수시로 바뀌기까지 하여,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방법에 관해 보다 큰 이해를 전해 주었습니다.⁴

여행하는 동안, 이 리아호나 또는 나침반은 리하이 가족이 번성하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귀중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이 나침반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를 통해서만 작동되었다는 니파이의 관찰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이 신묘한 도구에 관해 니파이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심을 알게 되느니라.”⁵

니파이의 이런 결론은 500년 뒤 엘마가 그의 아들에게 리아호나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때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힐라맨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진로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나침반을 예비하셨으나, 그 기적적인 장치가 작은 수단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게을러지고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사하기를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신묘한 장치는 작동이 멈추었고, 그들은 그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곧은 진로로 여행하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며 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⁶

“오 내 아들이”, 엘마는 계속했습니다, “길이 쉬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말지니,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러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보면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음이니, 우리에게도 그러하다. 길은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볼진대 영원히 살리다. 또 이제 내 아들이, 주의하여 너는 이 거룩한 것들을 간수하라. 참으로 주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⁷

주님께서 리하이에게 그러하셨듯, 그분은 오늘날에도 개인과 가족들에게 인도와 지침을 주십니다. 바로 이 연차 대회가 현대판 리아호나로서, 우리를 번성케 하고 이 지상 생활 가

운데 좀더 비옥한 부분을 지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 주는 영감에 찬 인도와 지침을 받는 시간이자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전하실 말씀을 알기 위해 힘 있게 기도하고 주의 깊게 준비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또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르치도록 선지자와 사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분명 이 대회야말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며 장소인 것입니다.

이 대회의 가르침들은 주님의 나침반입니다. 며칠 뒤에 여러분은 아마 리하이가 그랬던 것처럼, 집 문을 나서면서 편지함에서 *리아호나*, *엔사인(Ensign)*, 또는 교회의 다른 출판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대회의 기록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리아호나*처럼 이 새로운 기록 또한 읽기 쉽고 분명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과 가족은 주님의 방법과 길에 관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와 엘마 모두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침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 우리 여행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이미 표시해 놓으신 길을 따라 충실히 그분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새로운 길을 밝혀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에서 그들이 나아가도록 돕는 새로운 기록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 길에 그들의 “행함과 말씀”을 표시하며 영감적인 권고를 부지런히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주는 번영이 찾아올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시대에 걸쳐 선지자와 사도들은 주님에게서 온 나침반입니다. 그들을 통한 그분의 지침은 명백합니다. 그들에게서 오는 항해 진로는 확실합니다. 그분의 길은, 그분의 명에처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 또는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그분의 길이 쉽다는 것에 현혹되기 보다는, 여러분이 주님처럼 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성스러운 것들을 소중히 살피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들이 모두 성취될 것이고, 길을 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지상에 보내셨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1820년 이른 봄 어느 맑고 아름다운 날 아침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이 지상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으며, 바라보고 영원히 살 사람들을 위해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오늘날 그 길을 가리키신다는 것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

다.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고 후기의 *리아호나*들이 주는 방향과 지침에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조셉 스미스-역사 1:5 참조.
2. 조셉 스미스-역사 1:10.
3.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95장.
4. 니파이전서 16:9~16 참조.
5. 니파이전서 16:29.
6. 엘마서 37:38~41 참조.
7. 엘마서 37:46~47.

“내 양을 먹이라”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사람들은 우리가 행할 부름을 갖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의 영향력을 잘 받아들입니다.



언젠가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¹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복리를 깊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현대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도 이같은 염려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은 십이사도 모두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일어나 너희 허리를 동이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나의 양을 먹이라.”²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구체적 필요 사항에 따라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좋은 한 예입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 근처에 계실 때, 회당장 아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군중으로 인해 빨리 가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아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심부름꾼이 와서 아이로에게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몹시 슬펐지만 아이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지켰으며,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³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와서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 질병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좌절을 느끼고 억압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양들

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 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영생으로 향하는 여행을 계속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필요성은 구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만큼,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목자로서 우리는 양 하나하나를 양육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인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와야 합니다.

모든 활동, 모임 또는 프로그램은 이같은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그들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고히 머물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고 그들이 끝까지 견디도록 돕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느라 서두르는 바람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사람들의 실제적 필요 사항을 그만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신의 부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사람들을 소홀히 하며,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신성한 잠재력에 이르는 것을 막게 됩니다.

제 열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저의 감독님은 접견을 하자고 하시고 제게 아론 신권을 받아 집사에 성임될 준비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접견이 끝나갈 때, 그분은 책상에서 여러 장의 양식을 꺼내신 뒤 그것들을 기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겨우 열한 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제가 때가 되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려고 적절히 준비만 한다면 제 앞에 펼쳐질 장래와 그 축복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 대한 참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영적 준비 단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제가 열아홉 살이 될 때까지 일 년에 최소한 두 차례씩 접견을 하셨으

며, 준비에 충실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서류철에 저의 선교사 양식을 보관해 두셨고, 접견 때마다 그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도움과 친절하고 인내심 많은 감독님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신 축복에 대한 안목을 얻는 데 선교 사업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해 전부터 새로운 개종자 및 저활동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데 초점을 두라는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교회에 남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⁴

사람들은 우리가 행할 부름을 갖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의 영향력을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참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들은 영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지자 목몬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 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이다.”⁵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시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



고,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본질과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실 때조차 죄인을 책망치 않으시고 죄를 나무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양떼에 있는 각 양에게 이런 참된 사랑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⁶

구주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상에서의 사명을 성취하고,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21:16.
2. 교리와 성약 112:14.
3. 누가복음 8:50~52, 54~55; 또한 41~42, 49절 참조.
4. 요한복음 13:34~35.
5. 모로나이서 7:48.
6. 고린도전서 13:3~7, 13.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 우리를 들어올려 주는 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복음의 기본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모든 후기 성도들은 삶에서 능력과 힘과 영적인 자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제가 항공기 조종사로 일하던 시절에 이따금 승객들에게 보잉 747 비행기 조종석을 구경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

면 그들은 수많은 스위치, 계기, 시스템과 작동 절차, 그리고 그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항공기를 날수 있게 하는 데 이런 모든 기술 장비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이 그렇듯, 저는 승객들이 비행기의 복잡한 구조에 감명을 받고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일까 하며 놀라워 하는 상황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 얘기를 가로막고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종사들이란 본래 굉장히 겸손하게 태어나기 마련이죠.”

조종석을 찾는 승객들에게 저는 비행기 탑승객의 편안함과 안전을 도모하려면 거대한 공기 역학 설계, 수많은 보조 시스템과 프로그램, 그리고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강력한 추진력과 강력한 상승력이 있고 항공기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만 있으면 자연 법칙에 따라 747 항공기와 탑승객은 대륙과 대양을 횡단하고 높은 산을 넘어서 위험한 뇌우를 피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본 사항, 즉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기본 사항을 정립하고 실천한 다음,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실로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교회는 조직적인 체계와 프로그램을 모두 갖추어 놓고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을 제공하여 가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회원 서로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 교리와 원리보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자리잡는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직의 절차,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관행은 우리가 지상에서 영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그것들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교리와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본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모든 후기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능력과 힘과 영적인 자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 그러한 권능의 한 원리이며, 우리의 생활에서는 이러한 권능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지만, 권능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행사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서 2:20 참조) 그분은 자녀들의 신앙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Millennial Star*, Nov. 15, 1851년, 339쪽에서 존 테일러가 인용) 제게 이것은 멋있고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울

바른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자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다는 교회의 기본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도덕적 선택의지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에 버금가는 가장 큰 은사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도덕적 선택의지와 그에 따른 영원한 결과를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볼 때, 저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므로 선택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전세계의 위대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조직적인 구조는 우리의 회중 규모와 성장의 형태, 그리고 필요 사항에 따라 큰 융통성을 갖게 해줍니다. 조직적인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모임 수가 적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 조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와드에는 서로를 위해 봉사하기에 충분한 조직적인 자원이 갖춰져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 [도록] (모로나이서 10:32) 모든 것들이 교회의 영감 받은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선택 사항은 모두 동등하게 신성한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교리가 단위 조직 어디에서나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분은 살아 계시며, 이 복음은 참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지상에서 겪고 있는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집단적인 어려운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금년 여름 제 아내와 저는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의 교회 회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의 일부 국가에서는 교회가 1837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충실한 회원들의 유산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는 4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



다. 19세기와 20세기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세대들을 포함한다면 유럽의 총 회원 수는 현재의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초기 시절, 왜 그토록 많은 충실한 회원들이 고국을 떠났을까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서 교회를 건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보다 나은 경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서 등등 많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이주가 낳은 후유증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충실한 여러 세대의 교회 회원들이 남겨 놓은 영향은 지금도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즉 주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청소년과 부부의 수가 늘고 있고, 성전 결혼이 늘고 있으며, 회복된 복

음을 나누려는 회원들의 자신감과 용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백성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이 미치지 못한 영적인 공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회원들이 더 큰 용기와 신앙으로 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공백은 틀림없이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로 채워지고, 채워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교회가 확산되면서, 현재 교회가 들어간 지 15년도 채 안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는 회원이 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국인 러시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은 그 달에 지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

다.” 그는 이따금 벅차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이지요! 그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했을까요? 다행히 안 그랬습니다. 회원 수도 적은데, 단기간에 그가 강해진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은 복음의 교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입했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포근함과 신뢰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소수였지만 구주를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지하고, 최선을 다하며,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조직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었으며, 이 빛으로 인해 것처럼 훌륭한 회원들이 강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나라에서 아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때로는 조직적 환경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회원들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온전한 간증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회원들이 경제적 난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건설할 때, 미래의 세대들은 그토록 용기 있는 현대의 개척자들에게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회장단이 1999년도에 준 사랑에 찬 권고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대아말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성전을 늘리는 등 복음의 축복을 내려야 할 적기라고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회원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조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오래 전의 권고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

“전세계의 회원들이 자신의 고국에 남아 모국에서 교회를 세울 때, 회원 개인과 교회 전체에 커다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12월 1일)

규모가 큰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생활하는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간증의 중심은 교회의 사교적인 차원 또는 훌륭한 활동, 프로그램 및 와드와 스테이크의 조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



니다. 우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재난과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교리와 성약 115:6)가 될 곳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덕스러운 생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의로움에 있습니다.”(“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리야호나, 2002년 1월호, 105쪽)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주신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 이렇게 십이사도의 성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십이사도들이 성스러운 사업을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성구에서 구주는 친히 우리에게 삶의 기본 교리와 우선 순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먼저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능가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더 많이

닮으며, 그분의 성품에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우리의 삶과 성품에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구주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여 그분의 복음을 배울 것을 권고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올바른 원리를 적용한 다음 그에 따른 축복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나 그에 더하거나 덜해서도 안 되느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적용하여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이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생활을 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실천할 때 시험이 임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다시 말해서 우정, 취업, 사업 및 오락에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아들이나 딸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 우리의 발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욱 “[그분]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할”(교리와 성약 43:9) 때, 주위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발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평생 동안 키워야 할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성품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겸손, 사랑, 순종과 근면, 신앙과 소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품은 교회 단위 조직의 조직적인 상태, 경제적 형편, 가족 상황, 문화, 인종 또는 언어와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한 가지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값 없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한 권능, 예지 및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폐회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그 두 분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을 도구로 삼아 그분들의 사업을 회복하셨습니다.



신앙이 있을 때 행함이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계명이 주어진 까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구주를 더 많이 닮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그분의 속죄의 축복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키운다는 것은 공통이 따르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종들의 지시와 징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세계적인 대회를 통해서 “높은 곳”(교리와 성약 43:16)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지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적인 영감의 음성과 계시로 우리의 영혼에 평화를 채워 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때입니다. 이 음성은 사랑하는 친구의 음성처럼 달콤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넘칠 때 이 음성은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구주를 더 많이 닮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로마서 15:13)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교리와 성약 25:10)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공기 역학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 사항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기본 사항에 해당됩니다. 기본 사항은 우리를 들어올려 줄 힘을 낳는 근본 원리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차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키울 때, 그 성품은 “독수리 날개 위에 태우듯 우리를 받들어 줄”(교리와 성약 124:18)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동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낼 것이며, 우리의 흔들림 없는 간절한 소망은 강력한 상승력을 낳을 것이고, 신앙과 소망은 우리를 유혹의 바다를 건너 고난의 산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자 목적지에 우리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형 제 자매 여러분, 훌륭한 대회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식탁에 차려진 영적인 잔치였습니다. 음악과 기도와 말씀 모두가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고양되었으며,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80개 언어로 통역되어 우리의 메시지가 전세계에서 위성으로 방송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사실을 볼 때 교회가 성장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두는 1823년 9월 21일 밤에 모로니아가 소년 선지자에게 했던 말들이 맺은 멋진 결실입니다.

그는 당시 젊은 청년으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가난한 농촌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

던 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신 곳으로부터 ... 보내진 천사[며,] ... 하나님께서 [조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과] ...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조셉 스미스-역사 1:33)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조셉은 분명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기절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금년 2005년 12월 23일, 우리는 그를 기리는 큰 축하 행사로 그의 생일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교회의 제6대 회장이셨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일 세기 전인 1905년 12월 23일에 하신 일을 되풀이하기 위해 그의 출생지로 갈 예정입니다. 그 당시 그분은 선지자 조셉의 출생지를 표시하는 기념비를 헌납했으며, 그곳에는 기념비적인 작은 집도 지어졌습니다.

제가 버몬트에 있을 때, 몬슨 회장님과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다른 총관리役員들과 함께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계실 것입니다. 이 훌륭한 홀은 가득 찰 것이며, 프로그램은 인공위성으로 전세계에 널리 그리고 멀리 전해질 것입니다. [버몬트의] 사우스 로얄튼과 솔트레이크 시티 양쪽에서, 이 경륜의 시대의 위대한 선지



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적절한 음악과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합창단이 선지자를 찬양하기 위해 부른 합창은 12월에 있을 행사를 위한 무대 연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행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분 모두도 그 때 저희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전 해드립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구속주 이십니다. 그 두 분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을 도구로 삼아 그분들의 사업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엄숙하게 전 해드리며 여러분과 이 축복스러운 교회의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의 사랑과 축복을

남겨드립니다.

이제 모임을 마치면서 이 위대한 대회를 치 루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 해드립니다. 이 위대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분들, 즉 안내인, 기술자, 경비 요원, 응급 조치 요원, 교통 경찰, 통역사, 저희들의 말씀을 위해 수고하시고 재차 타자를 쳐주신 서기 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겸 손히 간구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겸손히 간구드리며 이 폐회 말씀을 성스럽고 거룩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

상 호부조회 총회 당시 상영된 비디오에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비디오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 에머 스미스, 루시 맥 스미스와 초기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붉은 벽돌 상점에서 모임을 갖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힝클리 회장: 나부라는 변방 도시에서 1842년 3월 17일에 18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160년이 지난 현재 전세계의 큰 대도시와 작은 촌락에까지 오백만 명이 넘는 회원을 두고 있는 상호부조회의 성장은 비범하고도 주목할만한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상호부조회를 성장시킨 요소들은 상호부조회 조직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에는 발벗고 나서서 공익을 추구하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지성과 재능을

발전시키려는 여성의 천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조셉 스미스가 여성들을 모아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이 “여성 조직은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자 함으로써, 즉 장애를 베풀 대상을 찾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형제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지역 사회의 도덕관을 바로잡고 미덕을 강화시켜 도움을 주도록 고무할 수 있습니다.”¹

힝클리 회장: 이 조직은 그 당시의 보잘 것 없는 출발로부터 시작하여, 제가 보기에 유사한 모든 조직 중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효과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첫 모임에서 에머 에이치 스미스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녀는 “각 회원이 선을 행하고자 갈망해야 한다”²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정신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을 행하고자 갈망해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 우리를 인도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에머 스미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 비범한 일들과 긴박한 요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³

조셉 스미스: “이 여성 조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즉 인도하도록 지명된 사람들을 [통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⁴

“여성이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주신 동정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원리들에 따라 생활하신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특권에 걸맞는 생활을 하신다면, 천사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못하도록 제지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싸움, 말다툼, 반박이 아니라 온유함, 사랑, 순수함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집에 가서 결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의 행실이 친절과 자애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과 미덕을 키우고 선량함을 키우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넓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의 결점과 잘못에 대해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니까? ...”

“저는 이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쇠를 건네드릴 것이며, 이 여성 조직의 여러분은 기뻐할 것이고, 이 시간부터 지식과 예지가 흘러내릴 것입니다. 이 여성 조직으로서 지금이 더 좋은 날의 시작인 것입니다.”⁵

힝클리 회장: “그러한 예언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가 지난 1세기 반의 역사를 거쳐 내려오는 동안 하나의 현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지자의 모친 루시 맥 스미스는 나부에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야기중인 남편 조셉에게 귀기울이는 영상 속의 에머 스미스.



당시의 고전 의상을 입은채 조셉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 역을 맡아 연기 중인 자매.

루시 맥 스미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서로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⁶

힐클리 회장: 이 단체의 역사는 그녀가 묘사한 것과 같은 활동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 하늘에 앉을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가면서 서로를 소중히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가르치면서 이 지상에서 천국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상호부조회 모임의 수많은 공과를 통한 효과적인 가르침과 배움으로 지식이 늘어나고, 시야가 확대되고, 삶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게 되었던 수백 만 여성들의 삶에 미친 기적적인 영향의 가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여성들이 함께 모여 외드나 지부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사귀고 감미롭고 소중한 우정 관계를 통해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할 때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온 기쁨을 그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더라도, 수많은 선한 행위들, 초라한 식탁에 놓여진 음식, 질병으로 겪었던 절망스러운 시기에 커진 신앙, 붕대로 감은 상처, 사랑의 손길과 조용한 위안의 말로써 누그러진 고통, 죽음과 그로 인한 외로움을 감싸주는 위안,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호부조회에 관해 언급하며 조셉 에프 스

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여성과 남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신성하게 만들어지고, 신성하게 승인되었으며, 신성하게 설립되고,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과 비교할 수 있는 ... 그리고 이 조직이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그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 먼저 [상호부조회]를 만드시고,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귀하게, 훌륭하게, 그리고 깊이있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그 일을 하도록 곧 최상이 되고, 가장 위대하게 되고, 가장 훌륭하게 되며, 가장 순결하고 또 권

리에 대해 가장 헌신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⁷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를 축복하십니다. 한 세기 반 이상 동안 이 조직의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온 사랑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세계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의 자선 행위가 펼쳐지는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영원토록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신성하게 세워진 이 특별한 조직으로 인해 빛과 이해력, 배움과 지식, 영원한 진리가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향후 세대 여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를 기원합니다. 상호부조회 여성 회원들 한명 한명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커다란 책임이며 축복임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앨마서 26:3) ■

주

1.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3월 17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7쪽.
2.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3월 17일, 13쪽.
3.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3월 17일, 12쪽.
4.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4월 28일, 40쪽.
5.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4월 28일, 38~40쪽.
6.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3월 24일, 18~19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184.



아프리카의 한 여성을 위로하는 본부 상호부조회의 보니 디 파킨 회장.

감미로운 순간들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의 목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라면, 감미로운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힝클리 회장님과, 그분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상호부조회를 축복하십니다.”¹라고 말씀하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자매들은 상호부조회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하게 설립된 이 조직에서 너무도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최근의 자연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자매님들에 대한 동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봉사를 하거나 받고 있는 의로운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봉사를 통해, 봉사를 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모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기에, 저는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과 저의 사랑, 그리고 많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42년에 상호부조

회가 따를 방향을 정하면서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성이 자애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 놓으신 연민의 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얼마나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²

초기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선지자 조셉에 의해 고무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큰 일을 이룰!”³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도구가 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것을 우리 마음의 “연민의 정에 따른”⁴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낀 감미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안과 용기를 줄 때 인도와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올바르게 하고 있는 일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일상 생활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선지자 조셉이 권고한 바와 같이 “여호와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부름 받을” 때, 저는 우리에게 나눌 것이 많을 것임을 압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윌리엄 더블류 팸리 장로님에게 23년간 본부 초

등회 회장으로 봉사한 그의 모친 라베른 팸리에 관한 추억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모친이 대회에서 말씀한 것이나 그녀가 수행했던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감미로웠던 순간의 하나로 열일곱 살이 되어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던 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모친과 함께 앉아서 모친이 단추 다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연령의 자녀들에게 있어 사소하고 단순한 행동들이 오랜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바느질을 가르칠 자녀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의 자매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류였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기혼자였고, 어떤 여성들은 독신이었으며, 또 더러는 미망인이었지만, 목적에 있어서 그들은 단합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을 때,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독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으며, 상호부조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랫동안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소중하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사랑과 힘과 관점과 간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힘과 인도를 구하기 위해 영에 의존하는 것을 배웠으므로 영에 가까이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 독신 자매인 신시아는 자신이 방문 교육을 맡은 한 자매에게 가 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집에 없었습니다. 신시아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 간호사가 심한 화상을 입은 두 명의 아이들과 병원 밖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간호사가 여자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신시아는 불현듯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4년 전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병원 잔디밭에서 다시 만난 그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치유되고 있었



지만, 가족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시아는 그 아이들을 방문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신시아는 집을 그리워하는 두 명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그녀가 독신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영에 귀기울였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에 귀기울이고 주님과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감미로운 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한 독신 자매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 저의 가치가 결혼 상태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성인으로서 제 삶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결혼 여부가 아닌 저의 영적 및 개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⁵

주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지 보십시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사랑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옵니다. 크리스틴은 대학원 과정을 끝내는 동안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졸업생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졸업식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만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문 업적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에게는 딱히 자신을 부를 만한 호칭도, 높은 지위도, 인상적인 직함도 없었습니다.” 실상가상으로 교수님은 각 학생들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하면서 그 목록을 읽으셨습니다. 크리스틴 앞의 여학생은 많은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박사 학위가 있었으며, 두 번째 석사 학위를 받는 것인 데다가, 한때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큰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틴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빈 종이를 교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교수는 그녀의 교사 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성과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백지를 보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틴은 모든 사회 집단에서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 강력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공언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가진 어머니입니다.” 예의로 보내는 약간의 박수 대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단 한 차례의 기립박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실에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신성한 책임을 지닌, 하나님 손 안의 도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의 친절하고 애정 깊은 손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잘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좀더 큰 자녀들을 둔 모든 어머니는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좌절도 하겠지만 많은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쁨을 찾으십시오. 네 명의 활동적인 아들을 키운 저는 도구가 되는 것

에 대해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시기의 활력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고, 행복하며, 친구들이 환영 받는 편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자녀들에게 경청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십대 시절의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외출 금지 시간을 정했으며 이들에게 성신도 자정에는 잠자리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오지 않았을 때, 성신은 몇 번 저에게 나가서 그들을 찾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에 대해 웃지만, 자녀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쉽게 웃을 수 있다고 시인합니다.

자녀들 가까이에서 계십시오. 함께 침대에 앉아서 늦은 밤의 대화를 즐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투쟁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하심과 부활에 대해 자주 간증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를 알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성장해서 떠나 있을 경우, 여러분이 독신이거나 혹은 이혼을 했거나 미망인일 경우, 여러분의 상황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속한 와드의 상호부조회 일요일 공과에서, 우리는 무엇이 훌륭한 결혼 생활을 만드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리사라는 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제가 계속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저의 성전 성약입니다.” 그 공과 후 저는 갓 독신성인이 된 몇몇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그 공과 중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사의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연로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고귀한 용모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인내 및 경험은 참으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의 놀라운 시어머니 메리는 90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



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시어머니가 무엇을 알고 계셨는지, 또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주택에서 사시는 동안 시어머니는 관리자에게 교회 예배 의식을 위해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센터는 특정 종교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는 시어머니에게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대답을 무시했습니다! 다른 연장자 자매님 몇 분과 함께 시어머니는 회사에서 방을 하나 제공해 줄 때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곧 지부가 조직되어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취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는 방법은 무수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늘 원하던 방문 교사가 되고, 독신성인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묻기보다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묻고, 쌓아두는 대신 나누어 주고, 웃, 언어, 오락의 종류를 신중하게 고르고, 자신들이 좌절과 두통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또는 자녀에게 미소 짓고,

청녀를 안아 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태도로 보여주십시오. 선지자 조셉은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특권에 맞게 생활한다면, 천사라도 여러분과의 교제를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⁶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가족, 상호부조회 및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큰 일을 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Instruments in the Hands of God*(2005년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상영된 비디오).
2.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4월 28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38쪽.
3. 알마서 26:3 .
4.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4월 28일, 34쪽.
5. 개인 서신
6.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4월 28일, 38쪽.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분의
사업을 하도록 사용됩니다.



자 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상호부조회 총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모일 때, 저는 최초의 상호부조회 모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이 자매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그들의 역할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저는 여성들의 마음의 기도들을 듣습니다. “저는 당신의 일을 하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당신의 손에 든 도구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인생은 우리 개개인이 그 도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루시 맥 스미스의 메시지를 사랑합니

다. 약하고 연로한 그녀는 나무에서 열린 초기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일어나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강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제가 오늘날 상호부조회에서 보는 바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피며, 서로를 위로하고,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¹

이 말씀은 자매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²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 누가 소중히 여겨지고, 보살핌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것들에 관해 배우길 원치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번의 친절, 한 번의 사랑 표현, 한 번의 사려 깊은 행동, 한 번의 기꺼운 손길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의 메시지는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아니라 매일 이러한 거룩함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영혼을 넓혀야 한다”³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애라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갖기 원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면, 즉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여성”이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화내고, 좌절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힐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든 도구가 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자세는 우리의 삶에 사랑을 지니고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즉, 성전에 가고, 금식을 하고, 경전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애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다면 우리는 자애를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린 후 제가 본인들 모르게 그들에 대해 자애롭지 못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주님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자애라는 덕목을 항상 갖춘다는 것은 평생 노력해야 하지만, 사랑이 담긴 모든 행동은 우리와 그러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최근에 만난 한 젊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십대인 엘리시아는 교회에서 멀어졌으나, 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요일이면 종종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열리는 후기 성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상호부조회 모임이 진행 중이었으나 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가려고 하자, 한 여성이 그녀에게 손짓을 하더니 재빨리 옆으로 비켜 앉았습니다. 엘리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어요. 제 몸 여기저기에는 피어싱(주: 몸에 구멍을 뚫어 하는 장식)이 되어 있었고, 담배 냄새가 났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그냥 자신의 옆에 제 자리를 내주었어요.”

나이 든 이 여성의 사랑에 감동한 엘리시아는 다시 활동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현재 그와 똑같은 사랑을 다른 여성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준 그 연로한 자매님은 상호부조회에 모든 여성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모이지만 개개인의 약점을 지닌 채 모입니다.

앨리시아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교회에 갈 때 저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이죠. 나머지 시간은 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돕고 양육하려고 노력해요.”

주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의해 그분의 일을 하도록 쓰입니다. 앨리시아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와 천국에 함께 앉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의자에 다른 사람이 함께 앉을 자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는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1856년, 십대에 영국에서 교회에 들어와 가족으로부터 의절당한 줄리아와 에밀리 힐 자매는, 마침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해 그토록 바라던, 시온으로 가는 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윌리 손수레 부대와 함께 미대륙 평원을 횡단하던 중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월의 이른 폭풍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줄리아 힐의 증손녀인 데보라 크리스틴슨 자매는 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줄리아와 에밀리가 윌리 손수레 부대의 나머지 대원들과 함께 거센 바람이 부는 로키 산맥의 정상에서 눈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막아 줄 두꺼운 옷이 없었습니다. 줄리아는 눈 속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역시 퐁퐁 언 에밀리는 줄리아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녀가 죽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에밀리가 줄리아를 일으키려고 팔로 감싸 안았을 때, 줄리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고 작은 흐느낌 소리



만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수레가 있는 곳까지 함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끔찍한 날 밤, 열세 명이 죽었습니다. 줄리아와 에밀리는 살아 남았습니다.”⁴

자매 여러분, 서로가 아니었다면, 이 여성들은 살아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아이들이 딸린 한 젊은 어머니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여행을 견뎌내도록 도왔습니다. 나중에 시온의 자매여라는 노래의 아름다운 가사를 쓴 사람이 바로 에밀리 힐 우드맨시입니다. 여러분이 눈 덮인 평원에서 그녀가 겪은 이 경험을 상상해 볼 때, “지치고 약한 자 위로하라”⁵는 가사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힐 자매들처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다른이의 도움 없이는 지상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이를 도움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루시 맥 스미스와 초기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즉 한계를 모르는 자애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이끌어 줄 복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었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이름을 지니고 살며, 영은 구주의 가르침에 따라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영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선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자애의 가장 위대한 표시는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부지런히 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려 할 뿐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순수한 사랑의 온전한 권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며 그것을 가까이 붙잡아 두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손에 도구”⁶가 되어 “천국에서 우리의 자매들과 함께 앉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주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현재 우리가 지닌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3월 24일, Archiv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8~19쪽.
2. 앨마서 26:3.
3. Relief Society Minutes, 1842년 4월 28일, 39쪽.
4. Debbie J. Christensen, “Julia and Emily: Sisters in Zion”, *Ensign*, 2004년 6월, 34쪽.
5. 찬송가, 198장.
6. 앨마서 26:3.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앞

앤 시 핑그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노력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 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것은 큰 특권이며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결혼 상태나 연령에 관계없이 주님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독특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각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큰 일을 이루게 [됨]”¹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늘 밤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도구가 되는지를 이해하기에 이르기까지

의 지극히 개인적인 제 여정에 대해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여정이 끝난 곳, 즉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다른 많은 것들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나 빌려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음으로써 순종할 때, 그것은 그분께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²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의 일을 수행”³하는 “이 생의 날”에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을 완전히 받기 위해 우리는 맥스웰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⁴해야 합니다.

제가 이 원리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해 준 제 삶의 정련 과정은 제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던 30대 중반에 예기치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고 궁금해 하며 금식과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행복한 기대로 가득찬 남편과 저는 어린 네 자녀를 데리고 연로하신 축복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축복에서는 선교 사업이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실망했고 걱정스러웠

습니다. 제 인생의 그 시점에, 저는 겨우 물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의문의 여지도 없이 저는 선교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사의 축복문을 서랍에 집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집중하며 경전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으며, 남편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들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면서 저는 진심으로 저의 선교사 임무를 완수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서 16,0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며,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르고, 안정되지 않고 무질서한 개발 도상 국가의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임 선교사로 부름 받은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큰 일을 이루게”⁵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면에서 약간은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과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축복문을 꺼내어 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받은 축복문에 언급된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음을 안다는 사실이 제 걱정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과연 결혼한 자녀들과 아직 미혼인 자녀들, 그리고 연로하신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 남편과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나라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안을 찾고자 저는 성전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성약의 의미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제게 있어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성전 성약은 토대와 축매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두려웠지만 제가 지키고자 하는 개인적이고 구속력 있으며 성스러운 약속을 맺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



이 행할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선교사 부름이었고, 저는 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부친은 아들의 머리 위에 다음과 같은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만큼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하늘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 중에서 그대를 불러 내셨노라.”⁶ 선지자 조셉은 “주님의 큰 일”을 하도록 자신의 독특한 역할로 부름을 받았으며, 저는 당황했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지만, 저는 저 역시 그 사업에서 제가 맡은 부분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게 도움이 되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하라고 명

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 임지로 떠나기 직전 어느 날 아침, 친구 두 명이 작은 찬송가를 선물로 주며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날, 제가 여러 달 동안 기도으로써 간구했던 응답이 그 찬송가를 통해 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위안을 찾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말들이 제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이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하리라
힘 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⁷*

가장 개인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시며 저를 도우실 것이라는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해 배울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

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남편과 저는 모든 발자취에 신앙을 남긴 개척자처럼 우리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고 십여 개 이상의 언어를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으려 했던 그 시기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혼자였습니다. 나부에서 초기 상호부조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새라 클리브랜드의 느낌은 우리의 느낌 또한 묘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⁸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는 과정에서 저의 첫번째 교훈은 경전을 연구하고, 금식과 기도, 성전 참여를 비롯해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진심으로 개인적인 계시

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계시를 받기 위해, 저는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이 저와 함께 하도록 합당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교훈은 맥스웰 장로님이 설명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루 하루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조차 주님의 도움과 인도와 보호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차 뜻깊은 면에서 변했으며 저와 저의 가족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여러분의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진심으로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그분에게 일치시켰던 경험을 통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구주와 우리 각자를 위한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지니는 축복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 위한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즉, 우리의 필멸의 여정이 가장 개인적이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풍부해지도록 해주었음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개인적으로 탐구하고 여러분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킬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뜻은 “우리가 가진 것 중 진정으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⁹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앨머서 26:3.
2. 닐 에이 맥스웰,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24쪽.
3. 앨머서 34:32.
4.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24쪽.
5. 앨머서 26:3.
6. In Gracia N. Jones, *Emma's Glory and Sacrifice: A Testimony* (1987), 43~44.
7.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8. Relief Society Minutes, Mar. 30, 1842, Archive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4.
9. *리아호나*, 1996년 1월호, 24쪽.

주님의 손에 든 도구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여러분의 선한 영향은 헤아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히클리 회장님께서 세계 제일회장단을 대표해서 최근 미국에서 일어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해 이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어떤 면에서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딸들인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는 이 책임과 특권으로 저는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히클리 회장님의 짧은 비디오를 보고 교화되고 고양되었습니다. 히클리 회장님과 문슨 회장이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지지와 영향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파킨 자매님, 휴즈 자매님, 핑그리 자매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켜 주셨습니다. 합창단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저는 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하시는 의로움에 대해 여러분 개개인을 치하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을 단 몇 명만 안다 해도,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어느 날엔가 그 책이 펼쳐져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룬”²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 헌신, 그리고 행동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신권의 임무가 구분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의 임무가 구분된 이유에 대해 극히 작은 부분밖에 모릅니다. 이러한 임무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신성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성들이 신권과 지도자의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점을 두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선과 대등한 것은 우리 시대를 포함한 모든 세기와 경륜의 시대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훌륭한 딸들의 의로운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신문이나 경전에 어느 정도로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이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딸들의 이야기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드라마 속 드라마로 남아 있습니다.”³

자매님들 중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부족하다고 느



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책임과 육아는 가장 어려운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 매우 유능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 일들 외에도 가족을 돌보면서 일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을 책임진 홀로되신 자매님들과 편부모 자매님들께 연민과 사랑을 전합니다. 고귀한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그 모든 책임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도전 과제를 한 번에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도록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일들을 영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삶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자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구주가 약속하신 평화를 찾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키진 않지만 한 가지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대한 불행

한 느낌들을 너무 오래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서 바뀔 수 없는 일에 매달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고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를 야기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속죄를 통해 “생명을 주는 위안의 근원”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감미로운 평안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⁴ 어떤 상처들은 너무 아프고 깊어서 오직 더 높은 권능의 도움과 완전한 공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세의 보상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 더 높은 권능에 다가 소중히 위안과 달콤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자신이 가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미치는 선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은 측정하거나 형언할 수 없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상호부조회의 자매님들은 지금까지 참으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딸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양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수행할 선한 일들은 영원의 세계까지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⁵ 저는 진실로 여러분이 하는 일들,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왕국의 사업에서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여성에게 맡기십니다. 다른 어떤 일도 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제 어머니, 할머니들, 제 소중한 딸들과 손녀들로부터 성스러운 축복과 의로운 영향력이 저와 제 가족들의 삶에 흘러 들어 왔습니다. 제 삶에서 그 여성들 각자와의 소중한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특히 제 영원한 동반자인 루스의 경우에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신 자매님들이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큰 사랑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든 강력한 도구가 되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결혼을 했지만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자매님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그에 대한 보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 또한 이웃을 제 자신 같이 사랑”한다면, 이 축복과 위안의 평화가 여러분께 올 것입니다.⁶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일하면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에서든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좋은 쪽으로 혹은 다른 쪽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어느 정도, 아내와 어머니들은 그들 가정에 오는 축복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신권 부름을 지지하고 아들들의 신권 활동을 격려할 때, 가정은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자녀들에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내가 결혼 생활 내내 상호부조회 일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모임에 참석했을 때, 우리 가정은 아내가 집으로 가져온 감미로운 봉사의 영으로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여성 조직의 일원입니다. 히클리 회장님께서 조금 전 비디오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조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즉 이끌도록 임명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지시 받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 열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넘기고 이 조직은 기뻐할 것이며 이 시점으로부터 지식과 예지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조직에게 있어 더 좋은 날들의 시작입니다.”⁷ 조셉 스미스가 그들을 위해 열쇠를 사용한 이후로 여성들에게 지상의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회가 왔습니다.⁸

시초부터 교회의 여성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였습니다. 커틀랜드에 성전이 건축될 때 히버 시 김볼이 아래에 보고한 바와 같이 여성들은 일꾼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여성들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입히기 위해 실을 잣고 뜨개질하는 일에 전념했으며, 건물의 완공을 위해 우리가 거친 가난과 시련과 고통은 주님만이 아신다. 아내는 여름 내내 그 일의 완공을 돕기 위해 일손을 제공했다. 그녀는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 한 소녀의 도움을 받아 수백 파운드의 양모로 실을 자아냈다.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그 양모의 반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나, 양말 한 켤레를 만들 만큼의 양모도 떼어내지 않고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었다. 그녀는 실을 잣고 엮어서 천을 만든 후 그 천을 잘라 옷을 만들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커틀랜드에 있는 거의 모든 자매들이 주님의 일을 진척시키려는 목적으로 뜨개질과 바느질, 실 잣기 등의 일에 종사했다.”⁹

교회 건축가의 아내인 폴리 앤젤은 선지자 조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선한 일에서 항상 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번째로 본 사람이었고 이제 자매님들은 성전 안에서 첫번째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¹⁰

자매 여러분은 감수성, 또한 아름답고 고귀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신성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사들을 사용하여 우리 삶을 더 즐겁게 해 줍니다. 자매님들은 공과를 준비해서 전할 때 탁자 위에 아름다운 식탁보를 깔고 꽃을 놓아 둡니다. 이는 여러분의 배려와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형제들은 탁자를 시든 잡초로도 장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종종 자

신을 너무 모질게 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치는 것이 전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겸손한 헌물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즘, 방문 교사들이 많은 선을 행합니다. 십이 년 전, 수지는 도라의 방문 교사로 부름 받았습다. 자녀가 없는 미망인인 도라는 까다로운 성격에, 은둔자에 가까웠습니다. 수지가 처음 도라를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도라를 문간에서 만날 수는 있었지만 한 번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지는 도라에게 음식을 가져갔으나, 도라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당신은 그 대가로 뭔가를 원할 테니까요.”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우정뿐”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방문은 쉬워졌습니다. 수지는 점차 도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고, 필요할 때 얘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도라에게 훌륭한 와드 사람들과, 공과, 대회에 대해 말해 주어 그녀가 와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도라의 건강이 나빠지자, 수지는 매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도라가 죽었을 때, 수지는 다른 이들이 “가까워지기 어렵다”고 표현한 여성을 “놀라운 여성”, “소중한 친구”¹¹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교사로서의 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몰랐던 면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 단체이며 신앙을 쌓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침 받는 곳입니다. 히클리 회장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정은 우리를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워 줍니다. 그것은 젊은이나 노인, 부자나 가난한 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나 유명한 인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모두 이해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 주고, 격려가 필요할 때 토닥거리 주며, 더 잘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

을 키워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사랑과 성취를 낳는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찬 우정의 모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매들의 단체인기 때문입니다.

이 상호부조회 총회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같은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그리고 친구로서 함께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 모여 있는 자매들을 생각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자매는 버지니아 프레데릭스버그에서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어머니와 딸로서 함께 앉았으나 자매로서 일어났습니다.”¹²

태국에서 봉사하는 한 자매 선교사는 지난해의 방송을 듣기 위해 방콕에서 자매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일에 관해 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솔트레이크 여성들의 권고를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작은 무리의 태국 여성들로부터 커다란 힘을 느꼈습니다.”¹³ 이 모임에 함께 참석하면서 많은 나라의 바다와 강을 아우르는 자매애의 결속을 느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진실로 조셉 스미스가 1842년 상호부조회를 조직하기 위해 나부에서 적은 무리의 여성을 만났을 때 그에 의해 열쇠는 넘겨졌습니다!

이제 좀더 젊은 자매님들께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성 단체에서 여러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으로 축복받았습니다. 그 간증으로, 젊은 힘과 영향력과 충명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는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자매는 최근 상호부조회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청년이었을 때부터 자매님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상호부조회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매우 기뻐하며 그들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상호부조회에 다양한 성품과 관심, 배경, 그리고 연령층의 사람들¹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십대에서 고조 할머니,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연령대에 이르는 폭넓은 친구들이 있습니다.”¹⁴

좀더 젊은 여러분 앞에는 위대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과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놀랍도록 만족스럽고 많은 좋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에게 있어 성숙하고, 경험 많고, 의로운 자매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헝클리 회장님의 사랑하는 아내 마조리 페이 헝클리 자매님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 모두 함께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요. 우리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라건대, 젊은 여러분들도 우리 노인들을 필요로 하면 합니다. 여성이 여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회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깊고 만족스럽고, 서로에게 충실한 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정은 삶을 유지하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굳게 팔짱을 끼고 왕국을 세워서 그것이 굴러나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¹⁵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어린양의 생명의 책¹⁶에 이름이 기록된, 왕국의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겸손

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사탄이나 그의 유혹적인 어떤 악한 힘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적¹⁷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영에 대한 독특한 민감함을 흐리게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영이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여러분을 항상 성스러운 느낌으로 인도하여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의 손을 뻗칠 수 있을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요한계시록 21:27.
2. 앨마서 26:3.
3.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4. 작자 미상, “My Journey to Forgiving”, *Ensign*, 1997년 2월호, 42~43쪽.
5. *Discourses of Brigham Young*, 216쪽.
6. 누가복음 10:27.
7. 상호부조회 의사록, 1842년 4월 28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40쪽.
8. 조지 앨버트 스미스, “Address to Members of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1945년 12월, 717쪽.
9. “History of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1845년 4월 15일, 867쪽.
10. Edward W. Tullidge, *Women of Mormondom* (1877년), 76쪽에서 인용.
11. 상호부조회 사무실 소유 서한.
12. 상호부조회 사무실 소유 서한.
13. 상호부조회 사무실 소유 서한.
14. 상호부조회 사무실 소유 서한.
15. Virginia H. Pearce, 편., *Glimpses into the Life and Heart of Marjorie Pay Hinckley* (1999년), 254~255쪽에서.
16. *Glimpses into the Life and Heart of Marjorie Pay Hinckley*, Virginia H. Pearce, 254~55쪽.
17. 빌립보서 4:3.
18. 디모데전서 5:14.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연차 대회를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음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이나 가족 생활의 일부로 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아이디어 중 몇 가지를 토론이나 공부를 위해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질문을 만들거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괄호 안의

소녀들이 사모아 아피아 나부 스테이크 센터에서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선교사들이 브라질 니테로이 스테이크 센터에서 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숫자는 말씀의 첫 페이지를 나타낸다.) 첨부된 이야기 목록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린이란

1. 연차 대회는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는가?(힌트: 103쪽에 있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찾아본다.)

2. 윌리엄 틴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에 대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 일은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힌트: 70쪽에 있는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의 말씀을 읽는다.)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누가, 언제 주었는가?(힌트: 41쪽에 있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말씀을 찾아본다.)

4. 힝클리 회장은 연말까지 무엇을 하라고 요청했으며, 그렇게 할 경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힌트: 여러 말씀에서 언급되었음. 한 예로 48쪽에 있는 찰스 디디에이



장로의 말씀을 찾아본다.)

청소년란

5.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무엇을 “고대나 현대의 모든 경전에서 강조되는 위대한 원리”라고 불렀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분명 가장 필요한 미덕일 수 있습니다.”(81쪽)

6. 여러분은 팀에서 마지막 선수로 뽑혀본 적이 있는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그런 느낌이 어떤지를 알고 있다. 그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이유를 살펴본다.(56쪽)

7.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서 색다른 어떤 것, 특별





한 어떤 것을 발견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그들의 눈에 나타난
빛”이라는 말씀에서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우리 모범의 중요
성에 관해 말한 내용을 살펴본다.(20쪽)

8.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과 선교사가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데이비드 에

이 베드나 장로가 말한 내용이 선교사 부름에
대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
요한 일임을 살펴본다.(44쪽)

가정의 밤 또는 개인 공부를 위해

9.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속죄에 대한 한 선
교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어떤 찬송가를 활
용했는가?(85쪽) 구주에 관한 어떤 찬송가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 특히 감동적인가? 가정
의 밤에서 그 찬송가들을 부르고 그에 대해 이
이야기하는 것을 고려한다.

10.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복음이 여러
분 국가 또는 가족에게 전해지는 길이 마련되
었는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그러한 몇
가지 사건들, 또한 그런 사건들이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해
말씀했다.(88쪽)

11.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는 겐세마네
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제성과 개인
적인 본질에 관해 말씀했다.(74쪽) 여러분의
생활에서 그 영향을 어떻게 느꼈는가?

12. 폴 케이 시브로스키 장로는 “만일 그리
스도께서 나와 같은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
실까?”라고 물었다.(35쪽) 우리가 지닌 기회에
관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
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

읽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아래 열거된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대화 말씀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영감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있기 전에 마을 전체가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했음, 16쪽.

다리에 부상당한 여성을 간호사가 도움, 20쪽.

새로운 회원이 담배 회사 직장을 그만둠, 31쪽.

어떤 사람이 12 년 동안 교회를 찾아다님, 33쪽.

집사들과 소년단장이 어린 폴 시브로스키와 우정증진을 함, 35쪽.

찰스 디디에이 장로의 개종, 48쪽.

폴 브이 존슨 장로가 어렸을 때 연차 대회 동안 공놀이를 함, 50쪽.

라이만 이 존슨이 자신의 배도를 후회함, 53쪽.

감독이 물에 빠뜨리는 기구에 앉음, 53쪽.

가정 복음 교사가 한 회원을 방문하기 위해 일주일을 여행함, 56쪽.

말을 더듬는 제사가 한 소녀를 침례함, 56쪽.

집사와 교사들이 금식 헌물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복지 광장을 방문함,
56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그리스인 부부를 방문함, 56쪽.

수천 명의 교회 회원들이 걸프만 인근의 여러 주에서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봉사함, 60쪽.

선교사들이 의심하는 사람에게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간증함, 67쪽.

한 여성이 자신에게 부상을 입힌 젊은이를 용서함, 81쪽.

김블 회장과 자매가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동안 몸이 회복됨, 85쪽.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가 열한 살이었을 때 그의 감독이 선교사
지원서를 기재하라고 함, 98쪽.

한 청년가 상호부조회에서 환영받는 것을 느낌, 110쪽.

월리 손수레 부대에 있던 두 자매가 서로 살아남도록 도움을 줌,
110쪽.

헌신적인 방문 교사가 “가까워지기 어려운” 자매의 친구가 됨,
114쪽.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멜 기세텍 신권 및 상호 부조회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대한 다음의 유의 사항은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위한 *교과 과정 유의 사항*, 2005~2008년에 있는 내용을 대체합니다.

매달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의 넷째 주 일요일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는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말씀이 실린 *리아호나* 특집호 내용에서 가르칩니다. 특집호는 각각 5월과 11월에

발행됩니다. 또한 인터넷 www.lds.org에서도 온라인으로(여러 언어로 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말씀을 사용하여 각 공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해당 일요일에 동일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공과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들이 교회 잡지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용한 공과 준비를 위한 제언

-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때로는 연차 대회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배운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다.
-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으며 말씀을 살펴본다. 또한 여러분이 원리 및 교리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본다.
-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지에 대한 개요를 만든

다. 개요에는 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르칠 원리 및 교리를 찾는다.
- 원리 및 교리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원리 및 교리들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 이러한 원리 및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한다.

-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의 31~32장을 살펴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원들이 영의 영향을 받아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복음 원리를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복음대로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교수법 지도서*, 12쪽)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대한 의견을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로 보내거나, cur-development@ldschurch.org로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 | |
|------------------------|--------------------------------|
| 2005년 11월 ~2006년 4월 | <i>리아호나</i> 2005년 11월호에 실린 말씀* |
| 2006년 5월 ~2006년 10월 | <i>리아호나</i> 2006년 5월호에 실린 말씀* |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에서 온라인 상으로(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다.

상호부조회 가정, 가족, 개인 강화 모임 및 활동 지침

2006년 1월 1일 시행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 및 가사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다. 강화 프로그램은 자매들이 서로 친분을 쌓고 배우며 고양되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다. 강화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모임:**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은 모든 자매들을 위해 분기마다 갖는다. (월별보다는 분기 모임이 좋다.)

- **활동:** 강화 활동은 비슷한 필요 사항 및 관심 분야를 가진 자매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갖는다. (주별, 월별 모임 또는 와드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정한 주기로 갖는다.)

지도자들은 모임 및 활동 계획 시 (1) 와드 자매들의 필요 사항 및 관심 분야를 고려하고, (2) 신권 지도자들과 상의하며, (3) 지도와 함께 목적을 가지고(*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217쪽 참조)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자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필요하다면 *교회 지침서 제2권* 199쪽에 나와 있는 대로 모임이나 활동 시간 동안 어린이 받을 운영한다.

가정, 가족, 개인 강화 모임

와드 강화 모임

와드 상호부조회는 매년 네 번의 강화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 중 한 번은 1842년 3월 17일에 조직된 상호부조회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모임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지시 하에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지도자가 계획한다. 전문가를 지명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교회 지침서 제2권*, 197쪽 참조) 활동의 한 부분으로 회장의 보고 순서를 가질 수 있다.

강화 모임은 일요일이나 월요일 저녁 이외의 시간에 갖도록 한다.

스테이크 강화 모임

와드 모임 이외에 스테이크에서는 매년 한 두차례 강화 모임을 갖는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필요한 경우 스테이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임을 인도한다.(*교회 지침서 제2권*, 194쪽 참조) 이 모임 중 한 번은 상호부조회 연례 총회 방송과 연계하여 모임을 가져야 한다.

주: 이러한 와드 및 스테이크 모임은 와드 및 스테이크 특별 행



사를 대신한다.(*교회 지침서 제2권*, 202쪽 참조)

강화 활동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보다 활동이 더 여유롭게 구성되는 강화 활동을 통해 필요 사항이나 관심 분야 또는 주변 여건이 비슷하여 서로 공통점이 있는 자매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 이 활동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흥미있는 분위기로 진행되어 자매들이 가정, 가족 및 개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강화 활동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지도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부조회 전문가와 함께 계획한

다. 지도자들은 활동 계획 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며, 활동은 집회소 또는 필요 시 그 외 적합한 장소에서 가질 수 있다. 강화 활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교회 지침서 제2권*, 201~202쪽을 참조한다. ■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

다 음 참고 자료들은 아론 신권 제1과장과 청년 교제 1에 있는 공과들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대체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아론 신권: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지도서를 말한다. 개인 발전은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책자를 말한다. 지도서에 열거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개인 발전 활동의 일부를 공과 시간에 행하거나, 가정에서 달성하도록 정원회 회원 또는 반원들을 격려한다. 공과 추가 제언들을 리야호나의 1쪽과 교사,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인쇄된 순서대로 공과를 가르친다. 교재에는 부활절 특별 공과가 들어 있지 않다. 부활절 특별 공과를 가르치고 싶다면, 구주의 생애와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성구, 대화 말씀, 교회 잡지 기사, 그림 및 찬송가 사용을 고려한다.

인터넷에서 영어 외 기타 언어로 이 지도서를 찾으려면 www.lds.org로 가서 세계 지도 아이콘을 클릭한 뒤 언어를 선택한다. "리야호나"를 클릭한 후, 2005년 11월호를 클릭한다.

영문 참고 지도서들은 www.lds.org 상에서 "Gospel Library"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칼럼에는 대부분의 현재 참고 지도서가 연결되어 있다.

향후 참고 지도서는 리야호나 5월호 및 11월호에 인쇄될 예정이다. 교회 잡지(일부 언어)는 인터넷 www.lds.org에서 찾을 수 있다.

아론 신권 제1과장

다음 참고 자료들은 제1~24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1과: 신권

제프리 알 홀런드, "우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리야호나, 2005년 5월호, 43쪽. 신권 권능을 얻는 것에 관한 홀런드 장로의 말씀을 활용하여 공과를 소개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영적인 발전", 1번: (제사), "정원회 활동", 4번

제2과: 집사의 부름

"집사 정원회", 리야호나, 2005년

1월호, 42쪽. 이 기사에 있는 질문들을 활용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에 관해 토론한다.

"신권의 기적", 리야호나, 2004년 4월호, 26쪽. 집사의 의무에 관해 토론하는 동안 아론 신권 책임에 관한 질문을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영적인 발전", 4번.

제3과: 성찬을 집행함

델린 에이치 옥스, "아론 신권과 성찬", 리야호나, 1999년 1월호, 37쪽. 성찬 전달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이 기사를 활용할지 고려해 본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정원회 활동" 1번.

제4과: 금식 헌물을 걷음

토마스 에스 몬슨, "그대 모범이 되라", 리야호나, 2002년 1월호, 115쪽. 금식 헌물에 관한 몬슨 회장의 말씀을 금식 헌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부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조셉 비 워스런, "금식의 법",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88쪽. 금식

헌물에 관한 워스런 장로의 말씀을 "가난한 자를 이해함" 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정원회 활동", 2번

제5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들을 물리침", 리야호나, 2002년 2월호, 2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다윗과 골리앗에 관해 토론한다.

로버트 디 헤일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리야호나, 2004년 11월호, 70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관한 헤일즈 장로의 제언을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가족 활동", 1번.

제6과: 성신

보이드 케이 패커, "그리스도의 빛", 리야호나, 2005년 4월호, 8쪽. 패커 회장의 말씀이 공과를 보충할 수 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주님의 등불", 성도의 빛, 1988년 12월호, 33쪽. 성신을 받기 위한 준비에 대한 여러분의 토론에서 패커 회장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가족 활동", 5번.

제7과: "마음의 큰 변화"

토마스 에스 몬슨, "완전에 이르는

길", 리야호나, 2002년 7월호, 111쪽. 자기 수양에 대한 몬슨 회장의 말씀을 포함시킨다.

제8과: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53쪽. 파우스트 회장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 대한 토론에 추가한다.

델린 에이치 옥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15쪽. 아버지를 존경하는 방법에 대한 옥스 장로의 의견을 공과의 해당 부분에서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12번.

제9과: 어머니와 어머니의 신성한 역할을 존경함

러셀 엠 넬슨,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 리야호나, 1999년 7월호, 45쪽. 넬슨 장로의 말씀을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과: 가족 유대

스코트 빈, "내 가족에 대한 진실", 리야호나, 2003년 3월호, 30쪽. 가족이 우리의 발전을 어떻게 돕는가에 관한 부분에서 이 이야기의 활용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가족 활동", 4번.



제11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셉 비 위스린, “친절의 미덕”,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6쪽. 앤디의 경험을 위스린 장로의 첫번째 이야기로 보충하는 것을 고려한다. 캐서린 에이지 휴즈, “우리의 삶을 높이는: 주 님은 우리 친구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4쪽. 바람 빠진 타이어에 관한 휴즈 자매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례 연구를 보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1번.

제12과: 살아 계신 선지자를 따르

조셉 비 위스린,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16쪽. 기사의 시작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활용하여 공과의 결론을 강화한다. 디미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선지자의 음성으로 축복 받는 세계적인 교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쪽. 살아 계신 선지자에 대한 우흐트도르프 장로의 간증을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알 콘래드 슐츠, “순종의 신앙”,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2쪽. 기사에서 관계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순종의 필요성을 보강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가족 활동”, 5번.

제13과: 모든 회원은 선교사임

엘 리셀 벨라드, “회원 선교 사업의 필수적 역할”,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37쪽. 회원 선교사가 되는 벨라드 장로의 방법을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부분에 통합시킨다. 헨리 비 아이어링, “참된 친구”,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9쪽. 친구로 인해 교회를 알게 된 루팔라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을 나누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음” 편에서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11번.

제14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

엘 톰 페리, “봉사하는 것을 배움”, *리아호나*, 2002년 5월호, 10쪽. 기사의 결론을 활용하여 공과를 요약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영적인 발전”, 9번; (집사), “정원회 활동”, 5번.

제15과: 신권회의 단합과 형제애

엘 톰 페리, “정원회란 무엇입니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23쪽. 형제애에 관해 선택된 가르침을 활용하여 공과의 해당 부분을 보강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10번. (제사), “영적인 발전”, 7번.

제16과: 사랑

진 알 룩, “사랑: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91쪽. 고난에 관한 부분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에 관한 공과 토론을 보강할 수 있다. 보니 디 파킨, “사랑을 선택함: 이 좋은 편”,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04쪽.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파킨 자매의 말씀이 사랑의 특성에 관한 토론을 보충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시민으로서의 발전과 사회적 발전”, 4번.

제17과: 개인 일지

스펜서 더블류 김볼, “천사가 인용할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77년 6월호, 24쪽. 기사에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과의 시작 부분에 있는 성구 토론을 보충한다. 제프리 에스 맥클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지”, *성도의 빛*, 1996년 8월호, 30쪽. 기사에 있는 일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일지를 적어나가는 것에 관한 토론을 강화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7번; (집사), “영적인 발전”, 8번.

제18과: 지혜의 말씀

마사유키 나카노, “지혜의 말씀은 지킴으로써 얻는 축복”, *리아호나*,

2005년 6월호, 32쪽.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한 부분에 이 이야기를 덧붙인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육, 개인 및 직업에 관한 발전”, 12번.

제19과: 유혹을 극복함

리차드 지 스코트,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쪽. 기사에서 적절한 부분을 활용하여 공과의 시작 토론을 강화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영적인 발전”, 5번.

제20과: 선택의지를 합당하게 사용함

“완전을 향한 우리의 발전”, *리아호나*, 2005년 2월호, 34쪽. 기사에 있는 “신앙으로 행함” 편을 활용하여 공과의 첫 부분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21과: 순수한 생각: 깨끗한 말씨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7쪽. 외설물에 대한 옥스 장로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제22과: 성약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함

테니스 비 노인슈안더, “의식과 성약”,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6쪽. 성약에 관한 노인슈안더 장로의 설명을 공과 중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리차드 제이 메이너즈, “우리의 성약을 지킴”,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92쪽. 힐라멘의 아들들을 성약을 지키는 모범으로 예시한 메이너즈 장로의 설명을 활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제사)*, “가족

활동”, 2번.

제23과: 인도를 간구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기도라는 구명 밧줄”,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쪽. 역할 담당극 토론 이후에 기도에 관한 파우스트 회장의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고려한다. 러셀 엠 넬슨, “기도의 부드러운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를 설명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집사, 교사, 제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증서 요건”, 3번.

제24과: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둔 회개

리차드 지 스코트,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5쪽. 스코트 장로의 권고를 공과 중에 덧붙인다. 제이 이 젠슨,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14쪽. 공과에 있는 이야기를 기사에 있는 선교사업 이야기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교사)*, “가족 활동”, 5번.

청년 교재 1

다음 참고 자료들은 제1~24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1과: 하나님의 딸

고든 비 힝클리, “어떻게 하면 내가 꿈꾸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을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2쪽. 신성한 잠재성을 강조하기 위해 앨범



이야기를 들려준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님께서 아버지를 베푸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99쪽. 신권 지도자의 꿈 이야기를 활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가렛 디 네이들드, “햇불을 높이 드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8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와 결론을 보충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1번.

제2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제일 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4년 12월호, 6쪽. 선지자와 사도들의 간증을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속죄: 우리의 가장 큰 희망”,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쪽. 속죄에 관한 토론 동안에 이 기사의 활용을 고려한다.

로버트 디 헤일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0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관한 헤일즈 장로의 제언을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5번.

제3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

엘 톰 페리, “제자의 신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72쪽. 공과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 중에 적절하게 이 기사를 활용한다.

일레인 에스 돌튼,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09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관한 토론을 보충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4번.

제4과: 성신의 동반을 구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성령과의 교통”, *리아호나*, 2002년 3월호, 2쪽. 계시를 받는 방법에 관한 부분을 결론에서 활용한다.

보이드 케이 패커, “그리스도의 빛”,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8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영과 성신의 은사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새론 지 라슨, “해의 왕국의 길잡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4쪽. 재속의 이야기 중에 적절하게 라슨 자매의 경험을 들려준다.

개인 발전, “선택과 책임 가치관 경험”, 5번.

제5과: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에서 기쁨을 찾음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쪽. 다섯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인생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에 관해 토론한다.

마가렛 디 네이들드, “여성이 되는 기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17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1번

제6과: 지금 기쁨을 찾음

토마스 에스 몬슨, “평화를 찾음”,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3쪽. 기사에 있는 세 편을 활용하여 기쁨을 찾는 방법을 토론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8쪽. 기사에 있는 10가지 미덕을 열거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22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제7과: 가사

토마스 에스 몬슨, “행복한 가정의 표시”,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2쪽. 기사에 있는 네 가지 표시를 활용하여 공과를 결론짓는다.

수잔 더블류 태너, “장차 어머니가 될 청년들을 강화함”, *리아호나*, 2005년 6월호, 16쪽. 공과를 기사로 대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활동”, 1, 2, 5번째 항목

제8과: 우리의 신성한 역할에 대한 태도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8쪽. 이 기사에 있는 10가지 미덕을 토론하여 청년들이 그들의 신성한 역할을 배우도록 돕는다.

엠틀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4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6번.

제9과: 부모를 공경함

토마스 에스 몬슨, “모범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12쪽.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활용하여 공과를 보충한다.

“가장 위대한 행복”,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26쪽. 부모에 관한 인용문을 활용하여 유인물을 만들거나 공과를 소개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5번

제10과: 가족을 지지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가정의 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함”, *리아호나*, 2003년 6월호, 2쪽. 아홉 가지 제언과 이것들이 어떻게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커밀 콜 타벳, “마이클이 남긴 쪽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23쪽. 이야기를 읽고 “형제 자매를 지지함”에 관한 토론을 시작한다.

“질 의 응답”,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30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지지함”에 관한 토론을 보충한다.

개인 발전, “선행 가치관 경험”, 1~7번.

제11과: 자립심을 키우고 성장시킴, 제1부

보이드 케이 패커, “영적 악어”,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8쪽. 인용된 시 중에서 이 기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영적인 위험에 직면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고려한다.

개인 발전, “지식 가치관 경험”, 4번.

제12과: 자립심을 키우고 성장시킴, 제2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에게 주는 메시지”,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쪽. 연극을 기사에 있는 예로 대체한다.

제13과: 신권 소유자를 지지함

러셀 엠 넬슨, “개인의 신권 책임”,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4쪽. 신권 소유자를 지지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다섯 가지의 개인적인 목표를 살펴본다.

제이 리차드 클라크, “신권을 존중함”,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41쪽. 젊은 신권 소유자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서 이를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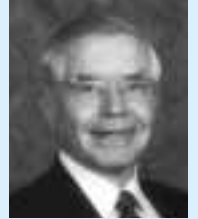
주일 학교



다니엘 케이 주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월드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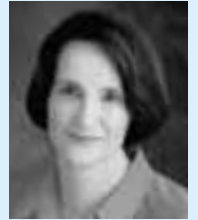
상호부조회



캐서린 에이지 휴스
제1보좌



보니 디 파킨
회장



앤 시 핑그리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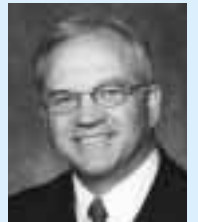
청남



딘 알 버게스
제1보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마이클 에이 네이더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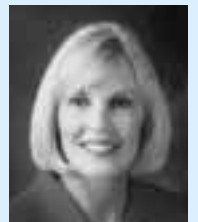
청녀



줄리 비 벅
제1보좌



수잔 더블류 테너
회장



일레인 에스 돌튼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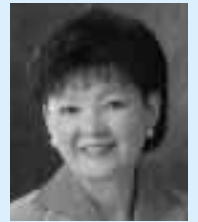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셰릴 시 렌트
회장



비키 에스 마쭈모리
제2보좌

활용한다.

제14과: 가정에서의 가정의 지도력

엘 톰 페리, "아버지, 영원한 부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69쪽.
오늘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활용한다.

제15과: 멜기세덱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모든 장로들과 모든 자매들이 알아야 하는 것: 신권 행정의 기본적인 원리", *성도의 벗*, 1994년 11월호, 14쪽. 공과를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신권의 권세",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1쪽.
"멜기세덱 신권의 성임은 위대한 축복임" 편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5번.

제16과: 여성과 신권 소유자

제임스 이 파우스트, "아버지, 어머니, 결혼",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2쪽. 공과를 보충하기 위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셰리 엘 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3쪽. "여성은 남성 및 신권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음" 편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제17과: 성약 및 의식의 목적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의식과 성약", *리아호나*, 2001년 11월호, 16쪽. 성약을 지키는 책임에 관한 토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에프 데이비드 스탠리, "가장 중요한 단계", *리아호나*, 2001년 10월호, 34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성약에 따른 생활을 통해 얻는 권세를 설명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경험", 1번.

제18과: 성전 결혼-행복한 가정 생활의 기초

고든 비 힝클리, "영원히 지속되는 결혼", *리아호나*, 2003년 7월호, 2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공과에 있는 이야기들을 대체하거나 보강한다.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7쪽.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시킨다.

특별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공과를 보충하기 위해 활용한다.

개인 발전, "고결성 가치관 활동", 5번째 항목.

제19과: 개인 기록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자신의 존재에

관한 훌륭한 것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53쪽. "조상의 기록은 기쁨과 힘을 줌" 편과 함께 활용한다.

보이드 케이 패커,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2쪽. 퀴즈를 끝낸 후에 이 기사를 활용하여 가족 역사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활동", 3번째 항목.

제20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을 줌

엠 러셀 벨라드, "포용의 교리",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40쪽. 기사에 있는 예들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과 우정을 맺도록 격려한다.

개인 발전, "신성한 성품 가치관 경험", 3번.

제21과: 의로운 모범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침

토마스 에스 몬슨, "그대 모범이 되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15쪽. 캐스퍼 자매의 이야기를 몬슨 회장의 경험으로 대체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하나님의 의로운 딸들이 지닐 미덕",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8쪽. 파우스트 회장의 10가지 미덕을 공과 적용에 포함시킨다.

제22과: 회개

리처드 지 스코트,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5쪽. 스코트 장로의 권고를 "회개는 계속적인 과정임" 편에 포함시킨다.

제이 이 젠슨, "회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14쪽. 기사에 있는 회개의 조건을 공과와 첫번째 편에 삽입한다.

제23과: 용서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용서",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6쪽. 이 기사를 활용하여 구주께서 용서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충한다.

제24과: 기도와 명상

제임스 이 파우스트, "기도라는 구멍 뚫기",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쪽. 에이치 버크 피터슨의 인용문을 기도에 관한 파우스트 회장의 권고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한다.

러셀 엠 넬슨, "기도의 부드러운 힘",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쪽. 기도에 관한 넬슨 장로의 가르침을 마지막 부분에 삽입한다.

개인 발전, "신앙 가치관 경험", 1번. ■



한 회원이 컨퍼런스 센터(위쪽) 안에서 80개 언어(원내) 중 하나로 대회를 경청하고 있다.

회원들이 80개 언어로 연차 대회와 발표를 듣다

두 개의 새로운 성전과 조셉 스미스의 생일을 위해 계획된 특별 행사가 80개 언어로 통역된 제 175차 반연차 대회 동안에 이루어진 발표의 하이라이트였다.

개회 말씀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솔트레이크 밸리의 서부 지역인 유타주 사우스조던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회원수 성장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솔트레이크 밸리 남서부 지역에 성전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폐회 말씀을 통해 힝클리 회장은 선지자 탄생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했

던 것처럼, 자신도 버몬트 주에 있는 선지자 조셉의 출생지로 여행을 함으로써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념 방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 대회의 동시 통역은 컨퍼런스 센터와 국제적으로 산재한 26개소의 원격 스튜디오에서 통역자들을 통해, 과거의 다른 어느 대회보다도 더 많은 80개 언어로 이루어졌다. 대회의 모든 모임은 교회 위성 시스템을 통해 81개국에 있는 교회 소유의 6,000여 집회소에서 중계되었다. 대부분의 모임이 최대 61개 언어로 온라인을 통해 음성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위성 및 기타 전송 방법을 통해 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DVD 또는 비디오를 교회 단위 조직으로 보내 연차 대회 진행 상황을 160개국 이상에 있는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0년의 눈부신 역사

니콜 세이모어, 교회 잡지

고 든 비 힝클리 회장이 1995년 9월 23일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소개한 이래로 10년이 지났다. 그 이후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발표한 이 선언문은 가족을 수호하는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선언문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올리는 외침이며, 사회의 기본 단위를 약화시킴으로써 가치관을 저하시키고 우선 순위를 잘못 선택하게 하여 사회를 파괴하려 위협하는 세상에 대한 단호한 경고입니다.”(이번호, 41쪽 참조)

복음 진리에 근거한 이 선언문은 가정, 지역사회, 세상의 모임에서 가족에 관한 길잡이가 되어왔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

의 구심점으로, 그리고 선교 도구로서, 또한 교회가 가족을 더 강조하는 데 사용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왔다.

시대에 앞서 주어진 경고

가족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 선언문은 의로움의 기초 위에 가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선언문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가족의 약화 정도를 인

식하기 전에 발표되었다고 브리검 영 대학교 가족 생활 대학원의 데이비드 시 돌러하이트 교수는 말했다.

1995년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선언문을 소개하기 전에 힝클리 회장은 사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가치가 전도되는 세상입니다. 시간이 입증해 준 행동 표준을 저버리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강력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정박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

도의 빛, 1996년 1월호, 98~99쪽)

선언문은 간통, 이혼, 동거, 학대, 동성애, 낙태, 10대 임신, 외설물, 불순종적인 자녀, 경제적 어려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기피 경향의 증가 추세 등, 여러 문제들에 의해 가족이 약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가족의 존엄성을 촉구하는 교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선언문에 담긴 영원한 관점을 통해 어떻게 더 훌륭한 관점을 인식해 가족 관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선언문의 말씀들을 듣고 믿는 어린이는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지속시켜 주는 의식과 성약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갈망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가족”,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16쪽)

가족을 위한 길잡이

“여러분이 사랑과 큰 희망으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분명하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들의 생활은 더욱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라고 헝클리 회장은 말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9쪽)

선언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1쪽)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마리스칼 스테이크 파노라마 워드의 비

르나 로드리게스 형제는 혼동의 세상에서 선언문이 길잡이가 되고 교회 잡지를 통해 밝혔다. “선언문을 통해 활동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고, 축복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타이완 타오위안 스테이크 타오위안 제 3와드의 리 메이 첸 호자매는 선언문을 통해 가족 관계가 신앙, 인내, 사랑과 같은 신성한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선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 따라 제 자신을 향상시키려 노력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 법대의 리차드 지 윌킨스 교수는 선언문이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 가족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에는 문제들이 있기도 한데 그것들은 해결해야 합니다. ... 가족 안에서 잘못 되어가는 점들이 선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언문을 보면 우리 가정이 안식처와 성소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외침

1995년 이후로 선언문은 77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배부되어 왔다. 선언문은 시민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가족 가치관을 보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써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가족에 관한 선언문은 지난 10년 동안 가족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왔다.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10년간 가족 옹호 단체가 많이 세워졌습니다.”라고 돌리 하이트 형제는 말했다. 그 중 많은 단체들이 가족에 관한 후기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언문은 결혼 및 가족 생활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가다듬기 위한 기초 내지는 적어도 그런 표현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하나의 출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2004년 12월 6일에 유엔 총회는 선언문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2004

년 11월 도하 선언서의 결과를 인정했다. 그 선언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중 선언문에 담긴 내용과 비슷한 원리를 살펴보면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이며 서로 동반자로서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개념을 볼 수 있다.

2004년 8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가족에 관한 유럽 지역 대회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는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논점을 선언문의 내용을 통해 뒷받침했다.

연구와 지지 활동을 위한 나침반

칠십인 회장단의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선언문은 가족 생활을 위한 지침서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 연구 및 지지 활동을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Eternal Family”, *BYU Magazine*, 1998년 겨울호, 29쪽)

세계 가족 정책 센터의 책임자인 윌킨스 형제는 센터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선언문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브리검 영 대학교와 전세계에서 선언문에 있는 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훌륭한 학문적 자료를 발전시키고, 또한 세상의 지도자들이 선언문에 주목하도록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리에 맞는 증거와 토의는 국제적으로 많은 청중들로부터 가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매년 브리검 영 대학교는 가족에 관한 대회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오는 40~50명의 대사들을 주최자로서 맞이한다. 연구를 지향하는 이 대회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선언문을 제공한다. 윌킨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사들에게 종교에 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녀 사이의 결혼이 어떻게 독특하며 다른 형태의 관계들 보다도 사회와 개인을 위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해 말해주는 저명한 사회학자들을 소개합니다.”

세계를 향해 치켜든 기치

선언문에 관한 여러 권의 저서를 편집하거나 공동 편집했던 돌

러하이트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선언문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되게 느껴지는 이유를 인식할 수는 없겠지만, 정직한 마음과 정신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경전처럼 정말 참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교회 회원들은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 관리자들과 전국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교훈들 가운데 한 가지는 가족에 관한 것으로, 교회의 다른 자료들 중에서도 선언문을 활용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 한 교사는 학교에서 주어진 도덕적 교훈들을 본적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일반 공개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의 생활에서 변화를 보았고, 제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가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 본 후, 저는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변화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Central America News of the Church, Liahona*, 2004년 1월호, N13쪽)

“오늘 저는 이 교회의 회원들과 도처에 있는 헌신적인 부모, 조부모 및 모든 친척들을 포함한 대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위대한 선언문을 고수하며 그것을 모로나이 총대장의 자유의 기치와 같은 깃발로 삼고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고자 결심하기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이번호, 42쪽 참조) ■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격려가 담긴 2006년 상호향상 모임 주제

전 세계 청남 청년을 위한 2006년 상호향상 모임의 주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 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서 구세주의 빛이 발하게 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씩씩한 청소년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라고 본부 청남 청년 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상호향상 모임 및 기타 청소년 활동에서 이 주제를 강조할 것을 권고 받고 있다. 이 주제는 또한 청소년의 말씀과 생각을 위해 활용될 수 있고, 춤과 음악 축제, 청소년 대회 및 야영과 같은 활동에 대한 초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부 청남 및 청년 회장단은 청소년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회복을 기념하면서 2005년에 겪은 경험들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피력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가슴설레는 강한 간증을 지니고,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을 지금,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본부 회장단은 성명서에서 말했다. “빛나는 모범이 되는 것, 즉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전세계의 청소년들은 2006년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회복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까?”

청소년은 2006년 주제를 활용하여 봉사하고, 복음을 나누고, ‘청소년을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방법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해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모범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그 성명서에는 적혀 있다. ■